朝鮮日報 夕刊 六日(水) 本紙朝夕刊二十二面

議會消息

形式的順序를完了 本格的論戰進展期

【東京電話同盟】今回의 特別議會는 去一日召集以來 豫定의順序를 經하야 成立을告하고 特히 開院式에 臨하야 畏偶의勅語를 賜하신데 全員이 恐懼感激하야 軍民一致 自省自戒의精神으로써 議會政治의 健全向上에 一段의 努力을 傾注하고저 協力의 氣運을 노피게되엿다。그리고 近衛、富田兩議長은 五日午前 함께 宮中에 參內하야 勅語奉答文을 捧呈하고 이로써 兩院의 行事를 終하고 開院이 되엿다 同日 全院委員長、常任委員의 選擧手續을 終了하야 玆에 一切의 政戰開始의 準備行이 終하엿다 따라서 本格的 論戰은 드디어 六日午前十時 貴族院本會議 開會劈頭에 行할 廣田首相、有田外相의 一般施政及外交演說、寺內陸相의 『二、二六事件眞相』報告와 이에對한 廣田武彦男(公正)의 首相、文相에 對한 國體觀念과 敎育方針에 關한 質問으로써 始作하고 衆議院에서도 同日午後一時開會와함께 首相、外相의 演說外에 馬場藏相의 財政演說、寺內陸相의 事件報告가잇슨後 臨時로 山崎達之輔氏(民)、濱田國松氏(政)、齋藤隆夫氏(民)等의 順序로 登壇할터인데 廣田內閣의 庶政一新、肅軍徹底、國體明徵、國防等에 關하야 政民兩派及 各小會派와 國民同盟의 批判檢討를 行하려고하고잇스므로 今議會의 論戰은 相當히 熱烈할것이라고 一般은 多大한 興味를 가지고잇다

東亞安定力으로써 對蘇中關係調整

對英米親善策과 各國의經濟的武裝에言及

有田外相의外交演說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六日貴衆兩院本會議에서 左와如히 演說을 試하야 日本의 確乎不動한 外交方針을 中外에 闡明하엿다

생각컨댄 東亞安定을 確保함으로써 世界平和에 貢獻하는 同時에 國際正義를 確立함으로써 人類의 福祉를 增進함은 帝國의 國是이다 그리고 國民의 生存을 確保하고 그 進展을 期하는同時에 諸國民相互의 融和를 圖하고 特히 日滿兩國의 特殊不可分關係를 基調로 東亞의 安定力의實을 擧함은 右國是를 遂行하는 日本의 指導精神이라고 信한다 右指導精神에依하야 國際案件을 處理함에 當하야 自主積極的인 同時에 大國日本으로서의 品格을 損傷함과如한일이업기를 期하야 惶悚하옵게도 國際聯盟脫退에 關한 御詔書中에 宣明하옵신 信을國際에篤케하고 大義를 宇內에顯揚하라 하신 聖旨에奉副하려하는바이다

國際現狀을보면 不滿焦燥의念은 到處에瀰漫하야 平和를 紊亂케하는 情勢는到處에서出現되고잇다 따라 먼저 이不滿焦燥의念을 醸成하는原因을 除去하는것은勿論 世界平和를 確保하는所以이다 各國은自國의 利益擁護에專念하는것은 當然하나 다만 이에忠誠하려하는나머지 他國의立場에 充分한 理解를 가지지못함과가튼것은 世界不滿焦燥의念을 醸成하는 原因이되는것이다

나는 各國政治家는 깁히이를 反省하야 政治經濟上 關係調整에 當할것을確信하는바이다 日本政府는 東亞의平和維持를爲하야 日滿兩國과 蘇聯邦關係가 正常且平穩하기를 冀願하는바로 日本政府는 滿洲國과함께 何等侵略的意圖를 가지고잇지 안타는것은 只今에 새삼스러히말할것도업스나 近時 滿洲國과蘇聯邦의 國境方面에서 事件이續出하고 또 滿洲國外蒙과의間에도 同樣의 事件이頻發되는것은 遺憾千萬한일이다 特히 境界가 不明確함에 不拘하고 國境을 侵越하엿다는 一方的判斷에 基하야 即時 武器를 使用함과 如한것은 한갓 國交를 尖銳化하는 以外에 何等 實益이업는것이다 如斯한 行動에 對하여는 이미 蘇聯邦政府當局의 注意를 喚起하여두엇스나 이機會에 다시猛省을 促하려하는바이다 日本政府는 滿洲國과 協議하야去三月中旬 蘇聯邦에對하야 蘇滿國境全線에 亘하야 國境線을明瞭케 하기 爲하야 有效適切한措置를講究하야 이와併行的으로 國境紛爭의 平和的處理機構를 設定하기로 하고爲先 東部國境의 興凱湖로부터 圖們江에 이르기까지의 區間에서 紛爭이가장만히 發生하는 區間에서 이를 實行하기를 提議하엿다 近時에 發生하는 滿蘇國境事件은 擧皆이 區間에서 이러나는 事實로보드라도 蘇聯邦政府에서는 速히 日本側의實行的인提議를 應諾할것이라고思惟되나 同國政府에서도 마침내 이에 應諾할意思를 表示하엿슴으로 逐次具體的協議의 進展을보게되기를希望하는바이다 滿洲國에서는 이交涉의進展에따라 從來懸案의 平和的解決을圖하야 善隣友交關係를樹立할意向을 갓고잇다고 信한다 滿洲國外蒙關係에對하여는 目下 滿蒙間直接交涉이엇스나 速히 諸案이解決되고 特히 兩者間에 代表交換이 實現되기를 希望하는바이다

日蘇關係의現狀은 遺憾이나 日本政府는 東亞의 平和를 衷心으로 希望하는 見地에서 右事實에 對하야 無關心할수 업다는것을 이機會에 明瞭히하려고 思한다 滿洲國에 對하여는 日本은 不可分關係를 基調로 日滿中間의 正常關係를 樹立하려하는 不動의 外交方針에 依하야 滿洲國의 經濟開發等에 될수잇는限의 援助를 與하는 同時에 同國에 잇서 日本의 治外法權撤廢及 南滿洲鐵道附屬地行政權의 調整乃至 委讓에 關하야 그漸進的實現을期하기 爲하야 目下 準備中이다

다음에 日中關係에關하야 對中三原則을 基礎로 日中間에 交涉을進捗하기로되여잇다 다만根本的으로 中國當局者는 交涉을進行하기爲하야 眞正으로 東亞大局을 洞察하고 一大決心을 가지고 努力하기를 要求한다 이點에對하여는 不幸히 아직 充分치못한것가티 보임은遺憾이나 日中國交調整은 將來 東亞平和를爲하야 極히 必要하다는것은 말할것도업다 나는中國의決意를 促하는同時에 모든方面에亘하야 日中國交關係를 調整하기 不可缺하다고 思惟한다 東亞에잇서 赤化勢力의 侵入에對하여는 政府는 恒常細心注意하고잇다 最者 四川省方面으로부터 陝西省에移動한 共產軍主力의 一部는 다시 山西省에侵入하야 同方面에서 活動을 繼續하엿다고 傳하는터 今後 情勢如何에 依하여는 北上할形勢를 取하려고 觀測되는데 對하야 政府는 深甚注意하고잇다

英國에서는 去一月 皇帝죠지第五世陛下께서 崩御하시엿다 故陛下께서는 二十五年餘에 亘하야 大英帝國에 君臨하야 그間 世界大戰 或은 內外로 時艱多端한 時局에 當하시와 널리 聖德을 發揮하신 바이다 新帝에드와드第八世陛下께서는 多年 御經驗을 經歷하시와 時局에 御理解가깁흐시고 일즉日本에 御來遊하신이다 나는 大英帝國의前途는 同陛下의 治下에잇서 더욱多幸하리라고 생각하는 同時에 日英兩國의 傳統的親善은 益益增進되기를 希望하는바이다 英國으로서는 世界各方面에亘하야 調整을 要할 利害關係가 不少하나 日英親善의傳統과 世界平和遂行의責任과를 생각하야 各種特殊必要에對하야 充分考慮를加할 時에는 그利害調整은 決코 難事가아니라고 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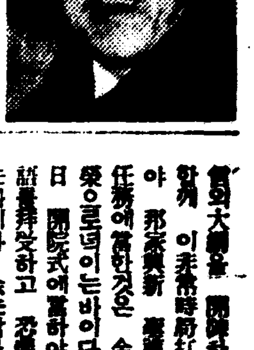
日米兩國의 親交는太平洋의平和關係이라함은 말할것도업스나 兩國은 政治經濟의 相互依存關係에 잇슬뿐만아니라 兩國民間의 理解가 漸次 深厚하게되는 것은 實로 欣喜할만한일이다 兩國은 今後 더욱 雙方의 立場을 自覺尊重하고 太平洋平和維持에 益益 協力하지안호면 안될것이다 나는 兩國의 親善에 對하야 더욱 努力하려하는바이다。

다음에 國際貿易現狀을 觀察하면 諸外國에서는 或은 諸種의 口實을 設하야 外國生產品排斥을 企圖하고 或은 數國間에 所謂經濟圈을 結成하야 經濟的武裝을 鞏固히하려하는 趨勢가 더욱 顯著하게되고잇다 이러한 趨勢를 放置할時에는 世界的經濟不況에 잇서 世界貿易의 萎縮、나아가서는 人類의 經濟生活에 重大性……을 招來할것이므로 政府는 機會잇는대로 各國에 對하야 此種經濟的武裝을 撤廢하야 世界人類의 經濟的障害를 打開하고 人類의 共存共榮에 資케하야 世界平和에 寄與할 眞摯한希望을强調하여왓다 그러나 不幸히如斯한日本의主張은 多數諸國에 容認되지못하야 國際平和의 障害가 될만한 措置가 더욱 그範圍를 擴大하는 傾向을 보이고 잇다는것은 實로 寒心한일이다 特히 諸外國中에는 專혀 日本製品의壓迫을 主目로 하는것을 보게되는것은 日本과如히 原料品의購入과 製品의販路를 海外에 確保함으로써 國民의經濟的 生活을 維持하는 나라에對하여는 實로 事態가 重大한바가잇다 따라 日本으로서는 모든方法으로써 如上의 經濟的武裝의 撤廢又는 緩和를 爲하야 極力努力하지안흐면 안될것이나 萬一不幸히日本의努力에 不拘하고 事態의 改善을 보지못할 境遇에는日本에서는 不得已 이에對應하기爲하야 새로 必要한措置를 取하지안흘수 업스리라고 思惟된다 이러한 境遇에 잇서서도 日本이 意圖하는바는 이에依하야 相對國의 反省을 促하야 國際通商關係를 明朗케하려하는 以外에는 他意가업는 것은 勿論이다

國際間의 理解親善을 增進하기爲하야 文化의紹介가 重要한 것은 勿論으로 이見地에서日本政府는 從來의 對中文化事業以外에 昭和九年度以降 國際文化事業의 創設擴大에 努力하여왓스나 그結果 諸國民의 日本硏究는 一層 盛大하게되는것은 깁븐現象이다 今後 더욱 此種事業의 振興에 努力하야 國際間의 理解를 깁히하고 世界文化를 增進케하려고 思한다 그리고 從來의對中文化事業에 對하여도 諸般設備를 一層 改善하야 日滿中 文化的提携를 促進하야 深奧玄妙한 東方文化를 發揚함으로써 日本文運에 寄與하기를 期하는바이다

最者 帝都에서이러난 不祥事件은 諸外國에 非常한 衝動을 與하야 日本의 對外關係에 甚히累를 及할憂慮가 잇섯든것이나 天皇陛下의 御稜威와 擧國奉公精神의 發動으로 時局을收拾하고 念慮되든일이 업섯든것은 不幸中多幸이다 나는 時局을 屈服하고 第一로 國策遂行의道는 朝野各方面이 國際現狀에 充分認識을 明確히하야 一致協力과 一大決心으로써 勇往邁進함에잇다고 確信한다 玆에 諸君의 熱心한 御援助를 翹望하는同時에 渾身努力으로써 重責을 다하기를期할覺悟이다

廣田首相施政演說



【東京電話同盟】今日의 貴族院本會議에서行한 廣田首相의 施政方針演說要旨는 左와如하다

諸君 第六十九帝國議會는 臨時召集하엿슴것이나 過般事件으로 內閣은 更迭되고 不肖가不敏에 大命을拜受하고 重任을담당케하야 玆에 政府所信을 披瀝하고 諸君과 함께 이未曾有時局打開에 當하야 邦家庶政一新 萬機를 奉行할 任務에當한것은 余의 責로 光榮으로녀이는바이다 時局 再昨日開院式에 當하야 優渥한 勅語를 拜受하고 恐懼感激無至하는 바이다 余는 삼가 聖旨를 奉體하고 奉公의 誠을 다하려하는바이다

回顧하면 去二月二十六日의 不祥事件은 惶悚하옵게도 깁히 宸襟을 奉惱케하고 人心에 衝動을 與하야 마침내 戒嚴令中一部規定의 適用을 보게된것은 實로 恐懼하야마지 안는바이다 [illegible]

伊軍遂에都入城

全世界의反對를排擊、遠征繼續七個月餘에

뭇솔리니覇業成功

【아디스아베바五日至急報同盟】世界의反對를 斷乎히 排擊하면서 에디오피아討征을 敢行한以來 七個月餘에 宿怨의 에디오피아에對하야 最近科學戰으로 猛襲을加하면서 一路 首都아디스아베바로 進擊을 繼續하고잇든 伊太利遠征軍은 總司令바드리오元帥의 命令一下 五日午後五時를期하야 堂堂히 入城을開始하얏다 (寫眞은 바드리오元帥)

伊軍鐵蹄下에의首都

바將軍入城

公使館에總司令部移轉

【羅馬五日發電通】東阿遠征伊太利軍總司令官바드리오將軍은 五日午後六時 自動車로 아디스아베바에 入城하야 即時伊太利公使館跡에 國旗를 세우고 此處에 總司令部를두엇다 午後十時까지에 三萬의 伊太利兵이 市內에入하야 王宮 無電局 停車場 其他 各要所를 全部占領하엿다 土民은 佇立하야 伊太利軍에게敬禮하엿다 暴民은 飛散하야 市內外는 모도 靜穩에復되고 燒殘된 家家에는 平常과가티 點燈되엿다

『玆에、에國은完全히 伊領有에歸햇다』

歡呼의暴風에陶醉된市民에게 뭇소리니首相戰勝演說

【羅馬五日發電通】伊太利軍의아디스아베바入城으로 에디오피아國制覇의 宿願을 達成하야 意氣衝天한 뭇솔리니 伊首相은五日午後七時四十五分부터 約二十分間베네치아宮발코니에서 戰勝祝賀에 陶醉된 市民을向하야左와如한 歷史的演說을하엿다

東阿伊軍總司令바드리오將軍으로부터 今日五月五日 午後四時 軍을 率하고 아디스아베바에 入城하엿다는 戰勝의 公電을 接하엿다 [illegible] 에디오피아는 伊太利의 領有로歸하엿다 [illegible]

新內閣財政政策의動向

煙草價郵稅도 一種大衆課稅 (二七)

徐椿

우리는 첫재 課稅技術上으로보아 間接稅即、大衆課稅가 財産課稅보다 容易하고、둘재 租稅收入의 增加를 圖하는 方面으로 보아 財産課稅主義에 依한 增稅보다 大衆課稅主義에 依한 增稅가 더 效果的인것을 說明하엿다。여기서 한가지 더 생각할것은 大衆課稅 即 間接稅는 主로 國民大衆의 必需品에 課하는것이故로 極度의 不景氣下에서도 新稅의 稅收入은 減少치 아니한다는 特點을 가젓다는 一事다。例하면 昭和四年七月부터 同六年末에 至하는 井上財政期로 말하면 極度의 不景氣時代이엿는데 이不景氣時代에 잇서서 (一)所得稅、營業收益稅가튼 直接稅(財産課稅)의 國庫收入은 顯著히 減少햇는데도 不拘하고 酒稅、織物消費稅、砂糖消費稅等 間接稅의 國庫收入은 別로 減少하지 안엇슴을 본다。이것은 무엇을 示唆하는것이냐? 하면 財産課稅가운데는 景氣의 好不好에 依하야 伸縮性이 激甚한者가 잇스나 大衆課稅는 그것이 거의 다 國民大衆의 生活必需品에 課하는것이기때문에 景氣의 好不好에 依한 伸縮性이 업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인 同時에 極度의 不景氣下에서도 國民大衆은 一旦 賦課된 租稅負擔은 조금도 輕減되지 못한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同一한 事實을 가지고 各自의 立場의 相違에 따라서 正反對의 두가지 主義主張이 並立하는 適例를 發見한다。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如左하다。

大藏省當局을 爲始하야 一國財政을 마터 料理하는 사람들로말하면 (一)課稅技術上으로 보아 밧기가 쉽고、(二)國庫收入增加의 目的을 容易히 達할수 가 잇고、(三)아모리한 不景氣가 襲來할지라도 稅收入이 줄지 아니하는 稅目은 間接稅밧게 업스니까、增稅及新稅는 大衆課稅主義로 갈수밧게 업다는것이오、他方、軍部를 爲始하야 國民生活安定을 標準으로하야 立論하는 사람들로 말하면 大衆課稅는 그것이 一旦 增率又는 新設이 되는 날이면 如何한 不景氣下에서도 輕減될 道理가 업는것이니까 此를 될수잇는대로 避할수밧게 업다는 主張을 세우게 되는것이다。

그러고 所謂 大衆課稅라는 問題下에서 멧가지 더 생각할것은 稅라는 名稱은 붓지 안햇스나 事實에 잇서서는 大衆이 負擔하는 稅、即、大衆課稅가 잇다는 一事다。

그 第一은 政府專賣品의 價格이다。例하면 煙草價格을 通하야 國民大衆은 高率의 納稅를 하고 잇는 것이다。故로 只今、問題가 되여 잇는 煙草價格의 引上은 이것이 實現되는 날이면 이것은 大衆의 負擔을 그만치 加重하는 것으로서 一種의 大衆課稅다。

다음 郵便切手값을 一名 郵稅라고 하거니와 이郵稅도 亦是大衆課稅의 一種이다。이것은 純히 國民大衆의 各自가 사서 쓰는 郵便料金만을 論據로하야 그러라는 말이 아니다。各銀行、商店、工場의 모든곳에서 씨우는 通信料는 全部、商品의 價格又는 貸出金利를 通하야 國民大衆이 結局은 負擔하게 되는것이라는 點으로 보아 이것이 大衆課稅라는 말이다。故로 郵便料金의 引上도 亦是大衆課稅主義의 發露로 볼것이다。

다음 鐵道運賃의 一般的引上問題라는것이 잇는데 此亦大衆課稅와 密接한 關係가잇다。何故오하면 此로 因하야 旅客運賃及貨物運賃이 오르면 그 亦大衆의 負擔으로 될것이기때문이다。

이러케 보아오면 所謂大衆課稅라는것은 그範圍가 甚히 廣大한것으로서 四面八方에 거미줄(蜘蛛網)처럼 드리 撒布되여잇는것이故로 비록 最大限度의 減稅를 가자고 財産課稅主義를 쓴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大衆의 負擔은 輕減되지 못할 念慮가 잇슴을 알것이다。(完)

人事·集會

▲宇垣總督은 平北地方視察次約一週間豫定으로 矢野秘書官을 帶同하고 六日午後三時半 京城驛을出發하야 定州地方의 農村視察 雲山金鑛 朔州地方을 視察하고 多獅島及新義州를視察한後 歸任할터이라한다

八面鋒

五日로써 伊軍이 에國首都에 完全히入城。

◇

『에디오피아는 完全히 伊太利領有에 歸하엿다』고 伊首相이演說。

◇

傀儡政府쯤으로 어룽어룽하리라고보든 蘇聯이 깜작놀랏다는 것도可觀。

◇

實力、實力、實力以外에는 아모것도업다는活標本。

◇

張學良이 『失地恢復과 張家復活을爲하야』 西安에 獨立計畫을한다는 奉天電報가 報道。

◇

事實이잇다면 所聞이 먼저날理 업고 所聞이 먼저낫것을보면 所聞을爲한 所聞이 아닌는지。

◇

金一錢에 十三圓十二錢五厘! 정말黃金狂時代의 出現인가。

印刷物經濟化! 太陽卓上 石版印刷器 이것이다! 마음대로印刷된다 太陽商會 大阪市日本橋四丁目

蓄音器 各社レコード 特約店募集 附屬用品一式 大阪市東區清水谷西之町 NGW小林蓄音器製作所

特許 電球內に花が咲く 花電球 大發明 製作所 尼崎市昭和南通三丁目

カタクロス進呈 古村製作所 大阪市南區松屋町

てんかん

針金直線自動切斷機 新案特許 轟亀太郎商店 大阪市天王寺區東平野町一丁目

圍碁 印刷機・斷裁機 西村活美堂 大阪市浪速區

ワイシャツ

夏物品揃 和田シヤツ製造所 大阪市東區

カラー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

五万分一地圖販賣 東亞商會

5月傑作 OKEH 오케－레코드 新譜同時流行歌 흐르는身勢 님그리는새 金蓮月

비듬에 「ワカミツ」 拔毛에 「ワカミツ」 薄毛에 「ワカミツ」 대머리에 「ワカミツ」 無毛에 「ワカミツ」

偉大한二大工業依賴 돈버는리 조흔家庭工業 第一 第二 株式會社

씨가아通 三番地 漫謠曲 新民謠 섬시악씨 京城本町一丁目 뉴-코리아레코드

金白銀金 特別高價買 吉武金銀店 釜山富平町二丁目

京城 金銀地金分析賣買 高價買 杉山商會 京城明治町

雇用基準을規定한 運轉手待遇改善策

—退職手當、公休、最低賃金條項等挿入—

五月부터實施·道保安課發表

오월일일부터 경기도에서는 종래 널리우는 자동차(택시)의 운전수를 종래에는 경성부내에서는 팔을 십전균일로 받는 제도를 고쳐서 계량기(메터ー)제도로 실시하게되야 일오리(두키로)까지는 오십전 그다음부터 십리마다 오십전식 밧게하기로 되엿스므로 자동차운전수는 종래에는 「도중수입」이라는 가위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잇든 부수입이 잇섯든것이 아주 업서지게 되엿다 그래서 그들운전수는 더욱이요 지음 불경기에 자동차의 과용자가 만하서 일이 밧분대신에 자기들의 수입은 전자보다 훨신 주리지게되엿스므로 자못불만을 품고 요지음운전수들사이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려하는형세이엿섯는데 경기도경찰부 보안과(保安課)에서는 그들의 여러가지 사정을 조사하야 륙일에 택시운전수대우개선안(運轉手待遇改善案)을 발표하엿다

그내용의 세밀한 점은 다음과 가튼데 공휴(公休)와 최저임금표준과 퇴직수당(退職手當)등조항을 어데서 조선서는 처음보게되는안(案)이다 이것을 실시함에 따라서 운전수들의 불평은 얼마쯤 주러질듯하다한다

待遇案發表後 道保安課長 談

종래의 택시운전수의 로동조건은 각경영자를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잇고 한동 표준이 업섯스나, 이번 「택시」를 「메ー터」제도로 개정한 기회에 종사하는 운전수의 대우에 대하야 일정한 기준을 정하야 이번이안(案)대로 이달 일일부터 실시하기로한것입니다 이대로하게되면 운전수의 고정수입이 안정되는 동시에 휴양 기타 여러가지로 종전에 비하야 상당히 큰 혜택을 입게됩니다 「메ー타」제도실시에 따라서 영업자편에서도 큰영향을 밧게되는것이나 로동자와자본가가 협조(協調)하는 아름다운정신으로 어고를 희생한것이옵 장래에 영업자나 운전수가 모다 소의공존공영(共存共榮)하야 이자동차영업의 건전한 발달을 하도록 간절히 바라

內容

公休는月五回以上 損害負擔은雇主

退職手當은三年以上勤續者에게

一、예비원(豫備員)은 자동차네대에 대하야 한명식을 두고 그다음으로 세대를 더하게될때마다 한명이상을 둘것

二、공휴(公休)는 한달에 오일이상으로 돌려가면서 줄일 공휴일에 세시간이상근무한때는 그이튿날의 출근시간을유예할것

三、운전수복장은 「쏘메리」로하고 자동차경영자가 빌려주거나 또는 그반액을 부담할것

다마일년마다 여름옷과 겨울옷 한벌식과 모자한개로 정함

四、임금은 초급은 일급일원이상으로하고 다음가튼 표준으로 더줄것

즉 수입수당(收入手當)은 수입금액이 삼백원을 넘는금액에 사백원까지는 오분 오백원까지는 팔분 오백원을 넘는때는 일할을 운전수에 줄일

정근상(精勤賞)은 한달 개근자(皆勤者)는 오원의 정근상을 줄일

사고업는상은 한달동안 사고업는 운전수에 대하야 오원을 줄것

아메쓴 제도대로 시행하지안는 곳에서는 초급은 사십오원이상으로 줄것

승급은 륙개월마다 최저 삼전으로부터 최고 이십전까지 성적을 고사(考査)하야 승급시킬것

공휴일은 그날의 임금을줄것

시간하게 근무하거나 공휴일에 세시간이상 근무한 때는 다시 일급의 [illegible]에 상당한 임금을 더줄것

연말상여(年末賞與)는 매년십이월말에 줄것

다만 근무성적이 우량한사람은 특별상여를줄것

五、퇴직수당(退職手當)은 삼년이상 한경영자의 자동차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경우에 다음과가튼비례로줄것 (다만징계면직(懲戒免職)에처할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의를밧아서 결정할것)

1、삼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일급 일개월분의 이십할이상

2、오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일급 일개월분의 삼십할이상

3、칠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일급 일개월분의 사십할이상

4、십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illegible]

六、손해부담(損害負擔)은 교통사고 기타업무로 종업원이 제삼자에게 손해를 준때는 경영자의 책임으로 제삼자에 대하야 손해를 무러줄것 (다만 종업원이 중대한 과실이 잇는때는 그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상시킬것)

七、운전수의 안해가 아이를나앗슬때에는 자동차경영자가 선사하고 다른 제약이 생길때에는 경영자가 상당한구조의 방법을 강구할것

고의(故意)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일로 운전수가사고를 냇슬때에는 그치료비는 경영자가 부담할것

"綜合的朝鮮文化"의 研究所設置計畫

中樞院改革等으로經費捻出

광전(廣田)내각이 표방하는 행정긔구(機構)의 개혁문제가 구체화되면 조선내의 행정긔구에도 다소간 개혁을 보게될것이라는데 이긔회에 총독부내에서는 조선문화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할 일대연구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만하 이미 이에관한 구체적 계획안을 만드러 정무총감의 손에 가지고 잇다한다

즉 현재 중추원(中樞院)의 일부 조선사편수회 리왕직(李王職)의 일부 총독부학무국사무의 일부등을 분리하야 관점시켜 조선문화 연구소를 창설하야 조선역사 문화 미술 음악 기타 조선고래로부터 근대에이르기까지의 정신문화전체의 각부문적전문연구와 또 종합적연구를하는 긔관으로하자는것이다

그런데 이긔관을신설한다하야도 전긔각긔관의관제개정과 사무분담규정을개정하야 재긔관을 설립하면될것이므로 예산은전긔 각긔관의예산을 일부분할수(割)하는외에는 중추원의계획을 [illegible] 경비는별로 들지안흘것이므로 예산한계는 그다지큰문제가아니라 한다

현재중추원은 년이십만원 조선사편수회는 년십이만원정도의경비를쓰고잇다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에불과하므로 이것을근본적으로계획하면 상당한경비의절약을할수잇서 문화연구소의 신설비의 일부분으로 충당할수잇다 한다 따라서 이계획이구체화되면 방금설립중인 종합대학과 아울러 조선안의문화연구긔관으로는 근래보기드문 [illegible] 라한다

今日이立夏

륙일은 음력으로 윤삼월십륙일로서 립하(立夏)절이다 립하이날오전한시오십칠분부터 동군(東君)은 물러가고 여름철이 닥처오는터로 바야흐로 신록(新綠)이 무르녹어오는때어다 농가에서는 모시자리 각구기와 누에치기를 시작하야 몹시밧버지며 밧혜는 보리가 패기시작하야춘궁에 조들리는 빈농의 마음을 저윽히 안심식히게된다

金價暴騰!暴騰!

從來十一圓臺가十三圓臺로

◇日本銀行서買入價改正◇

密輸者에大打擊

금값이 또올랏다 정입본령으로 내의 금값을 좌우하는 일본은행에서 사들이는 갑시 종래한몬메에 십일원오십팔전이든것이 륙일부터 십삼원십이전오리로, 일일와일원오십사전오리로 올르며 조선내에서도 조선은행에서사들이는 갑도일본은행에준하여 올라다 그래서 동경까지의 송료며보험료를 제하고 십삼원으로 되엿다

◇

본래금은 귀한것이라 매년부터 보통중의보통으로 되여잇섯거니와 근년에와서 경제계의변동은 법정가격(法定價格)한돈매오원의 공정이상으로 매매될만큼 뛰여올라 금은더귀하게되며 가는곳마다 광산경긔가 의외로굉장한것이엇다 광산경긔가 놉하지면서 광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돈은 위선 로리점으로 기타각방면에 미처서 수편테의 다소회복도경긔는 여러가지 조건이잇것지만 그중에는 광산경긔의 영향이 도한것다

◇

그런데 이번에 금갑시 올른데따라 문제가생기는것은 밀수출이다 종래시중의금갑시 일본은행에서 사들이는갑보다 놉흔것은 대부분이 밀수출 때문이라고보지안흘수업섯다 즉 조선에서 만주로밀수출되는금은 조선내의총산액 오천만원에대하야 약이상천만원은 되리라고보고잇섯다 그만큼밀수출이 왕성하기때문에 시중의금매매도 왕성하여왓든것인데 이번에 일본, 조선내의금값을 만주와국가리으로려노코보니 밀수출할여지가업시되엿다 이에따라서 밀수출도 정부의뜻대로 업서질것이고 시중의 매매는 한산하여질것은 당연하며 시중의금상인은 자연매매의 한산에따라 문을닷치지안흐면 안될곳이만흘것이다

無錢取食하고行悖

시내 하왕십리정(下往十里町)백이십칠번지 강춘길(姜春吉)(三○)은 [illegible] 동리이백사십이번지의오호 손인식(孫仁植)음식점에서 돈도업시 약주구십여잔을 먹은 것도 그렇지못하거니와 기오츳케 식도를들고 주인을 [illegible] 가 필경소관종로서로 끌러가 신세를지고잇다하며 결도의혐의가농후하다고한다。

脫獄囚被逮

지난 삼월 이십이일에 광주 [illegible]

老人妾사리三年苦節 美人幻滅의飮毒

百石거리준다는約束도물거품

物慾과情慾破綻劇

(사진은 김순희)

어엿분이라그사이 [illegible] 부호에게 돈을준다는것을 믿고 살림을 들엇다가 삼년동안이나 속아내려오다못해 죽엄으로 청산하려든 환멸(幻滅)의비극한토막=륙일오전네시경에 시내서린정(瑞麟町)일백삼십번지에 사는 김순희(金順姬)(二三)라는 녀자가 [illegible]에다가 니프라민을타서마시고 자살을 하려고 고민하고 잇는것을 집안사람들이 발견하고 [illegible] 치료를 바든결과 생명은겨우 구하리라고한다 이제 그자살하려든 원인을알아보건대 전긔순희는 삼년전에 시내한성권번(漢城券番)에서 옥희(玉姬)라는 예명으로 기생노릇을하고잇는것을 시내황금정(黃金町)사는 조만준(趙萬俊)=假名=(六○)이라는 늙은재산가가 백석거리땅과 조흔집을사주고 살림을 하자고 꾀하야 [illegible] 비에예잡히는 듯이 그와가티 살림을 하여오든중 [illegible] 도한것이라한다

失職한靑年 責妄듯고自殺企圖

벌이자리 내버리고 집에도라와다고 어버이에게 꾸지람듯고 물에 빠저죽으려는 그아들=엿새날 새벽한시쯤되여 한강(漢江)통제인도교우에서 어떤사나이가 몸을 날리여 뛰여들어가는것을 지나가든 사람이 보고 말리여 룡산서(龍山署)로넘겨왓다한다。 이 사나이는 시내 아현정(阿峴町)에사는 홍원조(洪元祚)의 세째아들 [illegible]으로 시내 [illegible]에 고용이되어 이래실어오든중 월급이 적은것을 평소부터 불만하게 생각해오다가 마츰내 그만두고 자기집에 도라왓는바 그의아버지되는 홍원조는 「아모리 박한 월급자리라도 참고다녀야 뒤스길이 잇는 법이라」는 훈계를 듯고서 그것을 분허게 생각한끗테 그가터 자살을 하려한것이라한다

結婚詐欺漢

고양군(高陽郡)숭인면(崇仁面)에 주소가 일정치못한 사기결도전과 오범 정선만(鄭先萬)(三一)는 도다시 사긔혐의로 본정서(本町署)에 인치취조중이라한다 그는 이월이십오일 대판정(大阪町)일백륙번지 함흥옥(咸興屋)에 고용사리하고잇는 김옥선(金玉仙)(二二)이를 속여 결혼한다고하야 그가 가지고잇든 금부치등 약삼십원가량을 사취하야 전당포에 너은것을 비롯하야 종로(鍾路)오정목천일양주소에서 오십원을 사취한이외에 이삼건 합 이상네원이 나오면 편취하야 전부유흥에 소비하여버리엿다한다

시골處女誘拐

시골처녀들이 서울오다가 [illegible] 마수에 걸리는수가만타 ─경상 [illegible] 주군 함창면 [illegible] 사는 [illegible]는 지난달 십사일에 그의 세째딸 [illegible]를 데리고 시내 화원정(花園町)에 잇는그의 세째아들 준긔(俊基)집으로 올라오는도중 [illegible]에서 어떤 리관에 들엇다가 오십여세되는 [illegible] 한명이 나타나서 여러가지친절한 말을 해주며 딸을 데리고 갓데온데가 업서젓는데 딸을일흔 시골녀자가곳 어떠케할수업서 그대로 서울로올라와서 륙일그의아들이 수사원을지내 각경찰서에 제출해왓다

鑛業社員 印紙橫領逃走

륙일아츰 시내동대문서에서는 다음과가튼 수색원회장이 들어왓다 ─ 원적을 강원도원주군신림면신림리(江原道原州郡神林面神林里)에두고 시내종로일정목 [illegible]번지 손준옥(孫俊玉)집에 큐숙하면서 시내공평정(公平町) [illegible]번지 강병호(姜秉浩)이가경영하는 광업사(鑛業社)에 사무원으로잇든 리강년(李康年)은 지난사월하순경 광업권설정에대한 서류 네건을가지고 충북도광산과(忠北道鑛產課)에가서 한건만제출하고 남어지 세건에 대하야는 광산과의 가짜영수증을만들어 전긔광업사로 보내고는 남어지인지삼백원을 휘령도주하여버렷다는데 동대문서관내에 잠복한듯하다한다 그리고동서에서는 광산경긔에 날뛰는이러한 횡령사기배를 철저히소탕할방침이라고하며 일반의 주의를 바란다고한다

"보ー트"黨에非常警鐘!

正服正帽쓰고게집노리못한다

한강(漢江)에서 "보ー트"놀이에 대하야 시내룡산서(龍山署)에서는 비상경종을 울리기로되엿다 ─ 요사이 한강에서 보ー트노리를 하는사람들중의 대부분이 남녀학생들로서 더구나 정모정복을한 각중등, 전문학교생도들이 학생, 혹은신사지어 기생들까지데리고가서 배를띄어노코 웃음소리와 노래는물론, 각가지로 풍기를 문란시키는 현상이어서 풍기상 대단히 자미롭지못하다하야 압흐로는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취체하라는데, 형편에 따라서는 그가다니는 학교로 사실을알려 여러가지로 [illegible] 방침이라한다

男便보기실혀 自家에放火

【平壤】평양부외추을미면신리(秋乙美面新里)리삼재(李三載)의 안해 김보친(金寶親)은 이일오전 두시경 자긔집에 방화하엿스나 실이 발각되여 평양서에 체포되엿다 방화의원인은 김보친은 남편 리삼재가 보기실혀서 사오차나 본가에도망하엿다가 잡혀온후 가족들 화해와 구박이심하므로 그고통을 참기위하여 자긔집에방화하엿다고한다

三神炭坑 現場悽慘

遺族들放聲痛哭

【平壤】기보=최근 계속하여일어나는 광산사고를 방지코저 평남도 보안과에서는 소(蘇)보안과장이 선두에서서 큰동평원하고잇는 이때에 강서장산탄광(江西長山炭坑)에서 락차가 전복추락되어 십일명의 사상자를 내인터이어서 일반에게 충동을주고 잇는 오일 오전렬시경 대동군림원면(大同郡林原面)에 소재한 역시 조선무연탄 주식회사 소유인 삼신동탄항(三神洞炭坑)지하 이쳔척이나 되는 항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여 작업중이든광부들은 작업우왕래중 피난하기못하여 피난중 천정(天井)이 문허저 피난할곳을 일허슬때에 또다시「다이나마이트」가 폭발되어 리희식(李喜植)외 다섯명의 광부는 생매(生埋)되여 열한시간이나 경과한 오전열한시가 조금넘어서 꺼내게되엿는데 여섯명을 전부파내엿다가 부근공지 송림(松林)사이에 눕혀노코 검시를맛고 여섯명의 유족들의 통곡으로 처참한 정경을 보엿고 일시에 여섯명광부의 생명을빼아슨 [illegible] 항부부락은 우수의빗치 가득이차서 [illegible] 기막히는 현장을 보혀잇섯다

人生의敗北者 一家族鏖殺企圖

●二日淸津에生活難慘劇

【淸津】놓은 예지를 차저 만들의갱생을 자랑하는 반면에 이 봉들이지고 사랑하는처자와 귀여운 자녀를한칼에죽이고 자긔도 죽으려는무서운 사건이 지난이일에 청진부파정(巴町)삼번지에서 발생하얏다

말만드러도 몸서리가날 전긔사건을 조사한바에의하면 김대일(金大一)(三二)이란 수년전부터 술에중독이되야몸으로 병까지 걸려서 하로하로벌어서 살든생활은 그만 끈어지고말게되자 그의처김정숙이가 매일공장파라 겨우 일가족제인이 그날그날의 생활을부지하야왓스나 도저히 어찰상을보고잇슬수업는 전긔김대일은 차라리일가족을죽이고 자긔도죽는편이올타는 그른생각으로 이일오후십일시경에 [illegible] 잠든 전긔김정숙을 단도로복부를찔럿스나 놀나깬김정숙은 비명의소리를지르고 박그로뛰여나와 이웃에알게하야 겨우어린아이에게는 변열이 업섯스나 전긔김정숙은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合意"無效

貞操蹂躪慰藉料 三百圓支拂判決

일심에서 화간이라하야 남자는 녀자에게 위자료를 줄필요가업다고 판결되엿든사건이 이심에서 뒤집혀서 비록 화간일지라도 남자는 녀자에게 정조를 유린한 대상으로 위자료를주어야한다는 판결이내려졋다 충북음성군소이면후미리(陰城郡蘇伊面厚美里) 민인식(閔仁植)(二三)은 소화팔년시월에 그의 아버지를 여이고 그가 열두살때에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槐山郡佛頂面三芳里) 윤우영(尹宇榮)의 장남 정섭(丁燮)과 혼인예약을하고 어려 맛며누리로 사려오든중 작년 오월초순。그 동리사는 현병옥(玄炳玉)이가 민인식의 어엿분 얼굴에 탐이나서 [illegible] 간것을 피여 자긔집으로 데리고가서 강제로 그의 정조를 빼앗고마럿는데 이 사실이 탄로되야 민인식은 시집사리도 못하고 그집에서 쫏겨나고말엇다。

어리하야 민인식은 현병옥을 경찰서에 강간죄로 고소하는동시에 공주(公州)지방법원 청주(淸州)지청민사부에 위자료천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긔하엿는데 청주지청민사부에서는 경찰에서 조사한결과 민인식은 강간한것이 아니라 화간이라는것이 판명되엇고 또 피고인 현병옥은 위자료를 지불할만한 재산이 업다하야 원고인 민인식에게 패소판결을 내리엇다。민인식은 이 일심판결에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민사부에 공소하여왓든바 륙일 소송(小松)재판장은 비록 화간이라할지라도 피고는 정조만 유린하고 돌보지안하야 원고가바든 고통과 손해가만흐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삼백원을 주라는 판결을 내리어서 일심판결은 송두리채 뒤집혀엿다.

戶別稅賦課等級 勤勞標準에異議

官吏의局課長等特別取扱이可

京城府會서暴力騷動

경성부에서는 작금에 부회를 소집하고 이번에 새로도세(道稅)로된 호별세(戶別稅)에대한부세(府稅)의 호별부과세의등급을 사정키위하야 협의비밀회로 위원회를열고 잇는데 그등급사정에대하야 세제의근로소득상중에 한점의모순을 발견하고 [illegible] 의원들중에 [illegible] 부회의원간에 매질까지날뻔이잇다 그리유는 도세제에의하면 관리는 전부근로소득자(勤勞所得者)로 간주케되여잇서 소득의이할공제하게되엿는데 이것은 다른소득이업시 박봉으로 생활해가는인민의부담을경감키위한것인데 이것을 일개판임관이나 국장과장의 칙임관까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것은 불응하다는것이다

그래서 경성부회로서는 도의세제(稅制)에 규정한대로 심의할수밧게업스니 금번에는그대로심의하되 총독부에건의서를제출하야 수입이만흔고관들에게는 일반근로소득자로취급치안토록할 어떤규정을세우도록하자는의견이마첫다 이에거이건의원이 건의서를제출하자고 론의가불등한 지난삼일 이의견에 대하야 견해를달리하는 부의장대야(大野)씨와 파다강(坂多江)의원간에 언론충돌 흥분한 파다강의원이 전긔대야씨의멱살을따려어 큰소동을이르키기까지하엿다한다 문제는 이번은 도세제대로 심의하고 도건의서제출은 다시연구키로하엿다한다

汽車、트럭衝突

二名即死의慘事

오일 오후여섯시오십칠분경에 봉천행(奉天行) 급행렬차 [illegible]가 경의선사리원(京義線沙里院)과 계동(桂東)간에 잇는 [illegible]가도(街道) 교차지점을 통과할지음에 사리원방면으로부터 질주하여오든 평남(平南)일천사백팔십륙호(平南順川郡順川面倉里金鐘貫所有)「트럭」이 긔관차와 충돌되엿는데 동트럭은 대파하엿스며 운전수 정규찬(鄭奎燦)(二三)과 조수 박금선(朴金善)(二○)양명은 즉사하고 동승하엿든 화주(貨主)박상현(朴相鉉)은 중상을입엇다 한다。그리고 긔관차는 경미한 손상을 입엇(?)다 한다。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 普生藥房

天氣予報

槪況 高氣壓은 中國揚子江流域과 本州東方의 海洋上에 잇고 低氣壓은 九州西方의 [illegible] 黃海北部에 잇서 [illegible]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illegible]

昨日	最高	二四度四
同	最低	一一度五
今朝	最低	一一度
今日	正午	二○度

運動競技

全開城記錄會 來十六日에擧行

【開城】高麗體育會主催의 第一回 全開城陸上競技記錄大會는 오는十六日午後一時부터開城公設運動場에서 盛大히擧行하리라는데 申込期日과 出場種目等要項은 다음과갓다。

▲申込期日=五月十五日(午後五時)

▲申込所=高麗體育會內

▲競技種目(一人三種目限) 百米 二百米 四百米 八百米 千五百米 五千米 一萬米 走高跳 走幅跳 三段跳 棒高跳 投槍 投圓盤 投砲丸 八百米繼走

鍊士號獲得한 石君祝賀會

九日太西館에서

今般에柔道五段에 昇段되여鍊士號까지 獲得하고도라온 立命館大學今春卒業生石鎭慶君을爲하야 母校인 培材高普에서는 君이將來斯界를爲하야 貢獻할바 크다고생각하야 來九日午後六時半에 鍾路太西館에서 祝賀會를열터인데 會費는一圓(當日持參)이라는바 同窓生은勿論 以外關係者도 多數來參하여주기를바란다고한다

朝鮮柔道有段者會 部署及任員改選

朝鮮柔道有段者會第一回 定期總會는 去卅六日午後二時半부터 鍾路基督靑年會에서 열고 다음과가티 部署及任員을 改選하엿다

▲會長 石鎭慶▲庶務部責任者 姜興烈▲書記 李定秉▲會計 李元榮、韓炳喆▲事業部責任者 李吉昊、李[illegible]、李承茂 劉承壽、劉洙仁

異域에서빗나는 朝鮮陸上兒의活躍

【靑島】中國靑島體育協會主催와 靑島新報社後援의 第二十二回 [illegible]陸上競技大會는 四月二十六日午前九時부터 市民「그라운드」에서開催하엿는데 山東各地에서 參加한選手는 四百五十名에 達한 空前의大盛況을이룬가온데 우리朝鮮同胞로서 [illegible]選手李泰俊君은 力戰奮鬪하야 八百米에 二分十五秒四와 五千米에 十七分四秒六으로 同大會의新記錄을作成하야 「스포ー츠」朝鮮의氣焰을發揮하엿다

떼杯歐洲조 中國全敗

떼杯庭球歐洲조第一回戰의 佛國對中華民國戰은二、三兩日間 巴里에서擧行한바 다음과가튼 成績으로 佛國이 [illegible] 모다全勝하엿다

보음보양 絶倫精力增進藥 가이자ー

▼다음가트신 분은 가이자ー를 쓰시오

가이자ー의효능 빈혈증(貧血症)신경쇠약(神經衰弱) 로쇠(老衰) 근기상실(根氣喪失) 영양부족(榮養不足) 성적신경쇠약(性的神經衰弱)

보혈강장제(補血强壯劑)약은환약이오 동서양정제약、약갑십원、오원、 증세가심하면십원짜리를쓰시오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지방송료선금십오전대금인환삼십오전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이 제일이오

▼다음가튼 증세에는 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의효능 남녀만급성림질(男女慢急性淋疾)대하증(淋毒菌起因帶下症)요도염(尿道炎)고환염(睾丸炎)(산증)방광염(膀胱炎)섭호선염(攝護腺炎)녀자오좀소태、(女子消渴)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라팔관염(喇叭管炎)란소염(卵巢炎)림독성제증(其他淋毒性諸症)

약갑 특제구원、만성용오원、급성용과부인용오원이오 삼원이나다 위장을상하지아니합니다 일주일분이오 약은 경성서대문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지방송료는 선금이면십오전대금인환이면삼십오전이오

매독엔 푸로다ー가 제일이오

이런분은 쓰시오 남녀의 국부가 헐고가려운데 눈이희미하고팔다리가쑤시고 목이쟁기고 머리가 빠지며 여긔저긔종기가나고 코가헐고 멍울이슨데는 푸로다ー를쓰시오

푸로다ー의효능 매독(梅毒)、창독(瘡毒)、태독(胎毒)、선천매독(先天梅毒)、감독(疳毒)、후천매독(後天梅毒)、[illegible]

약은 [illegible] 약갑 칠원、오원、삼원 오래되고중한분은보통병과다르니칠원짜리를쓰시오 약은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당일로 비밀히 보내드립니다 지방송료 선금이면 십오전 대금인환이면 삼십오전이오

[illegible] 요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슴니다

京城西大門町 [illegible]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illegible]

時局問題特輯

戒嚴令下의議會
庶政一新、議會肅淸의兩大課題
馬場財政檢討로 一波瀾도 豫想

木公生

第六十九特別議會는 一日로서 東京에 召集되야 四日開院式、六日國務大臣演說等의 順序를밟아 今七日부터는 例에 依하야 實問戰이 展開될모양이다。이번議會는 單純한總選擧後의特別議會가 아니오 二、二六事件後의庶政一新과 議會肅淸을 目標로한 그야말로 特別한意味의議會이다。더욱이 東京에는 尙今戒嚴令이 施行되고 잇는터임으로 今期議會의 一動一靜은 非常時日本의 非常한注目을 모으고잇는것만은 不可避의일일것이다。

◇

『非常時』라는三字가 日本에서 濫用되기는 實로 五、一五事件以來의일이다。그後九、一八事件을 契機로 極東의 事態變換、國際聯盟의脫退、華府條約의 廢棄通告、倫敦海軍會議의 脫退等等은 오즉 이非常時를 深化하는 行進曲에 不過한것이엇다。그러나 眞正한 非常時는 果然 오고야 말앗다 그것은 即 二、二六事件의 突發이니 二、二六事件은 어떠한 意味의 非常時를 가저왓는가、

이때까지의 非常時는 主로 對外的 意味로 解釋되얏다。다시말하면 太平洋을 中心한 軍備關係의 虛實이 그論題의 重點을 차지하엿고 英米佛等白人을相對로한 對外關係의 硬軟이 그興奮의 源流를 짓고 잇섯다。그러나 今次의 二、二六事件은 『눈을 對內로 돌리라』하는 軍號를 놉히부르지젓다。쉽게말하면 軍備에 잇서서도 物的軍備 即 모든 科學을 應用한 兵器가 아모리 훌륭하다할지라도、이를 操縱使用할 人的軍備 即兵員이 充實치아니하면 안될것은 明若觀火의 事實이어든、現在의 政治는 兵員의生産地인農漁山村의疲弊를 모른체하니、이래서는眞正한國防은바랄수업다。이바게모든機構에잇서서 國民의 生活을 安定식히지 아니하면 陸軍의 師團을 增設하여도 所用이업고海軍의 艦船을 增建하여도 無意味하다는것이다。그리하야 非常時의意識는『外에서內로』方向을轉換하고 말앗다。

◇

이러한情勢下에 廣田內閣은組閣에着手한지十日만에 軍部의諒解를 겨우어더 二大政黨인民政政友는勿論 貴族院에서까지閣僚를어더가지고 形式的이나마擧國一致의 擧委로出現하엿다。그리하야 廣田內閣의 第一目標는 國內人心의 安定을爲하야 庶政一新하라는데 잇다고 聲明하얏다。四月院內閣議의 決定에 依하야이미 貴衆兩院에 提出한法案이 米穀自治管理法案外에 三十一件의 多數에 達하엿다하니 이와가티 多數한 法案이 全部無事히 通過될 與否는 斷言키 어렵거니와 이한가지事實만보더라도 政府가 얼마나 現狀打破에汲汲한것을짐작할수잇다할것이다。

◇

一方 議會는어떠한가。五、一五事件以來 政黨內閣의消滅、議會機能의減縮은 世所共知의事實이어니와、二、二六事件은 朝野와官民을不拘하고 手術을要할部分은全部手術을하지아니하면 안된다는 無言의警告를發하얏다 이에따라서 政黨도政黨으로서一層의反省을要하게되얏고 議員도議員으로서 行動의愼重을要하게되얏다。더욱이 衆議院構成의大部分인 民政、政友、昭和의 三派가 政府與黨의關係로 院內의行動이 前과가티活潑하지못할것은 豫想하기어렵지안커니와 議會肅淸이라는旗幟下에 議員의行動이 制裁되는今日、特殊한事情이업는限 特別議會는 無事通過할것이 無疑하다。그러므로 議會는 無事通過될것이라도、그結果에잇서서 얼마나 庶政을一新하며 議會를肅淸식히라는것이니 하는것이問題라할것이오 이것은 다只 議會의 行動에 달렷다할것이다。

◇

그러나、여기에 한가지 注意할 點이잇스니、그것은 곳 軍事豫算보다도、外交問題보다도、財政問題이다。馬場藏相은就任劈頭에 高橋式健全財政政策의 破棄를聲明하는同時에 歲入計出主義에서 歲出計入主義로轉換할것을表示하엿다。그準備工作으로는 먼저低金利의 一般化를爲하야 日本銀行의 金利引下를 斷行하야 日本金利史上初有의 手形割引利息 九厘의出現을보게하엿고 뒤이어 五分利公債의 低利借換을 斷行하얏슬뿐아니라 大規模의 稅制整理案을가지고잇는모양이다。今期議會에서 藏相이 어느程度까지 政策을 具體的으로 表明할는지는모르나、무엇보다도 積極的인 財政과 稅制에 對하야는 아모리 半身不隨의 議會라할지라도 唯從唯諾의 態度만을 가지리라고 미들수업스니、이야말로 今期議會中 가장 主要한 焦點이되지아니할가 豫測된다。

黑人帝國의最後
咀呪할科學의勝利
國際正義의墮落
에디오피아의滅亡과今後形勢의展望

金翰容

◇

强敵의 侵入侵略으로부터 祖國을 守護하고 社稷의 危機를 救濟하기爲하야 奮然 伊太利에 抗戰을 宣言하고 全國軍을 總動員하야 南으로 北으로 侵入하는 敵軍과 干戈를 交한지 半歲餘、祖國의 運命을 雙肩에메고 挺身奮戰、必死의 努力을다한것도 水泡로 도라가고、勇敢無比를 誇示하던 에디오피아將兵도、奇襲으로써 가는곳마다 伊太利軍을 괴롭게한 有名한 게릴라戰術도 近代科學兵器아페는 手足도 꼼작할수업서 마츰내 首都아디스아베바陷落도 目睫間에 迫到되는 同時에 하일레·셀라시에一世도 하일업시 首都防衛를斷念하시고 緊急閣議를 召集하야 政府를 아디스아베바西方山岳地帶로 移轉하는同時에 皇帝께서는 首都를 떠나시어 外로 避難蒙塵하시기로 決定하야 再昨二日夜 特別列車로 危機一髮의 首都를 뒤에두고 지브티로 向하시게되엇다。이리하야 三千餘年동안 東阿一角에서 獨立을 자랑하는 現在 世界唯一의 黑人帝國도 이제는 파씨스트伊太利軍의 鐵蹄알에 蹂躪되어 崩壞할수밧게업는 運命에 到達하고 말엇다。一年有餘를두고 世界의 注目을 集中하고、世界의 同情을 一身에모은 에디오피아도 이제는 風前燈火의 悲慘한 運命을 그最後를 悲憤한눈물로써 吊喪할뿐이 아닌가?

그러면 에디오피아는 마츰내 滅亡하고 그國名과 國土는 永遠히 이地球上에서 存在가 消滅되고 말것인가?

◇

伊太利軍의 首都占領은 旣定事實이라고 認定하여도 틀림업슬것이다。이 글을 쓰고잇는동안에 아디스아베바는 伊軍에게 蹂躪되고잇는지도 모른다。그러므로 하일레·셀라시에一世陛下의 首都御退去와 政府의 山中移轉으로 事實上 伊에戰爭은 終局되고 또同時에 에디오피아國도 滅亡하야 終焉을 告하엿다고 볼수잇슬것이다。勿論 一面으로는 아디스아베바陷落이 곳 에디오피아의 滅亡이 아니라고하는 說도 是認할수는 잇다。即 首都가 陷落되엇다고 그나라의 全版圖가 占領된것이 아니며、또 今後에도 山岳地帶를 根據로하야 奇襲으로써 出沒하야 伊軍과 戰鬪를 繼續하며 伊太利의 征服工作을 攪亂할것도 넉넉히 豫測되는바이지마는 今日까지 統率者、指導者가 잇서서 組織的으로 對抗한것도 이러한 悲慘한 結果로써 閉幕하게되엇거던 況 組織的抗戰이 不可能하게된 今後 敗殘兵의 一部의 反抗行動이 무슨 效果를 거두겟는가? 오히려 匪賊團의 盛行으로 因한 治安의 紊亂은 一般人民의 生活을 脅威하야 伊軍에게 依賴하는 心理를 助長할뿐이 아닐가하는 杞憂도 업는바 아니다。如何間 今後의 問題는 아디스아베바占領으로써 에디오피아는 完全히 滅亡하고 全版圖가 伊太利의 屬領化하고말것인가、또는 占領地帶만이 伊國에 屬할것인가、그러치안흐면 媾和休戰으로 國土의 一部를 割讓하고 에디오피아는 獨立國家로 存續할것인가、또 一部消息通의 見解와가티 에디오피아全國土로써 傀儡國을 建設하야 伊太利의 事實上의 屬領으로 할것인가하는데 잇다 할것이다。

◇

그런데 可憐하다할가 不得已하다할가 에디오피아의 今後의 運命도 지금까지와 만찬가지로 歐羅巴列國의 動向、特히英國態度如何에 달렷다고 하지안흘수업슬만큼 遺憾으로 여긴다。다시말하면 에디오피아가 伊太利와戰鬪하는 그때부터 에디오피아에 伊太利를 武力으로써 擊退할 自信과 勝算이 잇서서 抗戰을 決意한것이 아님은勿論、局外者의 어느누구도 에디오피아가 勝戰할 算을 올리라고 期待하지는 아니하엿다。그러면 에디오피아는 무엇을 바라고 伊太利에 敢히 抗拒헷슬가? 이는 勿論 一面으로는 三千餘年의 獨立國家로서의 긴歷史를 가지고 한번도 外敵에게 國土를 侵略당한일이 업스며 또 干戈를 交하야 伊軍을 擊退한 前鑑이 잇스매 國民이 피흘리지안코 國土를 내줄려고 할理는 萬無하엿슬것이다。그러나 다른一面으로는 科學文明이 普及되지아니한 에國으로서 內心으로는 伊軍의 侵入에 對抗할 自信과 勝算이 업섯슬것도 分明하다。그럼에도 不拘하고、斷然 抗戰을 決意한것은 하나는 聯盟、特히 英國의 後援을 밋고、또 하나는 自國의 天然力、即、險峻한 山岳地帶를 利用하는것과 에디오피아의 有名한 雨季를 利用하려는것이다。即 에디오피아의 作戰은 에軍得意의 天嶮에 依據하는 게릴라戰術로써 神出鬼沒하야 伊軍의 侵入을 防止하는동안에 一方 聯盟에 提訴하야 聯盟이 對伊制裁를 實施하게되면 伊軍의進擊이 遲遲不進하게될것이오、그러는동안에 山岳地帶에 雨季가오면 科學兵器를 자랑하는 伊軍도 自然力아페는 할수업서 終乃 退却하고 말것이라는 것이엇다。그러나 모도가 誤算이엇다。豫行演習과 戰爭을 想像해보라! 實로 可笑로운일이다。天嶮이나 게릴라戰術까지도 모조리 粉碎하는 機械化部隊아페 무슨 方策이 잇스랴? 에軍은 故意로 退却하야 伊軍을 奧地에 모라너코 一擧에 殲滅할 計劃이라는것이 戰略인모양이나 에軍이 退却하면 伊軍은 大規模的으로 機械化部隊를 輸送할 道路를 만들고는 다시 進擊하는 方法이니 에軍의 戰略的退却은 마츰내 絶望的退却으로化하야 그誤算은 致命的이 되어 버렷다。게다가 大部隊를 集結하고 伊軍과 이따금 戰鬪를試驗한것이 또 大失策이엇다。

◇

이에加하야 聯盟의 制裁는 徹底的이어서 效果를 내지못할뿐 아니라、聯盟諸國의 步調不一致는 伊太利를 抑壓하기커녕 聯盟의 無力을 如實히 暴露하야 도로혀 伊太利가 聯盟을 牽制하는 離反行爲格이 되고말엇다。그러나 그徹底的인 制裁實行도 英國의 强硬態度로 그래도 體面만은 保持하엿스나 今春에 獨逸의 라인進軍으로 어지러워진 歐羅巴의 情勢는 東阿一角의 黑人帝國을 도라볼 餘地조차업서 젓스며、佛國가튼나라는 獨逸牽制를爲하야 伊太利의 好意를 사고 協力을엇고저、對伊制裁에 對한 英佛의 協力態度를 버리고 斷然 伊太利에 加勢케되엇다。伊太利를 歐洲로 다시歸還케하야 對獨工作을 企圖코저 하는 佛國으로서는 當然한 일이로되 獨逸에는 오히려 好意를가지되 伊太利는 英國과 對抗코저하는 英國에 一大團體이 생긴以上 聯盟의 對伊制裁의 遂行을 바랄수 잇스랴? 石油制裁는 委員會의 記錄만 남기고 實行해보지도못하고、그러는동안 伊軍은 雨期가 來到하기前에 首都를占領할 作戰下에 依然 攻勢로 急進하야 破竹之勢로 進擊하매 모든 豫算에 誤算을 거듭한 에軍이 一敗地塗를 當할것은 말할것도 업다。그러므로 에디오피아를 滅亡케한者는 戰略의 誤算도 아니오 伊太軍도 아니오 聯盟이다。伊太利의 野心을 初부터 容認助長한者가 잇다면 佛國일것이오、伊에戰爭의 機會를 利用하야 自國의 發展을 企圖한者가 잇서서 에디오피아에 不利한 結果가 도라가게한者가 잇다면 그는 英國일것이오、맛당히 에디오피아를 擁護할 責務와 기픈 關係가 잇는 나라로서 그 責務를 게울리 한者가 잇다면 이는 英國이다。에디오피아를 滅亡케한者는 聯盟이오、또 歐羅巴의 政局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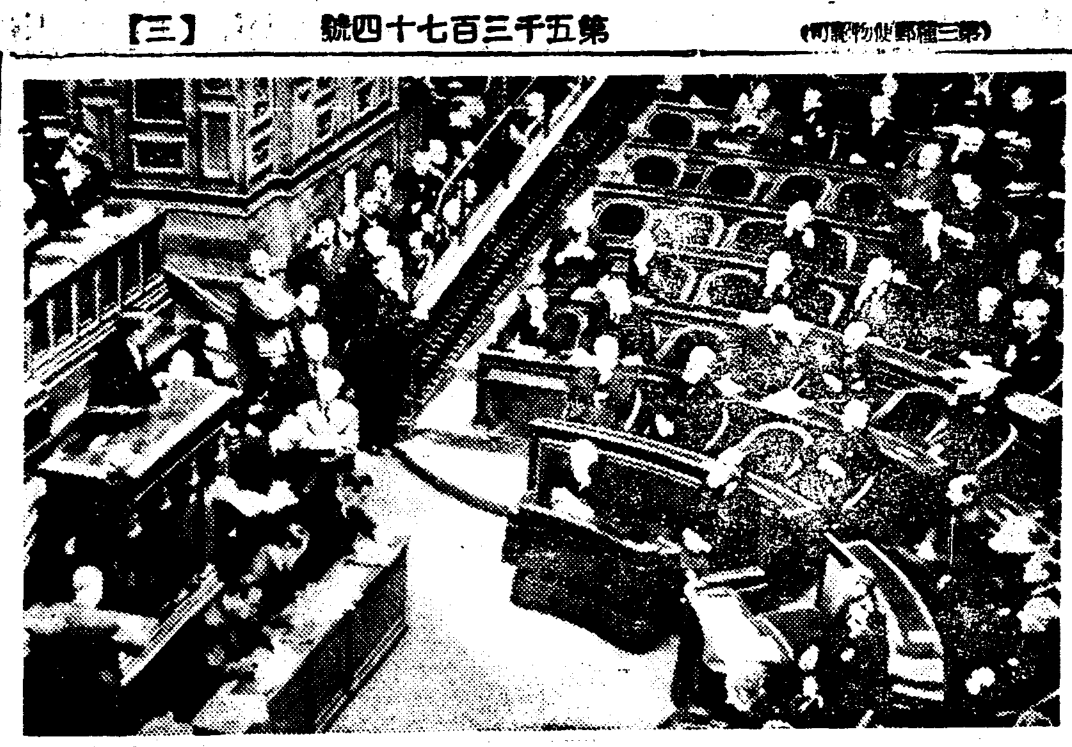
이와 마찬가지로 今後의 에디오피아의 運命을 決定할者도 聯盟 아니 英國態度如何에 잇다할것이다。勿論 英國도 에디오피아帝國의 滅亡에 同情한다는 것보담 에國內에잇는 自國의 利權、特히 靑나일의 水源인 타나湖確保를 爲하야 今後에도 伊太利에 强하게 當할것이다。그러나 伊太利軍의 占領地域은 三萬八千平方哩로써 에國全土의 三分一을 占領하엿는데 이旣成事實을 압혜두고 英國이 如何히할것인가 하는것이 問題의 焦點인데 伊國으로서는 武力에 依하지안는限、今日까지 攻略한 土地를 내어노흐려고는 아니할것이오、佛國을中心한 一群의 國家는 에디오피아의土地分割을 問題삼지안코 伊太利에 주고저할것이니 이사이에서 英國은 如何한 方策으로써 에디오피아問題를 處理하고 그運命을 決定할것인가? 伊太利政府가 取할 今後의 方策이라고 傳하는바 消息通의 見解는 (一)伊太利主權下에 에디오피아를 倂合하야 屬領化하거나 (二)에디오피아主權下에 傀儡國을 建設하야 事實上 同政權을 伊太利의 手中에 集中하는 二方法이며 果然 伊太利는 어떤 方策으로써 處分할는지 興味잇는 問題이나 必是 從來의 伊太利의 態度로보아 積極的인 方策을 쓸것이 아닌가 생각된다。勿論 英國으로서는 占領地域을 承認하지안코、또 聯盟諸國을 慫慂하야 承認치 못하게 할것이다。그러나 伊太利로서는 이것만으로 無效化하는것은 아니니 如何한 方策으로 伊太利와 折衝할지 모르되、結局、幾多의 曲折을 經하야 에國의 大部分이 伊太利의 屬領이 되고、타나湖를 中心으로한 一帶의 土地를 에디오피아帝國의名으로 保存하야 에디오피아와 英國의 面目을 세우고 同時에 英國의 重大利權을 保持할것이 아닌가하는것이 一般의 共通된 觀測이다。

◇

에디오피아에는 雨季가왓다。아직도 討伐工作이 完了되지 아니하엿으니 今後에도 伊軍은 幾多의 困難에 遭遇할것이니 雨季到來와함께 다시 複雜한 局面이 展開될것도 豫想되나 그것도 伊軍을 全的으로 退却케하지는 못할것이니 結局 우리의 注目은 伊太利가 首都占領後에 如何한 方策으로써 國領土를 料理할것인가 하는것과 이와同時에 英國이 이에對하야 如何한 對應策으로써 伊太利와의 折衝에 出馬할것인가 하는데 集注된다。同時에 英國과 伊太利의 態度를 左右할 歐羅巴의 政局은 如何한 新局面을 보일는지 이것이 興味의 焦點이다。이러한 諸勢力과 諸條件이 에國의 今後의 運命을 最終的으로 決定할 것이다。그러나 에디오피아帝國은 事實 滅亡하엿다。今後에 이름이 남는다면 그것은 새로운 에디오피아에 不過할것이 아닌가。에디오피아黑人帝國의 滅亡은 二十世紀의 피무든 悲劇의하나인同時에 人類의 永遠한 羞恥이다。(完)(寫眞은 에디오피아의王座(上)와平和에뜸던 時節의 아디스아베바市(下))

伊에戰爭日誌

▲十月三日 戰爭開始、伊軍越境 ▲同六日 아도와爆擊 ▲同十日 그구리그레州進入、아도와陷落 ▲同十日 사將軍伊軍에投降 ▲同十四日 악숨陷落 ▲同十八日 오가덴地方伊軍이前進 ▲十一月七日 伊南軍 고라하이占領 ▲同八日 伊北軍마칼레入城 ▲同十八日 聯盟의 對伊制裁實施 ▲十二月六日 데세爆擊 ▲同八日 호어·라발和協案成立 ▲同十九日 同和協案埋葬 ▲同二十二日 이든英外相就任 ▲廿七日 英、地中海沿岸諸國의對伊共同作戰整備 ▲一月一日 南部돌로市爆擊 ▲同十八日 돌로附近의 激戰에서 에軍損害莫大 ▲同十九日—二十二日 에軍템베움奪回 ▲同二十日—二十八日 마칼레中心의 激戰 ▲二月九日 데세爆擊 ▲同十一日 암바아라담이占據되다 ▲三月一日 렘벤에依據한 라스카사、라스세움의大軍이敗退 ▲同二日 和協工作再燃 ▲同六日 伊機三台首都上空에出現 ▲同七日 獨逸의라인進軍 ▲同十二日 伊南軍全線에亘하야總攻擊을開始 ▲同廿一、廿二日 지지가市爆擊 ▲同卅日 伊機卅臺하라—르空襲 ▲四月一日 곤다—르占據 ▲同四日 伊機五臺首都再襲。아시앙기湖北方에서 皇帝陛下의 에軍主力伊軍과衝突敗退 ▲同五日 쿼람陷落 ▲同八日 十三國委員會伊에兩國에停戰勸告 ▲同十三日 伊機首都上空出現。伊北軍타나湖에到達 ▲同十五日 데세陷落 ▲同十七日 十三國委員會和協工作失敗를確認 ▲同十八日 하라르陷落 ▲同十九日 지지가陷落 ▲同廿日 聯盟理事會開會 和協工作失敗를確認 ▲五月二日 皇帝 지브티로向하야避難。政府는 西方山岳地帶로移轉 ▲同三日 首都 混亂陷入。



佛國總選擧結果의遠望!
팟시즘의頹勢와
自由主義의勝利

洪陽明

今回總選擧結果의 過般結果와의比較

非常時局에 處한、佛國國民이 自由主義를 擇하느냐? 팟시즘을 取하느냐? 하는政治指導의 基準을 定하는데잇서서 重大한 意義를 가진總選擧의 結果는 이미 本紙에報道한바와가티 左翼派의 壓倒的 勝利를 齎來하얏다 이제 去四月二十六日의 第一回 投票結果와 五月三日의 決定投票結果를 綜合하야 各派의 議員被選數를 再錄하면 다음과갓다

(一九三六年五月四日現在)

▲左翼諸派	
總計	三七五名
社會黨	一四五
急進社會黨	一一五
共産黨	七一
其他	四四
▲右翼諸派	
總計	二三八名
民主共和黨	九〇
右翼共和黨	八三
其他	六五
累計	六一三名

이左右兩派를 純粹하게 區分하면、社會主義的政綱을 내걸고反파시즘 共同戰線을 取하고잇는社會黨、急進社會黨、共産黨의 民衆戰線과 右翼共和黨과民主共和黨 諸派및 파시스트的傾向을가진 小黨派로써 結成된國民戰線과의 對立이 基本的인것이되는데 今回選擧結果에依하면 人民戰線은 三百三十一名이라는 議會內 絶對多數(佛國下院의 議員總數는 六一五名이다)를 確保한데 對하야右翼人國民戰線은 겨우百七十三名의 議員을보내게된慘敗이다

다시 이것을 左黨이亦是進出하엿든 一九三二年의 總選擧結果에 比하면 一層그發展의렘포가 큰것을알게될것이다

(一九三二年總選擧結果)

急進社會黨	一五六
社會黨	九七
社會及共和聯盟	四八
急進左翼派	四六
共和聯合	四三
中央共和黨	三三
左翼共和黨	三三
左翼獨立黨	二五
獨立左翼黨	一六
共和及社會	一五
人民民主黨	一二
合同勞働黨	一〇
共産黨	一〇
共和中央黨	七
社會店動派	五
無所屬	四七
獨立	二二

以上의繁多한 過去의下院分野를 左右兩派로 大別하면 黨派의 名稱은 左翼이니 急進이니하는文字를 부첫스나 事實上의 左派는 社會黨과共産黨과 急進社會黨의 大部分과 合同勞働黨의 멤버를加한約二百七十名밧게못되여 中間派的議員數十名들의 態度가動搖되는 德分으로 右派를 겨우牽制하는狀態엿다。그리고 左派中의 左翼的色彩의 濃度는共産黨、社會黨、急進社會黨의順序인것은 周知하는바이다。그럼으로 이번選擧까지 議會內第一黨이엿든 急進社會黨이그보담 더急進的인社會黨에게第一位의 地位를 빼앗기고 더욱이 極左黨인 콤인테른의支部 佛國共産黨이 十名으로부터 七十二名의 議席을 獲得하얏다는것은 今日의 總選擧가 左派의 一般的인 比前勝利에 加하야 質的으로 極左派의 驚異的進出의 機會가되엿다는點으로써 注目된다。

左翼政派大勝利의 政府的社會的意義

今回 總選擧結果가 佛國選擧史上에 類例업는 極左派의進出을 齎來한原因은 愛國的精神을 高調하는 國民戰線 即右翼派諸政黨의 陣容이 繁多하고 目標가 不明한데 比하야 民衆戰線은 社會黨首 레옹、블룸氏와 急進社會黨首 달라디에氏와 共産黨의 首領 모리스、토레스氏의 緊密한結合下에 反파시즘、民主主義擁護 集團的平和機構維持를 綱領으로 하야 精神的으로 統一된 作戰을 進行할수가잇섯기 때문이라고한다。또한 今回總選擧에 내세운 各政派의 宣傳目標는 內政問題보담도 政治指導 原理로써 데모크라시와 獨裁主義의 어느쪽을 取하느냐 하는 意識上의 問題와 獨逸의 脅威를 中心으로한 外交問題에 集中되엿스므로 政治意識에잇서 自由主義의 傳統이 깁흔 佛國選擧民에게 右派는 左派가 政權을 쥐는 날은 西班牙의 左派勝利後에 惹起된 混亂狀態를 誇張하야 그後患을 警戒하는 以外에는 히틀러型의 獨裁主義를 宣傳하기에는 처ㅅ천이캠을 가젓다 또한 右派가 한목소리로 愛國精神의强調는 左派에게 도리혀 그武器를 빼앗긴셈이되엿다는것은 足히想像할수가잇다 即周知하는바와가티 佛國國民의가장念願하는것은 나치스獨逸의 復讐戰爭이다 그럼으로 佛國의愛國心은 나치스獨逸의突進에對하야 그것을 견제하는데에 잇슴이나 아니면 實際上으로는 無意味하다 그런데 獨逸이 大戰後社會民主黨의 勢力을中心으로하야 共和制로 統治되든時代에잇서서는 左翼派는 對獨協和를 强調하얏섯스나 히틀러氏의 나치스政權이 樹立되야 再軍備를 强行함으로부터서는 左派는 一齊히 反파시즘이란 이데올로기의 問題로써 對獨强硬策으로 一貫하야 邁進하는同時에 集團的平和安全保障機構確立의 標語下에 武力으로써도 언제나 獨逸의 突進을 牽制하기에足한 包圍工作을 倂行하고잇슴으로 右派의 愛國的軍國精神은 空手形이되는 狀態이다 더욱 左派는 蘇聯과의 軍事同盟을 締結하는데 잇서서 그精神的인 結合基礎가 되고잇는等、武力侵入에 對한 制動機가되고 잇는形便이다。파시즘의 獨逸을 假想敵으로하고잇는 佛國의 파시즘은 選擧民에게 興味가업는모양이다 도한 內政問題에對하야 右派가 軍備充實과 法貨의擁護를 내세우는 以外에는 特히 建設的인 目標가업는데 反하야 社會黨、共産黨、急進社會黨의 人民戰線은 軍事費의可能한 限度內의減縮、大規模産業의 國有、資本家에對한 累進的課稅等을 主張하는데는 選擧民의大多數를 占有하고잇는이나라의 小市民、푸로레타리아農民은 左翼內閣의出現에依한 經濟危機의 社會主義的克服에만흔 興味를가지고 잇는모양이다 右派의行動隊라고할 악숑프랑세-즈一派의王黨派와 드·라·록大佐의 거느린 火의十字架團이란 파시스트團體가 大資本家의 後援下에서 實力에依한政權奪取—따라서力의 政治인 獨裁主義政治의 樹立을 人民의 輿望으로써 克服한 佛國의 左派가 人民戰線에依한 左翼內閣을 組織할것이 時間의 問題가되오는 人民戰線이 次期總選擧까지 끗까지 支續되는가? 또는 第一黨이된 社會黨이 多分히機會主義的性質을띈 小市民의 政黨 急進社會黨에 接近되는가? 階級獨裁主張의 共産黨과의連繫를 强化케되는가 하는點은、次期政權의 左翼으로서의 濃度를 決定하는것으로써 興味잇는 問題이다 非常時의 일홈으로 파시즘의 激浪이 獨伊兩國을 휩쓸고잇는오늘 過般 西班牙의 左翼의 大進出과아울러 피레네山脈을通하야 地理的으로 隣接된 佛國左翼의大勝利는 議會政治와 自由主義와 또그보다더큰 變革을 待望하는 世界의 政治관에게 늣새기는 淸凉劑가 되엇다할것이다 (上段寫眞은 佛國議會光景)

皮膚病에는 단하나뿐인 テーム水

從來의皮膚病藥은 化粧水와大同小異하야 效力이 薄하며使用함에 不便한점이적거리는 貴重用도잇고도쓰러기마하야 效果가잇는듯하나 疑心스러운것이 만엇스나、旣往의皮膚藥의 不滿足과 缺點을 解決한것이 皮膚病良藥テーム水올시다 テーム水가 左記皮膚病症에對하야 適藥인것은 이미 世上의定評잇소 때는 正히 皮膚病發生期、이때 皮膚病良藥 テーム水의 常用을 推奬합니다

피부病良藥 데-무水

●만은옴 ●옴(습진) ●무좀 ●옴 ●태독●부스럼 ●진물●데●가려운데 ●부름●헌어르럼 이●버짐 ●썩風 ●鱗癬 ●피종 ●여드름 ●속은깨 ●농가중 ●唇肛門진물은데 ●옻오른데●藥진물터진데●버쭉 ●모기、깔따귀、빈대등害虫의刺傷

皮、脂肪에 使用하고 쓰리지안코 알푸지안코 눈에안띄고 냄새업시用法이 簡單하며 씻기낫소

テーム水藥價(二十錢、三十錢、五十錢、一圓、二圓……送料內地六錢

(全國到處藥店에잇슴)

模造品에注意하시고반드시テーム水라指名하시고사십시요

カレンダー商界에元祖覇王인

大阪杉本商店鮮滿進出

營業種目 カレンダー 圓扇、扇子等卸賣

滿鮮連鎖店大募集 (規定書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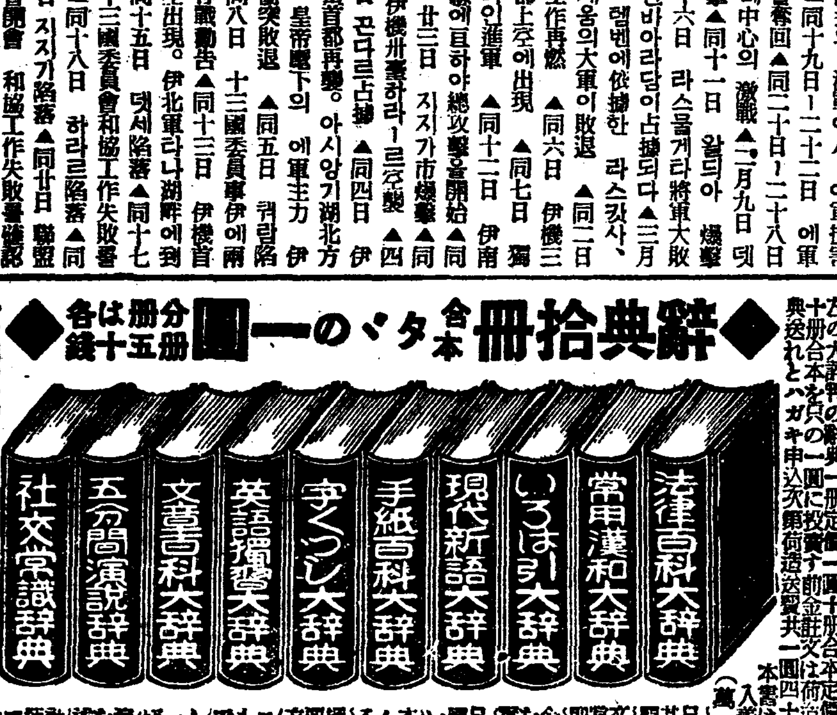
申込所 京城支店 京城府西小門町五四 電話光③二三五三 振替京城八四六五番

本店 大阪市北區菅原町八 電話北(五五)〇〇六二一

殘本處分 大投賣斷行

辭典拾冊 合本タヾの一圓 分冊は各十五錢

左の大辭典の一冊定價一圓十冊合本定價十圓の所殘分整理の爲め十冊合本を只の一圓に投賣す前金註文は荷造送料廿一錢代金引替は辭典送れとハガキ申込次第荷造送料共一圓四十五錢で送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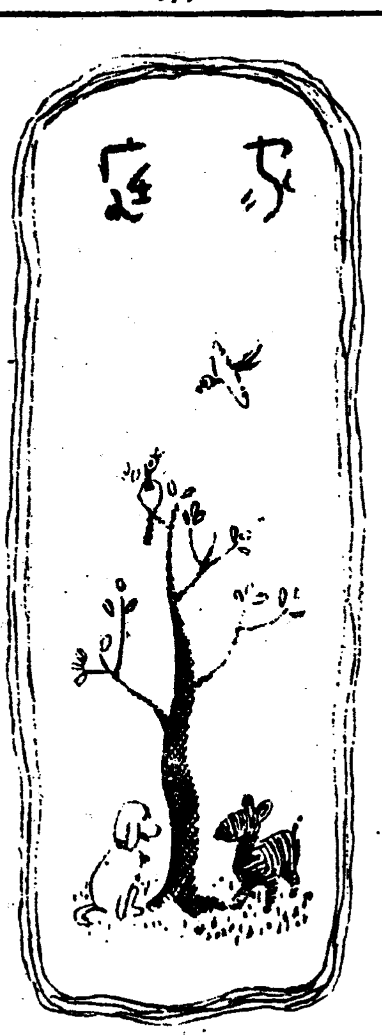


一冊宛の分賣は各冊五十錢前金御送金に限る

特別景品 無代進呈 實用模範日記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木川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두동무 —밥먹을때 됏스니 인제집에 갈까?—



잘된사진은

찍는기술보다 찍히는데농간

그모습과 그성격을잘살리려면 이모리를아러 조흔모델이되시오

가족의 얼굴이라든지 친한친구의 얼굴이라든지 또는 자긔자신의 얼굴이라도 사진으로 찍어서 두고 보는것이 조흔 긔념품을 이룬다는것은 말할것이 업슴니다. 더구나 멀리 떨어저잇서 사진을 박거나 이미 저세상으로 떠나버리어 사진만을 남기어 두거나 하얏다면 그 사진이야말로 다시 업는 보물이 됩니다. 그러니 사진을 어찌 허술이 아모렇케나 찍어 버릴것입니까? 당장 자긔가 보기실흔것은 물론이요 남에게 줄수나 잇습니까? 그러나 사진쟁이가 사진을 찍는데만 긔술이잇는것이아니라 사진을 찍히려는 그사람이 자긔얼굴을 찍히는데도 긔술이 잇습니다. 그런긔술을 모르고서 사진을 찍다가는 큰 낭패입니다.

첫재로는 몸을 잘 가저야 합니다. 몸이라니까 오축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의 말만이 아니요, 눈, 입, 손, 발등 왼몸의 모든부분을가르치는것입니다.

손 제일 주체구즌것은 손이올시다. 어듸다가 노하야 조흘는지 도모지 업는 생각이 나지 안습니다. 그래서 흔히 두팔을 것거나 허리에다가 딱 부치거나 하는데 다 보기조흔편이 아닙니다. 하여튼 손에 힘을 잔뜩 주지말고 무심히 가지고 그러타고 손까락을 가닥가닥 벌리지말고 꼭 부치어 둘것 또는손등을 세로나 가로나 정면으로 보이지말고 어비스듬하게 보이도록 할것등이 필요합니다.

눈 사람의 얼굴에서눈 이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듯이 사진에서도 눈이 제일 말성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장님도 되고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끌이나서 싸홈하려 덤비는 사람도됩니다. 그래서 흔히 겻눈을 짓기도 눈을 아래로 깔기도 하나 그모도가시원치 안습니다. 그저 눈을보통보담 아조 조금쯤만 치떠두는 것이 제일 무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얼골 어떤 이뿐얼굴이든지 몸채 똑바로 서서 찍어서는 얼굴이 맥시가 조하보이지를 안습니다. 몸은 조금비스듬이 가지고 얼굴만 정면으로 찍어야 합니다.

발 양장을 하고 찍을때는발도 상당히주의해야 합니다. 괴척한자세보담은 두발을 조금 압뒤로 트는 편 이 모양납니다.

둘째로는 화장도 적당히 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진은 본얼굴과도 달려서 화장에따라서 만히 달려집니다.

(一) 진한 화장은 절대로 못씁니다. 언제든지 간단한 화장이 조흡니다

(二) 광대뼈가 나온 분은 거귀다가 베니를 칠하고 코ㅅ날이 죽은 코의 양여프로 베니를 칠하십시요

(三) 눈섭이 적은 분은 눈섭먹으로 그리십시요

(四) 볼이 빠저 오므라든 분은 탈지면을 물어 통통하게 하십시요

셋재로는 의복도 큰 관게가잇습니다. 그것은 호사보다도 잘 찍어지고 또 잘모양 날것을 골라 입어야만 합니다.

(一) 자지라든지 등색은전부 히게 나오고 적색이라든지 연지ㅅ빛은 전부 검게 나옵니다.

(二) 힌바탕에 검은 줄은 잘 나오는 반면·검은바탕 힌줄은 잘나오지 안습니다

(三) 황홀찬란한 옷문의가 제대로 다는 안나오더라도업마쯤 나오게 되는데 그런 옷문의가·나온다면 도리혀 얼굴이 무치여 재미가 적으리라고 봅니다.

少女小說 옥히와반지 (二)

金相德

『가야겟는데 어머님이 장에가서서 입때안오시는구나』

옥히는 다른날보다도 오늘은얼른 늦도록 어머니가 안오서서 떡으나 걱정되는 모양이엇습니다.

경애와영히는 오늘 원족 갓다온 이야기를떠들면서 햇습니다

『참오늘 원족히는 엇더케 재미가잇섯는지 몰랏서 그렇지 애―영히야―』

『그래 참 더케 재미가잇섯는데』

『엇더케 햇길내』

옥히는 그들의 재미잇게 놀앗다난 말을듯고 부러운듯이 물엇습니다.

『저―유희도햇지 창가도 햇지 경주도햇지 또 선생님이 이야기도 해주섯지 정말 김선생이는 입분말로 애기를 해주섯는데 도테모 우마갓다요』

하며 경애는 오늘지낸이야기를 하섯습니다.

『그리고맨나중에 보탑을 햇는데』

『보탑이뭐냐』

옥희와인순이는 보탑이란 말을 듯고 처음듯는소리여서 무슨말인지알고십허물엇습니다.

이두아해는 보탑이란말도드러본적도업고 또한번도 해보지도못한아해들이엇습니다.

『히―보탑도모르니』 하며 경애는 보탑이란것도 모른다는 옥희와인순이를 보고 참바보다하는듯이 처다 보앗습니다.

『어떠케하는거냐』하며 알고십허 물엇습니다.

경애와 영히는 서로들우섯습니다.

『왜―웃기들만하니 모르면 좀 아르켜주지안쿠』옥히는 가르처달라고햇습니다.

『바보다 그러닛가 너이들도학교를단겨 저어 보탑이란것은요 만국식한 제비를 맨드러서나 무밋헤나맨속에나 돌밋헤나 틈에나 감처둔단다 그래서 선생님이 『차저라』하면우리들이 찻거든그래서 뭐든지 한장은 어들것이아니냐 그래 그걸 펴바서 거기에 씨여잇는대로 차저갓거든, 오늘 별거다마히다 양말, 자, 반지와, 뺏미루포, 미깡, 연필, 고무, 참미혓다 그런데 나는 재수가 조와서이 반지를 탓단다』하며 경애는 『반지』를 내보이며 자랑하엿습니다.

엽헤섯든 동무들은 모다 그반지를 바라보앗습니다.

『애구 참엽버죽겟서 나는 케키구게 고무한개를탓서』

영히는 고무한개를탓것이 오른다는듯이 말하엿습니다. 영희의 말을듯고 모다들 하―하고우섯습니다.

『이것봐라 이게 정말은이다그리고 여기봐! 온것이 보적이래엇더든지 차구로반지가 아니라어원찌리는 너무하다고 그리시드라 교장선생님이 그랫지 영히야』

『누가아니 이원이지』

영희는 엄이난 모양이엇습니다

『영―까쟁이 제가타지를못햇으니까 아조약이 올는납 왜? 벌떠데 재수가업스려서』

『무슨재수야 히―넘우까불지마려』

경애와영희는 한참동안이나 서로말닥툼을하엿습니다.

『짐들하니? 하……한참교생도 끼리 싸와?』

옥희와 인순이는 비우서주엇습니다.

경애와 영희는 고만 말다툼을 하다가 끗첫습니다.

『뎅뎅』

학교에서 상학종소리가 낫습니다. 인순이는 종소리를 듯고,

『애구 상학종이다 어서가야것다 애―옥희야 내먼저 갈게 곳 오너라』

『그래 그런데 얼른가서 선생님께 말좀해줘―』

全京城二千園兒總動員

第八回 幼稚園聯合園遊會

五月十六日(土) 비올경우에는 十八日月曜日로延期

參加幼稚園(無順)

崇仁幼稚園 往十里幼稚園 昌信幼稚園
崇二幼稚園 養明幼稚園 清進幼稚園
三光幼稚園 水標幼稚園 新門內幼稚園
桃花幼稚園 麻浦幼稚園 和光幼稚園
孔德里幼稚園 槿花幼稚園 安國幼稚園
宮井幼稚園 輔仁幼稚園 柴橋幼稚園
朝陽幼稚園 西大門幼稚園 永登浦幼稚園
龍光幼稚園 梨晶幼稚園 南大門幼稚園

場所 景武臺에서

主催 朝鮮日報社

봄의……머리빗기

봄은 흐르는 봄이요 자라는 봄이다. 무한생명(無限生命)을 안고 뛰노는 봄의 동맥(動脈)을 붓잡고, 살아나는 우리인생이니만큼 모든것을 봄의긔분으로 창조(創造)하지아니 할수업슴니다. 『봄웨이브』도 봄의의식(意識)을 헤치고 봄의의식에 파묻친형태(形態)가아니면안됩니다. 봄물이 잔잔히 흐르듯이 빗이 가늘고 산과 들이 아무락한 생긔(生氣)에 싸혀 아롱아롱하듯이 곱게 빗올것이요, 꼬치피르듯피르듯하며 참아피지못하는 그때 그때마다, 꼿니피 한닙두닙 퍼지는, 꼿의 생장(生長)을 표상(表象)한녀왕형(女王型) 결발을 권하고 십습니다. 서양말에 백합(百合)꼿을 가르처『녀왕(女王)처럼깨끗하다』(스추례이트·에쓰·릴리)는 말이잇습니다. 우리는 녀왕가티권위(權威)잇는 녀성(女性)백합 가려고결(高潔)한품성(品性)그려고 끈힘업는 생명의약동(躍動)을 인상(印象)하야고안(考案)한것이 이녀왕형웨이브입니다

모―델 朴善女
美容師 鄭花靜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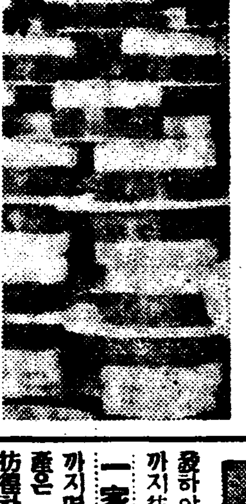
무엇을 먹을때는 이러케 먹어라. 남이 빼서 먹는것 처럼 눈을 힐금힐금 하지말고 얌전히안자 천천이 먹되 오래 씹을스록 몸에 조흔것이다. 한번에 쉬흔번식씹어라. 다먹고 나서는 양추질을 꼭해야해. 그래야 니가 벌레먹지안는다. 벌레 먹은 니는 창피스러워.

(금돈사람 곽영진)

그리운헌빗! 산뜻한여름모자

파나마와맥고모는 엇던것을 고를까?

겨울부터 봄을 들추고 날뛰는 사람들은 다시 봄이 저물기도전에 녀름준비로 약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봄옷도 무거워 오고 중절모자도 더워 보입니다. 아니, 상점의 진렬장을 좀 드려다보시지요. 거긔는 맥고모나 파나모가 어느틈 늘어앉젓지를 안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자도 이지음 개비를해 두어야 할 모양이지요. 녀름모자에 대한 상식을 좀알아 두실 때는 언겟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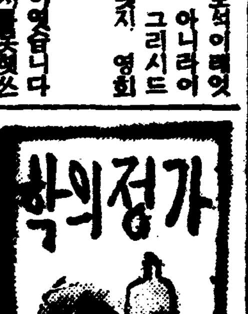
파나마모자

파나마모자는 그저 파나마라는 나라에서 나는것으로 아시지만은 남양마르크군도 코롬뷔아 대만이나 류구등지에서도 나지 안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양의 야자(椰子)입사로 된것은 삼원오십전에서 칠원정도로 가고 류구서 나는것은 팔원이상 칠십원까지잇고 일본파나마, 컬럼비아등은 팔원내외입니다. 보통들 파나마라고 만히 쓰고 다니는것들은 조히로 맨든것입니다. 그런것은 비를 마즈면 결단이나서 싼것이 비지떡입니다

맥고모자

물론 일본내지에서 산출되는것이나 간혹 중국서 수입되는것도 잇습니다. 중국서 나는 밀집은 가늘고 유려하기때문에 고급품으로 수입하는것입니다. 갑은 사원이하 오십전까지랍니다. 그저 일원짜리면 보통으로 쓸수가 잇겟답니다. 금년이라고 유행이별로 달려진것은 업스나 재어 좁더 줍아지고 리본도 좁더 가늘어들엇답니다. 그리고 리본빗갈은 아모래도다색(茶色)계통이 우세한모양인데 젊은분네중에는 검은빗도 찻는이가 만합니다.

가정의학



출산예정일

問 출산하는 예정일을 엇던 공식에의하야 알수잇다 하오니 그공식을 가리켜주소서 (咸鏡 一女生)

答 출산예정일을 아는법으로는 세가지방법이잇습니다

一、최종월경의제일일에 구개월을가하든지 또는 삼개월을빼고 칠일을 가합니다 례를들어서설명하면 작년구월십오일부터 월경이시작되야 월경이 간나오늘에 임신이되야 월경이 지금까지 나오지안는다하면 그부인이 출산하는달은 최종월경이잇든 구월에서삼개월을 빼면 유월이되고 출산하는날은 최종월경이 시작되든날이십오일에 칠을가한 이십이일입니다 결국 금년유월이십이일이 출산예정일입니다

二、임신한후제일처음에 아해가 움지이는것을 알든날자에 첫애기때에는 이십주일을 가하고 둘재번부터는 이십이주일을 가하면 출산하는 날자를알수가잇습니다.

三、동침한날부터 약이백칠십일만에 출산합니다.

출산예정일은 꼭 그날에 출산한다는것이 아니라 그때쯤해서 낫는다는것을 알뿐입니다 (大學病院婦人科 金鶴俊)

「鍾紡서―비스」의 衣裳實演會

본정 鍾紡서―비스에서는 日本服飾界의 權威者인 田中千代女史(同社顧問)와 元佛國大使松井男의令孃을 초빙하야 오는九日(土)午後一時부터 同店三層에서 內外衣裳의 『페이숀쇼―』(實演會)를 開催하기로 되엇는데 이實演會는 前記九日부터十二日까지 四日間 그다음 十三日부터 十五日까지는 右流行服의 陳列會를 開催하리라한다

再發의危險을避하야……

腦溢血中風(自宅治療)

四十歲에걸니는 動脈硬化, 高血壓의解決

中風症의 한숨

이라고한 腦溢血中風은한번나으드래도、再發하기쉬운性質의病으로再發하면 반다시、最初보다훨신더重하야저서、再發後에죽는것이오、엇다、生還하야서全快까지한분이再發하야서、生命까지일허버리는일까지往往히잇다。

一家의礎石인

사람이업서까지면、家庭은暗憺하게되야서財産은 散財되고 [illegible] 妨害하게되오。그리하야 한번中風에걸린분은、普通身體와는 달은것을잘生覺하야서、再發치안는治療法이重要하오。그럼에도 中風에對한注意[illegible] 說[illegible]不足이되며、[illegible] 하야、도리여 [illegible] 지잇서서

多大한金

額을 使用하야도無效하되고、回復이 안되는後悔하는일이잇소。또日常食物은그맛이 아는바와가티成分이름여서、가운데는 [illegible]의性質을 가지는것으로、中風患者에 好不好가잇서서 直時病狀에關係됨으로 그選別法이肝要하오、公益을爲하야모―든 詳細를 여기말하고십푸나 紙面이有限하야 希望한분에 特히仔細한것을 親切히直接送呈하겟소그內容說明書는

無料送呈―內容

四十歲頃부터 만흔動脈硬化症、高血壓의原因으로할직일고、또自己가獨自診察法을가르켜그豫防、젊어지는法을實驗有効的으로 指導하고 [illegible] 구나 中風의實驗을警戒하는 中風血統의人、多血肥滿의中風體質의人、神經質人、酒類을조와한분、平素머리만히쓰는분으로도中風에인젼인 安全豫防法으로합이고 [illegible]

風에걸여서잇는분을爲하야는 中風에對하야알지안흐면 안되는重要한것을 一一히注意하야 飮食物의 조흔것、납븐것을區別하야自宅에서 돈과 時間、손을덜게하야 只今까지 만흔同病者와조와하는治療法을 곳되게親切히 기록하야等閑히할수업는有益한것이오。

希望한분은 明石市東茂町順神堂本家에照會하시면 創製者加古思兵衛氏는明石市에서 表彰한 奇特한人으로 特히中風患者의救濟에熱心으로 今日까지도多數의病者로부터 深甚한感謝를맛고잇소한번저정한 中風患者라도治良法을어떠케가되고幸福한生活을 몸이되야 長生하여잇는분도적지안음으로 悲觀은損이오 早速히葉書에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서兵庫縣明石市東茂町順神堂本家에直接照會하시오。

척수병 脊髓病

脊骨變形 骨腐敗症 骨節痛 化膿腫症 痲痺 땅기는症 腦의障害 류마지스 神經痛

一生에後悔업도록 今日곳葉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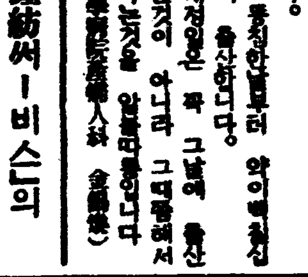
腦髓가아래로延長하야、脊骨의中을한길내 색기와가티通하야、知覺神經과運動神經의中樞인脊髓로되여잇는、事物을생각하고위斷하거나하는것은、腦髓의作用이나、뜨거운火著를쥐인때、생각할새도업시곳곳커나 다리가딱그러진瞬間에、넘어지지안으랴고하는等敏速한擧動은、脊髓神經의機能인故로、脊髓病에걸니면、危險可恐할病神때문에、身體의杆體인脊骨이漸漸굽어서佝僂로되는等、身體의姿勢가부서지는同時에脊髓가病的變質되여 其한것은쎄여서 髓出이되고 知覺神經과運動神經에、全身的故障을生하야、알코呻吟하게되고、往往步行도困難의저룸바리로되고、腦에도害를끼치어서、腦力의發育을나부게하며、白痴로되는수도잇스나、이故로心身을함께病菌과、苦生甚한舌마치스神經痛에有名한良藥이잇다아무리大金을써도、當座藥과姑息의治療로는、一時에지내가할뿐으로언제까지든지、根治안되며病이되는原因의進行을끈치지말고、一日이라도速히適當한療法과良藥을選擇함이緊要하다、等閑히하면意外인不具廢疾로되는此病은、年少者에만흔으로特히保護者父兄은勿失好機토록注意하시기바라나이다。 兵庫縣明石市中町本通太平堂脊髓藥本家로 便紙하되朝鮮日報에서보앗다고明記하야藥書를주십시요、說明書養生法全部無料로送呈합니다

放心하면危險

◎청명관目에

一日이라도速히곳처야할 諸眼疾의療法에對하야……

◆療養說明書를 無代進呈합니다



十五夜明月 이라도、구름이끼면빗을일코나、內障眼은重要한瞳子에구름이낀다。그흐리는 [illegible] 害物의色에따라、白內障、綠內障、黑內障이라고 稱名이달으다、청명관에걸녀질지라도 [illegible] 物體를보기에좃거북한듯하나治療를잘못하야자칫하면白盲으로되어暗黑하게되여서、乃終에는全혀失明되어는、元來 지라도、自己의 [illegible]

明되어世上이暗黑으로되는사람이 지안라、모처럼多大한治療費를 [illegible]

如何한性質의眼疾 인가

그原因과病症을 大略알지못하면 日常의 治療에도 [illegible] 거나、全治못하는수가잇고도治療의方針을 잘몰나서緊要한治療時機를 逸하야失敗에빠지는사람이 잇슴은 可惜한일이다優先患者가 第一常識的으로 하지안어서는안 이될일은、청명관이는外部로부터 侵入한眼疾과 달러서自己의

體質과 積病毒 때문에

눈속으로부터 생긴眼疾이다 그 러서病名도 청명관이라하야 內障眼이라稱함으로 進步된眼科專門醫事에잇서서도、內障眼에는外用藥보다도 內服藥이適當하다고 말하나

眼疾의內服藥 으로 [illegible]

經濟的으로

治療가 [illegible] 가벼운으로、時間이 [illegible] 하나、 [illegible] 하며大 [illegible] 하야 [illegible] 一日이라도速히本 [illegible] 안이되니 나이다。

[illegible]

청명관이되는眼疾은 처음에어떠케될가?

청명관이、其他眼疾의原因과病理의알기쉽게仔詳한것、飮食物의可否、選擇法日常의 養生治療의注意에이르기까지 親切히섬說明書는、公益을爲하야無代送呈中이니、兵庫縣明石市岩屋神社前進光堂本家로 朝鮮日報에서 보앗다明記하야葉書로照會하시라곳全部無料送付함

偶感草(下) 소경거지
靄山

나는 날마다 소경거지 한사람을 만난다。그는 西大門밖에 鐵路 위 電信柱아래 求乞의 場所를 定하고안저 오는이 가는이게 哀乞한다。

언제보든지 너무나 襤褸한 옷이엇고 또 너무나 못생긴 얼굴이엇다 거기도 돈푼이나 人間의素가 엿든지 어떤때는 어린아이하나를 데리고 가리 안저잇는것을 본다。알지못케라! 저사람 무슨緣로 저가튼 가난과 病과 不幸을 타고낫는고。

나는 날마다 이사람에게 조고마한 援助를 바친다。혹은一錢、二錢、혹은 五錢、十錢、그때마다 (布施)에 다르나 아마 한들도 빠진에서 사람에게 援助하기를 앗기지아니한다。하로에 두세번 만나는날도 조름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만나는때마다 나의 慣性한 생각을그냥버리지 아니하엿다。

혹 비오는날、그가 그곳에 안보힐때면 나는 어쩐지 마음에 궁금하다。『오늘은 어디서 무엇을하나。비를맛이나 잇는가』하고 잠깐잠깐 그자리에서서 머뭇거리기도하엿다。

혹 눈보라치는 몹시추운날、그가 또그곳에 안보힐때면 나는 그의身上을 걱정하야 나도 몰래 내얼골이 찡거지고、내가슴이 平安치못한것을 늣기어왓다。

예날에 어느날 어둡때이엇다 사람의그림자를 겨우 짐작할만콤 어두운 때엿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길에 赤是 이 소경거지가 그대로 안저 잇는것을 보앗다。

『이러케 늣도록 돌아가지 아니햇고나。지나가는 몃사람에게 맷날히나 어덧는지』

이런생각을하며 주머니에 손을 너허

(銅錢) 한푼을 끄내주엇다。그날 내 주머니에는 一錢짜리한푼과 五十錢짜리한푼 모두 두푼이 들어잇섯기때문에 나는 不得已 銅錢한푼밧게 더 줄勇氣가업섯던것이다。

멘발자옥 떼기다 문득 疑心스러워 주머니에 손을너허 남아잇는 한푼을 끄내어보니、그 것은 五十錢짜리가아니오 意外에도 一錢짜리엿다。이제 그소경에게 一錢짜리를 준다는게 五十錢짜리로 잘못주엇던것이다。

나는 마음에 몹시 아까웟다 『거지에게 五十錢짜리를 주다니 애용!』하고 不快한 생각을 이저버릴수가업섯다。그러타고 돌아서서 거지의 손에서 五十錢짜리를 빼앗고 一錢짜리로 바꾸어줄수는 업섯스나 아까운생각은 좀체 삭아지지를 아니하엿다。

그날밤이 지나고 이튿날아츰 나는 赤是 그소경거지를 만낫다。발자옥소리를 듯고『積善합시오』하고 외쳣다

(나는) 지어젯밤일을 이저버리지아니하엿다。내주머니에는 집에서 가저나오는 몃푼의 돈이 들어잇섯다。그러나 나는 주고십지를 아니하엿다。적어도 한달 동안 積善할것을 미리 다준셈이라고 떠젓다。그러고는 그소경을 본체만체하고 지나와버렷다。

나는 하로終日 어쩐지 마음에 키엇다。나는 눈앞이 나오도록 나를 꾸지젓다。

『卑劣한 사나이다。그러케도 打算에빠른 독특한 사나이가 어찌하야 그소경거지에게 날마다 慈悲를 베풀엇더냐。그러다 五十錢 銀貨를 내던지고 너더러 五十錢 銀貨를 내던진일이 업섯거늘 스스로 네가 주고서 스스로 아까이여기는 너의더러운생각을 뉘가씻어줄것이냐。』

이러한생각을할때 나는 붉하지못할 罪를 지은것가탓다。

그날저녁 나는 다른곳에를 일이 잇슴에도不拘하고 집으로 돌아갓다。原途 집으로 돌아가 고시퍼서가아니라 이소경거지를 만나다

(아츰)고에 지은罪를 謝하려 한것이엇다。그러나 그날따라 무슨일인지 이소경은 일죽 물러가고 보이지를 아니하엿다。나는 그자리에 우둑허니 섯다。아무리둘러보아도 그는 나타나지 아니하엿다。손에쥐엿든의돈을 더집곳이 업섯다。내가슴에는 슬픈생각이 떠돌앗다 스스로 말하되 이는 내罪의代價라하엿다。

그이튼날아츰 또 그이튼날아츰 그는 돌아오지를 아니한다。날마다 그소경은 보이지를 아니한다。이리하야 오늘까지 벌서 여러날을 그소경은 보이지를 아니한다。날마다 기다리건만 그는 돌아오지 아니한다。어디로갓나。몸이 아푼가。무슨일인고。

웨 나로하여금 不愉快한 最後의記憶을 남기게하고 너는어디가 돌아올줄을 모르는냐。사랑하는 사람을 여히고선듯 이가련 마음에 그립겟느냐。

돌아오라!내 그리운 소경거지! 나는 어리석은 打算으로 네게 무거운罪를 지엇다 돌아오라! 돌아와 내罪를 謝하여주어야겟다。(完)

文藝時評 作家의 表現技術과 主觀 ④
嚴興燮

崔仁俊氏의 女店員(新家庭五月號)은 K商會라는 中流階級以上의 顧客을 目標로한 特히 綢緞과 洋服等 布木專門店의 女店員강효순이란處女가 K商會의 顧客이요 또한 점잔은 紳士라 일인—(實相은

商 會에올때마다 새로운 女子를 同伴하고 와서 物件을 사주는 類의 一種의 定體不明한 M) 그M에게 나종엔 誘惑되여 貞操를 蹂躪當코 後悔한 이야기를 썻다。

이作品을 便宜上 三個의階段으로 난훌수잇다면

1、K商會內部描寫
2、M이란사내와 그사내에對한 효순이의 漠然한 心理描寫
3、M에게 誘惑되여 貞操를 빼앗기는데까지의描寫

로 볼수잇다。前半部의 K商會의 內部描寫는 이作品構成上不必要한 部分이며 M이란사나이에對한 효순이의 心理 亦是 必然的事件展開와 配合됨이업시는 이作品의雰圍氣를 나타내이지못한 部分이며 最終部分에 잇서서의 貞操蹂躪을 寫하는

場 面에 잇서서 조곰도 實感이 업는 讀者를 誘惑할수 업다。

女店員生活이란 이作家의 말대가티—『——그自身 하나의 商品과 조곰도 다름이업시 一定한 陳列臺를두고 가장 적당한 위치에(店主의——乘有) 놓치되여잇다……』리거나『거울앞은 외롱한상점안의 날카로운 감시 아래 자유를 육이여잇다!』이라거나 [illegible] 『「人의二圓五十錢也」의 겨조(?)를먹고나서 그한가툼 자유(?)를 (?)더라도……』 이作家가 너무 表現技巧를 [illegible] 作家가 作品속에뛰여들어가 興奮되여가지고 效의 實力不足이라 하지안흘수업다

呪 文을 외우는것처럼 作品에 致命傷을 던지는 것도 없슬것이며 또한 그만큼 讀者의 不快를 助長하는것도업슬것이다

『지금 효순이가 M에게대해서 어떤감정을가진다고해서 그것은 결코 어떤조경에서나 홈모하는데서 울어나온것은처음부터 아니엿다——』

라고 효순이의 M에對한 態度를 鮮明하게 說明하엿다。

한말로 말하자면 이作品은 事件이展開되기前에 먼저 作者의 說明이 展開되엇뿐이다。

효순이가——商店內에서 空想하는心理描寫는 이作品構成上엄서서는 안될거라하겟스나 이것 赤事件과 配合안되는 心理描寫에 지나지안는다。

그것도 嚴密한 客觀的描寫가아닌 作者自身의 興奮된 主觀을 通해본 心理描寫는 實로作者로서 禁物이다。

더구나 M에對하야『M의방종한 악취미를 극단으로 경멸하고싶은충동』까지 일어남마한 제법

意 識水準이선것가튼 효순이로하여금 자극도한개의 녀자가되고싶다——는 誘惑을늣기게까지한것은 浮動하는現代女性氣質의 한타입을 그려려한것가튼 作家의努力으로 보려하더라도 그는 너무도 何等의 必然的事件의 展開도업시는 讀者로 하여금 肯定키어려운노릇이다。

더구나 百貨店에서 밤에도라오던 효순이가 골목에서 자긔를 지켜섯든 M을맛난것은 容或無怪라하겟스나 M에게 好感도갓지안코잇던 효순이로서 가자고한다고 食堂엘가고 또다시 自動車를 가치라고 M과 일본旅館으로가고 거기서M과同寢을하고 貞操까지 M에게 빼앗긴뒤 집으로도라와 자긔입빨로 아랫입술을 깨물면서『새마 새마!』외처짓다는 結局은 作者가 너무도 효순에게 치우친 同情을 보낸所爲이나 讀者로서는 효순에게 同情이가기보다는 오히려 苦笑와 憎惡를 殘忍한 表現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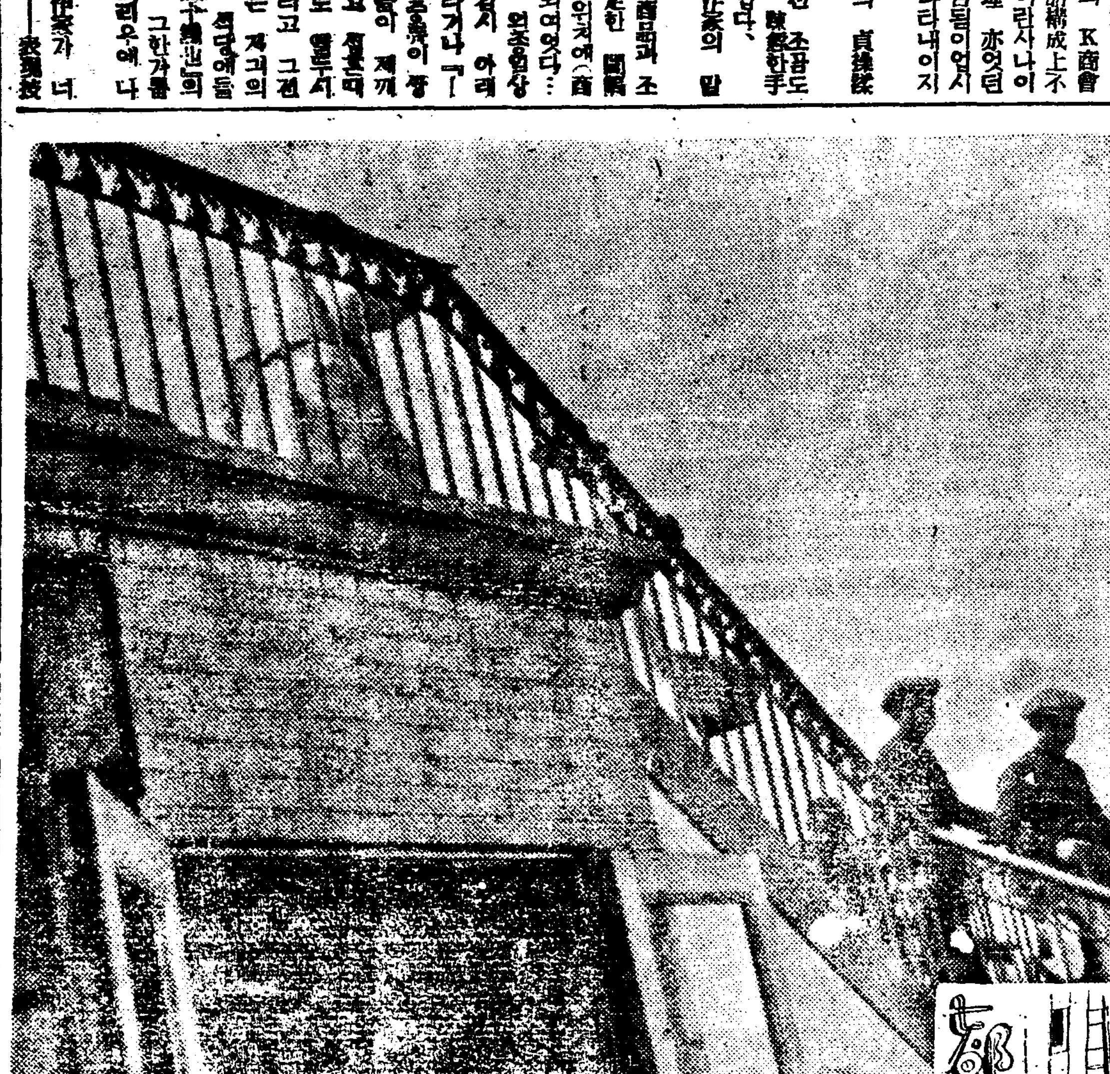
오히려 作品의效果로보아 효순이로하여금 좀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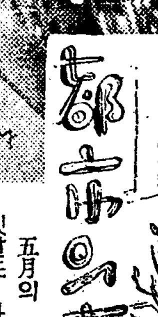
墮 落된 女性을 만들어버리는것이 훨신 作品을 살엇슬는지모르겟다。

좀더 이作家는 作品構成에잇서서나 事件展開와 心理描寫가 間隔이시 融化되고 作家의主觀이 뛰여나오지안는 技術的修練에 努力해주기를 바라는바이다。

學藝消息

第十五回 鮮展의 作品搬入은 景福宮內 鮮展會場에서 五日부터 受付가 始作되엿는데 第一日午前九時부터 優秀한 作品이 續續搬入되는데 벌서 第一部一點 第二部二十點 第三部十點이 搬入이되여서 매우 期待된다고한다。





五月의 도야볏흔 煉瓦의 빗갈도 아름답게한다。

먼지와 煤煙에 싸혓든 이 거리도『부라타나』가슨 五月의 볏살이 跳躍하면 都市는 갓작이 明朗해진다。

그래서『카브』를 도는 電車의 軋音도 제법 流麗한 餘韻을 蒼空에 그리는것이다。

이때 水石이나 園林의恩寵을 밧지못한 都市人들은 할수잇는 의『데파-드』의 屋上을 殺風景의 遊園地와가치 몰녀드는것이다。

萬戶岳安을 한눈에 俯瞰할수잇는 이『데파-드』의屋上이야말로 산보로 都市人에게는 北岳山보다도 더 유관스러운 存在일것이다。하로를 여긔서 散策하는사람들 모든 抑鬱과 苦痛과 煩悶과를 四方으로 더러진 저 蒼空에 호려버릴수가잇다면 이屋上의 功德은 無量하다고할까?

—如水—

問題의 時代性 (六)
—人間探求의 現代的意義— (二)
金午星

人間은그가 生産에 參加하자 말자 어떤社會的關係에 制約된다。그러므로 이러한 制約關係를 克服하지안코는 人間의 自由獲得은 말할수 업는것이다。여기에서 階級鬪爭이 생기는것이니 맑스는 人間을 階級的人間으로서 한개의 實踐을 다라내인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맑스의方法이 人間의 自己獲得에잇서서

正當하다 는것을 承認치안흘수 업다。무엇보담 社會에依한 人間의 被制約性을 暴露하고 人間의實踐性을 高調한것은 맑스의偉大한 功績이라할것이다。그러나 唯物史觀은 社會的制約을 絕對視한까닭에 人間의 主體的機能을 全혀 無視하게되엿다。階級鬪爭도 한개의 物質的인運動이다。하나 階級의自覺 즉 階級의主體的自由를 認定치안코 우리는 階級의勝利를 바랄수 잇슬것인가?더구나 今日의 世界史的새로운事實은 單히『貴族的프로레타리아』이 今日人間을 解放시키기에는 너무나 여러가지 難關이 잇는것이다。그러므로 맑스는 새로운 人間探求에 對하야 한개의 啓蒙的役割밧게 못한것이다。

×

이러한 準備的 啓蒙的過程을 지내오새로운 人間探求의傾向은 必然으로 社會性과人間의 主體의 關聯問題에 集中하게되는것이다 이제나는 이러한傾向을가지고 現代에잇서서 가장

큰影響力을 갓고잇는 딜타이·막스세ㅣ라、하이데겔등의 人間學과行動的휴맨이즘의 傾向을極히簡單하게 살피면서 나의 所見을말해보겟다。

딜ㅣ다이는 生의哲學者이다。『生을 生 그것에서 理解하려는것』이 그의 根本思想이다。生은 體驗으로부터 成立된다。體驗은 한개의 內的經驗으로 單히 感覺이나 表象 概念에서 生기는 것이 아니요 모든衝動과 感情의束을 中心으로하야 知覺과그것의 記憶및 思想系列과의 結合으로서 形成되는 構造的聯關인것이다。이러한 心的聯關은 어떤部分的으로 體驗되는것이 아니고 構造全體로서 體驗되여가지고 다시 部分을 알게되는것이다。우리의 心的事實은 恒常 이러한 構造的聯關으로서 體驗된다。

그런데 마음의 構造的聯關은『한개의 環境內部에잇서서 生命統一體의 狀況』에依하야 制約되여잇다。딜ㅣ다이는 人間을 精神物理的生命統一體라고하엿다。이生命統一體는 環境에 制約되기도하고 反對로 環境에 作用을 加하기도한다。

環境에對한 人間의作用으로서 根源的인것은 衝動生活과 感情生活이다。環境의制約이 感情을 抑壓할때에 感情은 그것을 保存하느냐 變革하느냐의 努力이生긴다。感官에서 나타나는 心象과 思想은 滿足 生命充實幸福등의 衝動과 感情에 結付되여 잇슴으로 衝動과 感情에서 모든目的的行爲가 생긴다。여기에서 그는 主知主義와는 反對로 衝動과感情을 生의中心으로 생각한것이다。이것이 生의 第一原則인것이다。

構造的聯關은 合目的性을 갓고잇슴으로 이러한聯關이 不斷히 行해짐에따라 차츰어떤 外部的環境으로서 鞏固한 形態를 形成한다。그리하야 生命統一體의 生의第一原則이다。그리하야 生命統一體가 그現實을 規定할수업게될때는 自己를 現實에 適應시켜가지고 欲情과 表象을 意志의

內面的活動 에依하야 支配하려한다。

이리하야 一切心的過程은 그活動에依하야 한개의 心的形態를 形成하게되는것이다。

生命統一體의 最後階段에서 習慣의總體槪念으로서 收得的聯關이생긴다。環境에對한 反作用은 生의擴大、環境의制約에對한適應은 生의充實이라면 收得的聯關은 生의固定形態로서 老年期에 入하는것이다。生命統一體는 이러한 收得的聯關에 依해서만 個個의 心的現象을 內面的으로 聯關시키며 聯想 記憶등에依하야 過去를 現在의가운대 保存하며 利用할수잇는것이다。이收得的聯關때문에 人間은 歷史的存在인것이다。『人間은 무엇인가。그것은 그는 自己의反想에依해서도 알수업고 또는 心理學的實驗에依해서도 알수업는것이다。오직 歷史에依해서만 알수잇는것이다。』

以上에서 본바와가티 딜ㅣ다이는 人間의社會性과 人間의聯關、人間의

主體性과의 歷史性을 누구보담도 먼저 把握하엿다고볼수잇다。이런意味에서 딜ㅣ다이는 現代의人間探求의 새길을 開拓한 功勞者라 할것이다。그러나 注意하지안흐면 안될것은 그所謂 構造的聯關은 어데까지나 心的事實이란것이다。

◆—天—文—觀—測—用—望—遠—鏡—◆

文學者와 生活苦
咸大勳

露西亞의文豪『고-골리』는 戲曲『檢察官』의作者로 또 巨大한 小說『죽은魂』의 作者로 그當時 로시아官權의 誅求와 貪官汚吏의 裏面을 暴露하는 同時農奴解放을 主題로 하야 그의銳利한 붓끗은 果然『눈물을通한 우슴속에』 그리어젓다。그리하야 그는 露文學史上에 巨星으로 그의存在는뚜렷하다

그러나 그는 그의餘生을거이 미친듯이 지내이다가 結局은 寺院에서 굶어죽엇다。

내가 文學의길에 발을드려놋코 이런文豪의 評傳을 읽는동안 나는 文學者의길이 이러케 險한것을알고 소름이끼침을 느끼엇다 果然文學者의最後는 이러케되여야하나?

平生을 文學의길에서 보낸文人! 그의作品을通해 社會에 끼친바 커-다란 精神文化의 寄與! 그것이 적든크든 잇섯슬이事實인데 어찌하야 文學者에게對한 社會的 待遇는 이가티 참가?

△

나는 엇그제 東京新聞에서 이런것을보앗다 그것은 日本文壇의 老大家德田秋聲氏가 病床에 누엇스나 그의 生活은 平安히 누어서 그를治療할餘力이업는모양! 이리하야 島崎中村兩氏의 斡旋으로 얼마의 金圓을보내게 되엇다한다 그러나 德田氏는 그것을 밧지안코 自己가 글을써서 돈을 求하려고까지하자 島崎氏는『普通會社에서 一生을 일햇다면 余生은 참말 幸福되게 지낼것을……어떠튼 그 돈은 바더야한다』

고 다시 懇曲히 勸하여 그것을 겨우 傳햇다고 한다

나는 그들의 文壇的인美談에도 가슴의끌른피가 躍動됨을 禁치못햇거니와 그보다도 文學者의 一平生이 老衰하야 病床에 누어가지고 그것을 治療할 能力이 업다는데는 말로 表現할수업는 悲慘한 心境에 헤매게 되엇다。

그러면 世上은 自己를爲해 사는사람이면 幸福을 주고 남을爲해일하는사람에게 오즉 不幸과 貧困이 잇슬뿐이다가 文學者! 그들은 오랜歷史를 通하야 우리人類社會에 그 精神的文化에 寄與한바가 크다。勿論 偉大한 思想家、哲學家、宗敎家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들에게 도라오는 건 껍둥하면 嘲笑、睡罵、誹謗、그리고 生活苦뿐이다。

文學者로、哲人으로、宗敎家로 그들이 生存한동안 그에게 榮譽를주고 그에게幸福을 주엇든들 文化史上 차즐길이업다 쉑스피어를死後三百年만에야 그 眞價를알엇다는말도 잇지만 世上은 참되고社會、그民族을爲해平生을 피눈물속에 바친 것을 너무도等閑視한다 너무 도虐待를 한다

그러다가 그가간뒤 참되게 그들의 자최를 찻고 그들의빗나는功績을 알고서 그때야 世上은 成明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形式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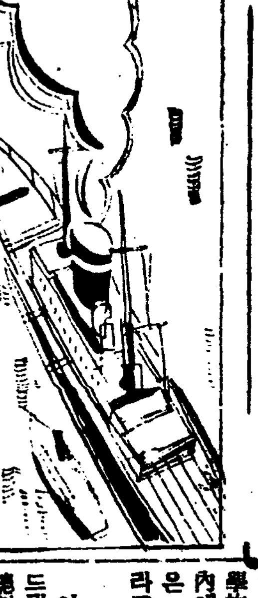
△

朝鮮은 外國보다도 더 文學者의 待遇가 차다 日日의生活을 어느職業에서 敎鞭하는이 지 決코 文筆로 生計를세우지 못한다 그러기때문에 專業的으로 할수업는 文學이어찌 營養不足이안되랴!헛되이 朝鮮人의 作品이 外國것만못하다고 한다 그것은 首肯한다

그러나 朝鮮人은 朝鮮의文士를 무엇으로 保障해줫느냐? 敎育도 必要하지만 나는 敎育바든사람! 精神文化에 寄興하는바 커-다란 職務를하는 文人에게 그어떤 社會的保障을주라 그것에는 여러가지 方法이 잇다。

첫재는 그들에게 生活할수잇게할것 둘재는 그들에게 저을 읽도록 해줄것이다。이것은 다음回에서 具體的案을보히려하거니와 참된 文化發展을 爲해 文人優遇의길은 當然한것이다

麻醉藥과催眠藥 (中)
朴太奉



『트라우베』의說

『트라우베』는 엇든物質의 麻醉作用을 決定하는데 가장重大한 因子의하나는 그것의 表面張力과 麻醉와는 比例될것이라고한다。事實 各種의 化合物에對하야 實驗해본結果는 이說과 合致되엿다。그리고 速히 細胞膜을 透過할수잇는 物質은 急速히 細胞內에 作用을 밋칠수잇다는것이다。그러나 細胞內에 드러간物質이 그作用을 밋기게하는데는 우선 細胞內의 脂肪樣物質에 容易하게 溶解될수잇는것이 必要條件인것이다。卽 우에서말한 『오-바른』『마이엘』의說과 決코 相反되는것이아니고 모다 麻醉藥의 作用에關하야 基礎的條件을 指摘하고잇는것이다

『무-아』及『로-프』의說

『크로·호룸』或은 其他의 麻醉藥을 血漿及헤모그로핀中에 溶解해서 그溶解度를차저보는데 다시말하면 溶解曲線을 그려보는데 그曲線은 正則的인 溶解의 狀態를 나타내지안는다 即『크로·호룸』等은 血漿等에 單히 溶解되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엇더한 變化가이러나는것이다、그러나 變化라고해도 一定한 化合物이되는것이아니고 吸着이되는것이다。即 麻醉藥은 原形質에 吸着되는데따라 麻醉의 作用으로서 나타나는것이다 麻醉藥은 大部分이 變化를 밧지 안코 그대로 排泄되는것은 이事實을 證明하는것이다。

그러나『알콜』에對해서는 이와가튼說로는 解釋되지안는것이다 『알콜』은 몸과는 모든 比例로 混合되지마는 脂肪에는 極히少量으로만 溶解되고 蛋白質과化學的變化를 이르키며 또한 體內에서 酸化되는때문에 이것만은 一種特有한 作用을하는것이라고 생각할수잇는것이다

『바그리움』의說

이것은 麻醉藥이 原形質內에드러간뒤에 對해서의 說明이나 組織의 酸素를 喪失하는것이라고한다。假令 例하면 炭酸瓦斯에依해서 麻醉를 밧는것은 이것을 吸收하면 酸素의 缺乏을 나타내는때문이라고한다。혼히 瓦斯가 甚히 不活性의것으로서 麻醉한다고해서 群衆이 모힌 集合場에서 麻醉의狀態가 이러나는것은 炭酸瓦斯에依한 麻醉인것이다。『크로·호룸』에—鹽及抱水크로랄等은 體內組織의 酸化容量을 減少식히는것은 事實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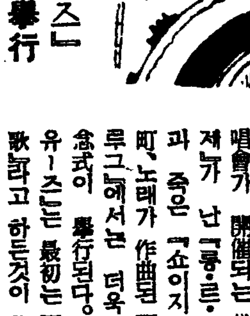
麻醉藥과催眠藥의 化學的構造와그作用

一、『하로겐』化合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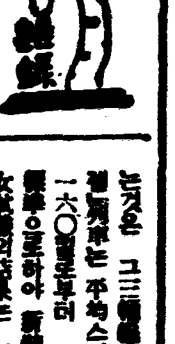
脂肪屬化合物의 『하로겐』化物은 거의 全部 麻醉性이잇스나 一般으로『하로겐』化物中에도 [illegible] 가장 [illegible]하고 [illegible]의 作用은 [illegible]이것으로써 [illegible] 그 作用性이 [illegible] 點으로서 가장 [illegible]이것은 主로 [illegible]中의 [illegible] 小[illegible]에 對하는理由로서 直接으로 麻醉作用을 [illegible]하는것과 [illegible]이 [illegible]되는 것이라고한다

[illegible]에對해서는 『크로、호룸』 [illegible] 만아니라 『하로겐』을 含有한 [illegible]化合物은 가른作用이잇서서 때로 [illegible]를 이르키는수가 만타。『크로、호룸』의 [illegible]은 全然 一定하지안코 一瓦 乃至六○瓦間에서 죽은例도 [illegible]잇다。이것은 全혀 [illegible]과 그때의 [illegible]에 關係되는것으로서 一、二瓦에 죽는수도잇고四五十瓦이나 九十瓦에 죽은例도 잇는것이다。

『마르세이유-즈』百年祭擧行



【巴里發同盟郵信】世界의 國歌中에서 第一『포퓰러』한佛蘭西의 國歌『마르세이유-즈』의 作者『루-제·드·리-르』가 逝去한지今年이 百年忌、六月二十六日이 그命日이므로 『루-제·드·리-르』百年忌記念事業委員會에서는 當日의 記念祭를 計劃하고 잇는데 當日은 全國의 市町村에서 國民總動員의『마르세이유-즈』의 合唱會가 開催되는 外에 『루-제』가 난『롱·르·소-니에』町과 죽은『쇼아지-르·로아』町、노래가 作曲된『스트라스부르그』에서는 더욱 盛大한 記念式이 擧行된다。『마르세이유-즈』는 最初는『라인軍의戰歌』라고 하든것이 革命當時 마르세이유에서 義勇兵의行軍歌로 되든것인데『마르세이유의 行進曲』이라고 改稱되엿든것이 彼等의 巴里入城과 同時에 全國民이 그勇壯活潑한 歌曲에 唱和되여『마르세이유-즈』라고 不時에 이르게되여서 佛蘭西의 國歌가 된것이다。



電氣列車의 新스피-드

二年前에 伯林으로부터『함부르크』間에서 實驗的스피-드를 演出하야 世界를 놀래엿든 『날르는·함부르가-』는 全世界最初의列車로 有名하엿는데 전기 스피-드는 지난二月二十日 新鐵의 三車輛連結의 『이-젤』電氣列車에 敗北를當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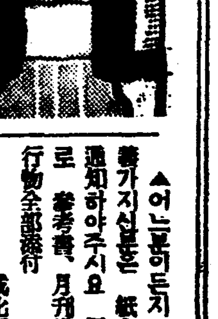
그電氣列車가 試驗運轉에 내인 스피-드는 勿論 時速一○五킬로이엇다 매욱 興味잇는것은 그三輛連結의『이-젤』電氣列車는 平均스피-드 時速一六○킬로로부터 一七○킬로로 新記錄을 作한 것이다。

其後 [illegible]의 결과는 [illegible]하고 거기에 또 實驗的結果는 어떨것인가。 [illegible] 二種 [illegible]하야 一種 [illegible]이라도 實驗的結果는 엇지 아니할수업섯다。매욱 [illegible]으로부터한부르크間에서 行[illegible] 時의試驗에잇서서는 二○五를 로의 記錄을내이고 一七五킬로를 [illegible]하엿다 二月二十五日 [illegible]의 [illegible]하면 전긔列車는 今夏부터 伯林부터『드레스덴』間의 定期運轉에 使用하기로되여잇다

『크로·호룸』

『크로·호룸』은 一八三一年처음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하고 [illegible] 그作用性이 [illegible]하여 [illegible]

讀者社交室



▲小生은 今年二十七歲靑年으로서 地方에서 印刷所經營의經驗이 잇사오며 또 雜誌其他印刷物校正에 自信이잇사오니 同方面에 採用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市內貫鐵洞 文化旅館內 二號室 金生

▲一、中央體育研究所徐相天氏의著作인 體力增進法에依하야撤底히 身體를鍛鍊코저하오니 硏究所에서 使用하는重量을 減量할수잇는球辟를買入코저하오니 朝鮮內에서도 買入할수잇는지요

二、四百封度짜리 重量을 加減할수잇는것 鐵物製나 鐵片製로 買入하자면 價格은幾何나되며 製造所를下敎하여주십시요

▲近來新聞雜誌上 新語(外來語)가만히쓰이게되여서 意味解得에困難한點이 업지못하얏습니다 그래서일본말로된 數種의辭典을 求하야보앗스나 內容이제뜻에는 맛지못하얏습니다 그러면解意에 便利할朝鮮말로된 辭典의冊名은 무어며 어느곳에販賣하는지가르처주심을바래나이다 (金W)

▲寄宿學生諸氏에게!本人의 家族은 三人뿐、空房이二個잇습니다、집이정적해서 寄宿學生을 求합니다 家族同樣待遇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로同議하시요

京城府嘉北町五番地의三十六號 宋權根

▲京城市內及東京市內에잇는 一流公立中等科速成學校가잇스며그住所와 入學資格等 其他仔細히下敎하여주엇스면 感謝하겟습니다

元山K生

▲大正六年陰六月二十四日生 八月十一日 月建丁未 日辰乙酉 寅時干戊寅

▲大正六年陰六月二十四日은陽曆으로八月十一日、月建은丁未、日辰은乙酉、寅時干은戊寅

大邱 [illegible]

▲日本文으로된 [illegible] 家庭에서 自習코저하오니 正確한 [illegible]이何處에서 發行하는것이 조흐며價格은 얼마나되는지此紙로通知하여주심을 바라오며 價格의高下不問하고 初步로부터알기쉬운것을 읽고십습니다

[illegible]

▲求職 當年二十六歲의旣婚女子이온데 京城某女高四年二學期까지在學타가 病으로 退學하고 其後 某私立學校에서 三年間敎職잇은 經驗이잇습니다 其外事業會社事務員或은 店員을希望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 通知하시기 바랍니다 (但保證人有함)

京城府平洞七番地三 林民雄

▲生은 多年間鑛業에從事하고 金、銀鑑定及分析과 鑛物分析等 外에 여러가지技術者로 用務하다 病中으로數月間 休養하고硏究를거듭하며 다시就務코저하오니 鑛山技術者나 金銀에對한技術者를採用하실분이 게시거든이 欄을通하여 照會하시옵소서

平壤府內 若硏生

▲一月八日 桃原生께告함 貴函에合當한後補者가有하오니 京城中林洞一二六金德浩方으로 直接問議하시면 提薦에應코자함

三月九日 (金浩)

▲二月八日 桃原生께告함 貴翰 [illegible]

咸北鏡城 申相五

▲어느분이든지 早稻田中學講義가지신분은 紙上으로나 直接通知하야주시요 價格은五圓以內로 參考書、月刊雜誌其他附錄發行物全部添付

新刊紹介

▲國民法律 五月號 發行所東京市芝區二本榎一ノ四七 國民法律社 振替東京一六七六六番 定價十五錢

▲生命保險●國營 その必然性とその具體案 國策産業パンフレット第四冊 發行所 東京日本橋區兜町二ノ一 國策産業協會 振替東京五二二八○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新朝鮮 五月號 發行所 京城府孔德町(活人洞)一三○ノ三 新朝鮮社 振替京城一六五九 四番 定價十五錢

▲調査月報 四月號(主要目次) 朝鮮に於ける集團部の狀況 鎭南浦及鯨山灣相調 水産業者用船舶調査 其他 朝鮮總督府發行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京城府大和町三丁目六二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一番

▲文化朝鮮 五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の內一ノ八 文化朝鮮社 振替東京五七三三六四番 定價二十錢

第一劇場

五月四日부터三日間大公開 日活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巨匠 마키노 [illegible] 監督 뭇기의 怪人 [illegible]

久保文雄氏監督 [illegible] 港離れて

데이라-루-스氏主演 愛의冒險

朝鮮劇場 仁寺町 電光三六一

新舞臺 大史劇 半月城의密話 全二幕

喜劇 文藝部作 쓸데업는固執 全一幕

오늘밤 全三幕

五月七日ヨリ十一日迄特別大公開 晝夜三回繰返映寫正午開演入替無 今週の番組(各等 大人五十錢 學生三十錢均一)

コロムビア社超特作日本版 地獄船モルガン D・ロス・レダーマン監督作品 ジョージ・バンクロフト・アン・サーザン主演

獨ファナール社超特作日本版 セロ彈く乙女 エーリッヒ・ワシュネック監督 レオ・スレザーク・ハンナ・ワーグ主演

▲PCL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放浪記 林芙美子原作・木村莊十二監督 夏川靜江・堤眞佐子主演

次週十二日ヨリ三日間 PCL・『エノケンの近藤勇』コロムビア映畵『罪と罰』

若草映畵劇場 (電話本局二三○四)

五月三日부터(晝夜四日間) 大衆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新春의巨彈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版 春香傳 監督 李明雨氏 金蘇峰氏 主演 韓一松 文藝峰

京城撮影所超特作映畵 洪吉童傳 原作脚色 尹白南氏 監督 金蘇峰氏 主演 金蓮實

桃花劇場 凝溢

連載野談

布袋記 (七)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불탄금가락지(六)

때는 정히 하오월(夏五月)이엿다.

푸른 버들 가지는 실과 가티 늘어지고 욱어진 풀냄새는 그윽히 향긔로웟다。

옥문지(玉門池)안압지(雁鴨池)동 연못과 동교(東郊)、서교(西郊)의 기름진 논에는 맑은 물이 괴게 출렁거려 어엽븐 비단분외를 일움도 장관이엇다。

실로 봄 신라의 풍경보다도 여름 신라의 풍경이 더욱 새로운듯하얏다。

『고이한 개고리 소리!。』

이때 녀왕께서는 이 고이한 개고리소리를 들으시고 크게 놀나섯다。

대체 녀왕의 그 읫중하시든 환후는 어쩌되섯든가?

『한울의 도으심이엿든지?』

『일백명 도승의 불공과 전국 백성의 긔도힘이엿든지?』

녀왕의 환후는 쾌복되시어 궁중의 정원까지 지니시게되엿스니 일즉 원각(圓覺)국사가 한번 액운은 게시나 마인의 치성으로 쾌복 되시리라든 말이 불행이도 틀리지 아니하엿든것이려라。

그런데 이때 녀왕께서 정원에서 거니시다가 고이한 개고리소리가 대궐서쪽에잇는 옥문지(玉門池)로 부터 흘러나오는것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사 친히 옥문지에 나르서서 그개고리들의 눈을 보시고서는 더욱 놀라시며 각간(角干)버슬노 잇는 알천(閼川)과 필곡(弼谷)두사람을 급히 불러세우시고

『경등이 지금 곳 서교(西郊)로 가다가 녀근곡(女根谷)이란곳에 일으면 반드시 적병이잇슬것이니 칠지어다。』

하시고 날낸병사 이천명을 주시며 빨리 가기를 재촉 재촉하시다。

알천과 필곡 두사람은 왕명을 들은뒤 기연미연한 의심으로 이천명 병사를 몰아가지고 녀근곡이라는곳에 다달럿다。

과연 그 골작이 안에는 백제장군 우소(于召)가 오백명날낸 병사를 거느리고 장차 독산성(獨山城)을 치려고 옴지기는중이이엇다。

알천과 칠숙 두 사람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서야 비야흐로 녀왕께서는 천리밝긔 놉히 밝게 보시는 총명이 게신것을 무한 탄복하얏다。

그리고 곳 이천명 병사를 풀어 녀근곡을 에워싸고 짓딱、짓딱 드러치니 백제군사는 독속에 쥐와가티 되어 조수족을 못하고 그대로 모두 머리업는 귀신이되엇다。

알천과 칠숙이 크게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와 녀왕께 승전한 서면을 칭송하고 이어서

『황송하옵거니와、상감마마께서 금번일을 어쩨 그럿케 밝히 통촉이 되압섯는지 감히 알고저하옵는 뜻을 알외오。』

하고 그 연유를 간절히 못조왓다。

녀왕께서는 두 사람의 알외는 말슴을 들으시고 우스시며

『개고리의 우는 소리가 매우 괴이함으로 가서보니 개고리 눈이 모두 노긔(怒氣)를 띄웟슴으로 병화(兵禍)가 잇슬것을안것이니 원래 천변이나 병화가 잇스라면 반드시 이런 즘생들이 노한 눈이나、노한 소리로서 그 증조를보이는 법이다。또한 적병이 녀근곡에 모혀숨을 안것은 그 개고리들이 우는곳이 옥문지가아니엿든가? 글에 일럿스되 녀자의 녀근을 옥문이라 쓰는고로 적병이 녀근곡에 모혀숨을 알것이다。그리고 금번 자웅에 승전을 짐작함은 안것은 녀근과 남근(男根)사이의 음양의 리치로미루어 그러할 틀을 용이히 잡을줄을 알것시이니 경등은 무엇을 그때지 이상타 생각하얏는고!』

하시며 녀왕은 또 다시 빙그레 우스신다。

녀왕의 말슴을 들은 신하들은 무한히 탄복하며 다시금 당나라에서 선사로 보내온 모란꼿에 대하야 녀왕께서 설명하시든 말슴을 생각하얏다。

이제 녀왕께서는 이미 환후가 쾌히 평복도 되섯스려니와 정하야 백제병사의 침범을 무란히 물리치섯스매 자연히 심신이 상쾌하섯다。

그리서 잠간 틈타서 가동하사 산수의 풍경을 보시려하섯다

이에 녀왕께서 대궐문을 납실때에 녀왕의 화려하신봉안에 취한 거지들 하나이 대가(大駕)뒤를 따라섯다。

曆

五月七日(木) 陰三月壬辰大(十七日)
己丑·火·斗成
●立夏五月六日(第十六日)

海外映畫消息

「西班牙」

『民衆의 名譽』 루이스、킹氏監督 엔리케、데、로사스氏 로시타、데이아스、히메노嬢 호세크레스포氏 포리오、메니야氏 리나데、리그오로嬢等 出演의 史劇(米、폭스映畫)

『虎』 메메、울레이스氏及 루피타、가리알드嬢主演의 悲劇映畫(멕시코 라사映畫)

去十一月 뉴욕 딸엘코나에서 上映된 西班牙語映畫는 다음과갓다。

『파、시몬의면』 안달作의 民謠를 만히 너흔 映畫。리칼、무니요스嬢 칼멘、아마야嬢主演。노래와 춤을만히 너혓다。알베니스、그라나도스、필리야等의曲도 使用하얏다。(西國모포노映畫)

『第八戒律』 監督者는 A、폴체트氏主演者는 라나、이에그로스이스嬢、칼멘로드리겟스嬢 루이스뷔리야시울氏 엔리케타、뷔리야시울嬢 푸란시스코、엘난데스氏等이다。(西호세、바롤트映畫)

『비둘기祭』 리칼드、더、라베가氏의 小喜歌劇을 베니토、페로호氏가 映畵化한것으로 마드리드의 十九世紀末을 音樂에부처 描寫한것이다。부레톤氏의 音樂은 참으로 아름다웟다。차리트、레오니스嬢、라켈、로드리嬢、미겔、리헤로氏 로벨트、레이氏等이 主演하얏다 最近스페인映畫의 佳作이다。(西、시떼사映畫)

映畵界挿話

世界的明花의 榮養學的診斷

【뉴욕發同盟郵信】 원의有名한食餌養生法의 專門家 뻔야민、하우서氏는 米國旅行의 目的으로 뉴욕에 到着하얏는데、上陸第一聲映畵界의 世界的大스타에 對하야 大膽率辣한 養生上 批評을 發表하야가지고 米國人을 놀라키엇다。다음四嬢에 對한 氏得意의 長廣舌을 一言으로 要約하면左와갓다。

一、그레타·갈보、몹기짝이좁부겁다、食事量을 減할必要가잇다 二、메이·웨스트、살찌면은 아나지만 「살라다」를 자시도록 하는것이조타。三、말레네·데트릿히、漸次 파리해저서 元氣가업서간다。 四、카더린·헵반、榮養不良。 以上에 對한 養生法으로서 氏는 다음의 處方을 發表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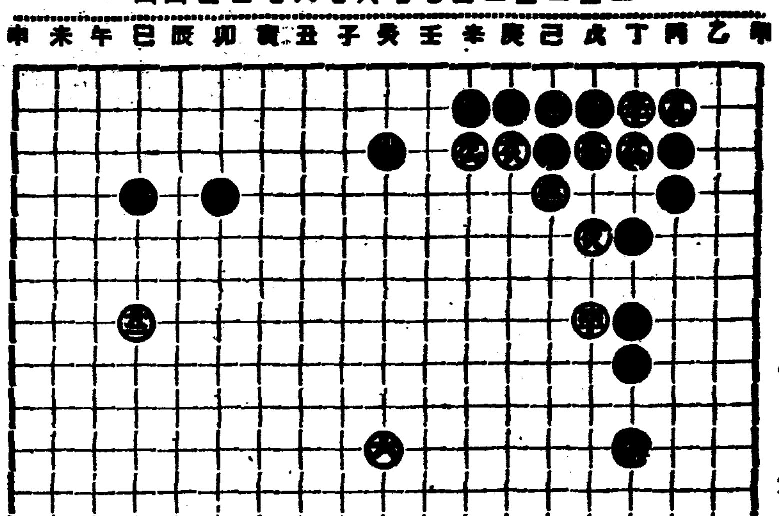
갈보嬢은 억지로 過食을하나 그것은 몹기짝의 살을 올릴뿐 조치안타。그러니까 비타민과 칼슘과 鑛物을 좋아攝取하도록하는것이 조켓다。 웨스트嬢은 典型的 精力家이나 放心을하다가는 뚱뚱보가 될터이니 注意가 必要하다。 그러니까 『살라다』와 果實汁을 使用함에 限한다

데트릿히嬢의 疲勞를 豫防하고 元氣를 回復하는데는 鐵分을 攝取하고 滋養食을 해야된다。 헵반嬢의 榮養不良에 對한 療法으로는 싱건草汁과 파셀리의 칼멜을하고 두番式 먹는 以外 肝油鷄卵가튼것을 만히 먹지안해서는 조흔 役을 오래 繼續키 어렵다。

베로니카의 꼿다발 푸란치스카、갈主演과 칼、베제監督의 獨逸토비스 特作品인바 갈의 代表作으로서 稱揚된다。共演에는 파울·헬비가와 힐데·힐데부란트다。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一三)

白 丁壹奉
先 任侑植



●卅三 庚의二 ○卅四 戊의三 ●卅五 己의二 ○卅六 辛의三 ●卅七 辛의二 ○卅八 戊의五 ●卅九 丁의七 ○四十 戊의七 ●四一 丁의八 ○四二 丁의十七 ●四三 午의十六 ○四四 午의十七 ●四五 午의十五 ○四六 巳의十五 ●四七 午의十四 ○四八 巳의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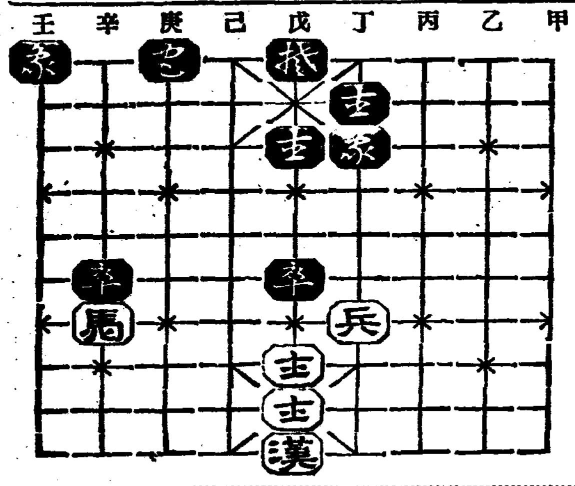
榮極文氏日評

黑이 戊의二로 斷點을 試하고 己庚辛二로 延着함은 短兵交爭이라 正着에는 欠損이될뜻 白도 己庚四五區內가 平坦치못한 此際에 丁의十七로 先着함이 非不好矣언만은 時機尙早로 看破된다 黑이 午의十六으로 白耳角破壞할 意圖나 取勢方法은 到底히 不許하노라 入界宜緩이란 格으로 午의九나十一로 自陣을 編成하야 第後策際이 可할가하노라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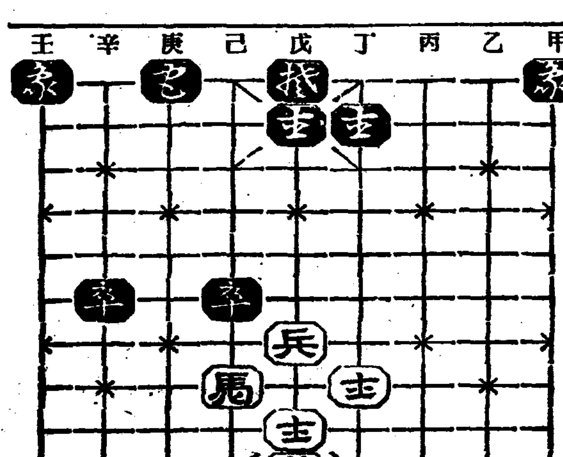
漢先手 李在鳳
楚一兵 李明輝 著

◀百十手圖▶



◀百二十手圖▶

辛七馬—己六 戊六●—己六 丁七兵—戊七 辛六●—庚六 己六馬—辛七 庚六●—辛六 辛七馬—己八 戊三●—戊二 戊八士—丁八 丁三●—甲一



라디오

六日(水曜)

◇午後六、三〇 맨돌린合奏 一、序曲 魅惑島……콕크作曲 二、民謠 세가지 1、후니쿠리、후니쿠라…伊太利民謠 2、산타루치아…나폴리民謠 3、콘드라바디스타……西班牙民謠 三、슈-벨트의幻想 四、小曲두가지 1、파이푸를 불고…柏木剛天作曲 2、하이킹노래…古賀政男作曲
◇同六、五五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七日(木曜)

◇午後〇時〇五分 하와이안기타ー音樂 一、레일라니 二、파우오아·레코·레코아 三、카리아·월쓰 四、푸아·오나오나 五、디스크리리브·홀라 六、하노노·하날레이 하와이안키타ー 張明浩 우쿨렐레 張錦波
◇同三時一五分 講演 安在駿
◇同四時二〇分 關西角力實況 京城旭町一丁目角力場부터中繼ー(京城)
◇同六時三〇分 講法指導 教育레코ー드併用(第一回) 解說延專教授 鄭寅燮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常識講演 어린이愛護週間講演 金鎬仁
◇同八時 兒童愛護週間講演 兒童愛護에對하야 城大小兒科 李[illegible]鎬

第一放送

◇午後六時 兒童劇 銃後의벗 東大門小學校 兒童 라디오놀이(釜山) 釜山公立幼稚園 園兒
◇同六時二五分 (東) 基礎英語講座(十) 鹽谷 榮
◇同七時三〇分 講演 兒童愛護에對하야 城大教授 醫學博士 土橋光太郎
◇同八時 (東) 吹奏樂과軍歌 陸軍戸山學校 軍樂隊 指揮樂長 岡田國一
◇同八時二五分 落語 柳亭 燕路
◇同八時五〇分 (東) 浪花節 懸賞放送文藝當選作 吹雪의召集令 武田富太郎 作 末廣友若
◇同九時 愁心歌外 一、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楚漢歌 四、寧邊歌 五、山念佛 六、夢金浦打令 大笒 金玉仙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回心曲 河龍男 金壽男
◇佛敎時報社 金泰治
◇同八、講演 「라고아의中心思想」 梨專文科科長 金尙銘
◇同八時三〇分 絃樂四重奏 一、絃樂四重奏 D長調 作品四第五番 第一樂章 알레그로모데라-토…하이든作曲 第二樂章 아다지오칸타빌레 第三樂章 메누엣트·알레그레토·트리오 第四樂章 삐빠-체 二、안단테·칸타빌레…차이코우스키作曲 桂貞植四重奏團 第一빠이올린 桂貞植 第二빠이올린 朴泰喆 비올라 安聖敎 첼로 金仁洙
◇同八時三〇分 라디오 드라마 「玉匣」 全一幕 【配役】 河照來…(淸米所 主)…金顯影 河玉鳳…(照來의 딸)…金蓮子 金召史…(玉鳳의乳母)…卜惠仁 柳海峰…(貧 金 某)…李滄星 李點釗…(下 人)…鄭冠來 崔信旭…(淸米所書記)…尹湖月 라디오劇研究會 演出 李如水 效果 朴一松
◇同九時一五分 歌詞 一、길軍樂 二、白鷗詞 大笒 [illegible]
◇同九時三五分 報念佛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개고리打鈴 五、흥打鈴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 基礎英語講座(十一) 丸山順太郎
◇同一〇時三〇分 (東) 家庭講座 季節의野菜와果實의瓶貯藏
◇午後〇時五分 (東) 一絃琴과新尺八 井舟 靜水
◇同二時 婦人의時間 須江愛子
◇六時 (大) 音樂이야기 大阪放送童話研究會
◇六時二五分 (東) 農村의時間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大) 人形淨瑠璃
◇同九時 (東) 講談 小金井蘆洲

八日(金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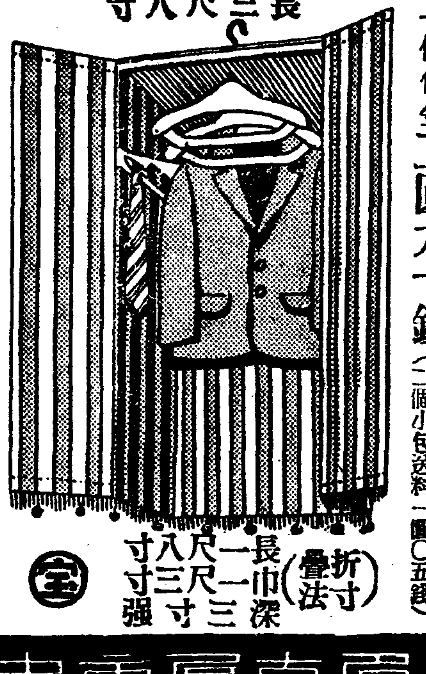
◇午後零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鈴 三、신아위 四、곳거리 大笒 方龍鉉 細笛 韓成俊 奚琴 金德鎭 杖鼓 丁元燮
◇同三時一五分 兒童愛護週間講演 啓明俱樂部 朴勝彬
◇同四時二〇分 關西大角力實況 中繼—京城旭町一丁目角力場으로부터—
◇同六時三〇分 講法指導 (教育레코ー드併用) 第二回解說 延專教授 鄭寅燮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趣味講座
◇同八時 農村講座(一) 京城附近의探勝 李允宰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調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興夫歌 第二高普 金璡珏 金柳鶯 鼓手 韓相鮮
◇同九時 (名) 絃樂 一、序曲凱旋…舍며作曲 二、日本의祭… (가)導入 (나)緩徐 (다)日本夜曲 (라)終曲 名古屋交響樂團 指揮 早川彌左衛門
◇同九時三〇分 愁心歌外 一、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平愁心歌 四、寧邊歌 五、개성난봉가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申海中月 高載德 細笛 崔壽成 短簫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東) 家庭講座 醫師가오기까지 房보는法(三) 醫學博士 橋本寬敏
◇午後〇時〇五分 (東) 코믹크오페라
◇午後二時 (東) 婦人時間 家庭과法律(七) 法學博士 牧野菊之助
◇同六時 (大) 講談 木村重成 石橋恒男
◇同六時二五分 (東) 基礎英語講座(十一) 鹽谷 榮
◇同七時三〇分 (仙) 科學講話 超音波의이야기 東北帝大教授工學博士 拔山平一
◇同八時 (東) 能樂 寶生會能樂堂에서中繼 水道橋
◇八時五〇分 (東) 哥澤 唄 菊地まさ 三味線 佐橋章子
◇同九時 (名) 管絃樂 一、序曲 凱旋 二、日本의祭 모-론作曲 指揮 早川彌左衛門 名古屋交響樂團

輕便洋服收納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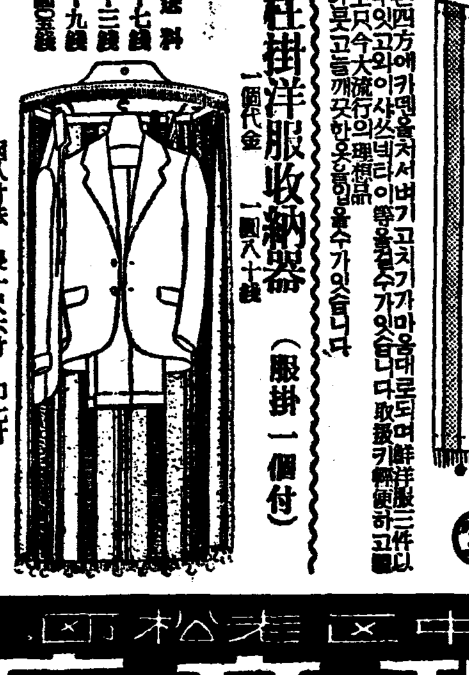
一個宛ボンタルー入函折疊式 長三尺八寸



輕便洋服收納器 (服掛三個付) 一個代金二圓九十錢 (一個小包送料九十三錢 二個小包送料一圓〇五錢)

折疊寸法 長一尺八寸 巾一尺三寸 深三寸强

本品은四方에카텐을처서버리고치가마음대로되며鮮洋服三件以上을넣을수잇고외에어사스넥타이等을걸수가잇습니다 取扱키極便하고體裁조코지금大流行의理想品이라고봅니다



杜掛洋服收納器 (服掛一個付) 一個代金一圓八十錢

小包送料 一個六十七錢 二個九十三錢 三個九十九錢 四個一圓三十錢

本品은洋服一着分과넥타이外에 收納할수가잇 折疊式一個宛ダンボール函入 寸法 長二尺六寸 巾七寸

名古屋市中區若松町
伊藤利商店
振替名古屋一〇三七七番 電話中三九九六番

朝鮮唯一 認可電醫

創立三週年特典生募集

▼物理醫療士責任教授

最新物療全科教授 院長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朝鮮에도近近取締規則이發令되다하니無試驗으로開業資格을어드라는者는速히入學하라 本院卒業生은醫師同樣에開業할 希望者에게는學則、內容書送呈、葉書로申込하라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二四四番地

▲近來本院의模倣講習院或은學院等이잇스니特히注意하시라

CAS—9

삐루·펜의嗜好가무어니무어니해도이것이아니고야참맛이나야지!

朝鮮麥酒株式會社

永樂町 電三六三番 **中央館**

當る六日特別大公開 春!櫻花滿開의好シーズン에放つ此의名作!此의監督!此의名優!最高를誇る悲劇秀作篇『己が罪』遂に來る!!

上映時間表(第一回、二回入替制)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新興東京大泉撮影所超特作 高田プロ大合同製作 原作菊地幽芳 脚色監督西鐵平 パート・トーキー **己が罪** 全十三卷 高田浩吉、山路ふみ子主演 新派劇壇の雄藤村秀夫特別出演 菅井一郎、三枝俊子、浦邊粂子、金澤コンチヤン、金澤美津子、大競演 此の特別メンバーに成つて、新作された、不朽の名作を是非!!

新興京都撮影所超特作 原作脚色八幕不二 監督石田民三 撮影川崎常次郎 オール・サウンド版 **春色五人女** 全十卷 鈴木澄子、森靜子、白石明子、毛利峰子、泉清子、大競演

浪花館

五月六日ヨリ五月十二日マデ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支那海 有りがたうさん あの道この道

▲**支那海** メトロゴールドウイン超特作 クラーク・ゲーブル ジエーン・ハーロー ウオーレス・ベアリー 共演

松竹文藝トーキー ▲**有りがたうさん** 上原謙、桑野通子、築地まゆみ、二葉かほる

松竹夢心組情映畫 ▲**あの道この道** 本郷秀雄、水島光代

黃金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五月四日封切] 每日二回 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유니버살超特作映畫 **女性은 求한다**

◇유니버살超特作映畫 **青空을이불삼아**

뉴ー스 全卷 大每特輯全發聲 快又!壯!

타ー무 타ー무 姬 조세핀 배ー카ー主演

永遠に愛せよ 巨匠헌리하ー사웨이氏大作 게리쿠ー파ー氏、안나、스텐氏主演

藝術映畫의最高精華篇!! 五月六日부터二大名篇特別封切 夜間은七時四十分부터始映합니다 巴社超特作超級日本版

全鮮第一映畫殿堂 **團成社**

男のまごころ 寸川宇禮美、星玲子主演

一千餘學級을增設 七萬餘名增募計畫
◇今後十個年間의計畫으로
江原道普校擴充成案

【伊川】강원도내의 일면일교제는 금년도로서 완성을 보게된바 삼면일교제에서 일면일교제로 다시재산자로서 면내각지역에따라 통학상불편을늣기는 곳에는일면이교제로증설할뿐만아니라 현재도내에서 학령아동의 취학률을보면 일할구분에리라는 적은수효인바 이를 금후십개년간에륙할까지는 수용할수잇도록 하고자 구체적으로 방침을수립하야 현재사년제의 면사무소 소재지의 보교는 전부 륙년제로하면을 연장시키고 또한 륙년제인 보교는 학급을 증설하야 한학년을 한학급식으로 만드러 복식교수를 하지안토록하고 석이변도부터 매면 일교학급증가하야 삼면간에 일천륙십사학급의 증설을하고 아동의 수용량은 매면 칠천오백이십구인식 학급만오천이백구십인을 가하도록 할계획을 수립하엿스며 간이학교는 매면일군에 일교식을 증설하야 매면일천사백칠십명 한 일만사천칠백명을 수용코자 명변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한다

學父兄熱誠으로 東明學院增築

【盈德】경북영덕군내(盈德郡內)에도 구계소보통학교가 와 삼계소간이학교가 잇스나 매면이화시키가 되면동학 대하야 일화식하는 학급을여도 불과매년삼만기 일화되지안는 현상임에 일면일교로는 도저히 교육의 완벽을 일우지못하는바 이를개탄히 역이는 본군강구면 삼사동(江口面三四洞) 사립 동명학원 (東明學院)에서는 간부이하 학부형들의 열성으로 상당여원의 공비를지출하야 교사증축을 사월초부터기공한바 불원간 준공되리라는바 동학원은 보교뿐아니라 동해안어촌으로서는 유일한 역사를가진 대정팔년경에 설립되여 이래만흔영재를 배양한바 증축마완성되면 부근무산아동에게는 일대행복이되리라고한다

慶州赤農組事件 最高五年役求刑
被告八名은全部事實을否認
言渡期日은來十二日

【大邱】팔개월이나 취조중에잇든 경주적색농민조합(慶州赤色農民組合)사건의 관계자 리칠성(李七星)외 여덜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의 공판은 사일오전 열시반 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등(江藤)재판장 주심 송기(松崎) 검사립회아래 개정되엿는데 피고전부는 재판장의 심문에대하야 사실전부를 부인하엿는데 심리가끗나자 검사는 다음과가티 구형하고 변호사의 변론이 잇슨뒤 폐정하엿는데 언도는오는십이일이라한다

李七星(三一) 五年(求刑)
李 雨(三二) 四年 同
孫東昌(三三) 四年 同
崔秀峰(三二) 三年 同
崔明均(二六) 二年 同
金永萬(二六) 二年 同
金孝出(二二) 二年 同
孫聖寅(二七) 二年 同

記念碑濫造의弊?
面長의功蹟碑를破壞코
人糞의洗禮까지주어

【泰川】다년간추한 면장의 공적비를 일조에 파괴하야 신작로에 버려노코 인분으로 장식하야노흔 더러운수작 일막=평북 태천군일대에는 수년이래로 각지에서 인민에게 긔부를 모집하야 면장의 공적비모모의긔적비 긔념비등을 함부로 건립함으로 일반의 비난이 자자하든중지난 삼월하순에는 어떤자가 태천군모면(泰川郡某面) 사무소 압헤 서잇는 현면장모씨의 공적비를 너머트려 압신작로까지 운반하여다노코 인분을 담어다가 발려노코 또다시 면장욕을 설한 광고문을 작성하야 비석과 각지 계시판등에 첨부하엿다는데 삼일아침에는 다수군중이 모혀 현장을 감정까지하엿다는바 그리면에는 중대한원인이 잠재하야 잇다함으로 소관서에서는 극비밀리에 범인을엄탐중이라는데 일반은 다대한흥미를 가지고 사건의추이를 주시하고 잇다한다

河蛙農場問題
共營으로解決

【山城鎭】살길을 차저서 이역산천인 만주까지오게된동포로서 될수잇는한에는 상부상조하여야할 의리를 배반하고 사소한사리에눈이어두어 동포간에 불미한합리행위가 각처에서 이러나는바 최근에도해룡현관내(海龍縣管內)에서 토지계약선지권(先持權)쟁탈전이 잇섯는데 이제그자세한내용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작년팔월경에 당지에 거주하는 윤후용(尹厚鎔)리원세(李元世)등 량인이 하와농장(河蛙農場)직배인 [illegible] 일개월을 만주로부터 수전개발키로 계약하고동시에 [illegible](洞口)에거주하는 최송산(崔松山) 최현덕(崔賢德)황교빈(黃敎彬)등 사인이 역시적극토지를 기약하엿는바 량편이 선지권을 주장케되여 [illegible] 등을 비롯하야 그리가 판거다툼의 순옥거렷스나 미결로나려왓든바 비로소 지난이십팔일에야 겨우 당지민회장리상열(李相烈)씨와 그타지방유력자들의 알선으로 량방이 공동경영키로 해결을 보게되여 문제중에잇든이주동포들인 백여명도 겨우안정을보게되엿다한다

共軍과關東軍接戰
兩軍死傷者二十餘名의多數
通化縣一帶人心騷亂

【安東】오월이일도 경찰부에도달한 하남대안정보에의하면 통화현북부(通化縣)에잇는 공산군 양사령(楊司令)과 왕수각(王樹閣)의로구목이 인솔하고잇든 합체공산군 약칠천여명이 사월 오후세시쯤 흥경현(興京縣)부근에서 통화현에 잔치고잇든 제삼려단 제칠호반 영사와 밋 관동군(關東軍)과 서로 맛나 몃시간에 해친 대격전을 하엿다는데 이싸홈에 공산군측은 십사명의 사망자가 낫고 만주군측에도 삼명이 사망하엿는데 근레에 보기드문 대격전으로 부근주민들의 인심은 흉흉하다고 한다。

全朝鮮弓術大會
十八日부터四日

【慶東】대천무학정 에서는 본보대천지국 후원으로 전조선남녀궁술대회를 오는십팔일부터 사일간 무학정(武學亭)사장(射場)에서 개최하리라는데 전조선 남녀사원제씨는 만히참가하기를 바란다하며 상품은아래와갓다고한다

一、賞品 男子部
一等 一人現金五十圓 入字長弓一丈
二等 二人現金四十圓 入字長弓二丈
三等 三人現金三十圓 入字長弓三丈
四等 四人現金二十圓 上品長弓四丈
五等 五人現金三十圓

女子部
一等 一人現金五圓 上品長弓一丈
二等 一人現金七圓
三等 一人現金五圓

등외에도 상품이 풍부하다고한다

永平學院을設立
鹿上里李鍾萬氏特志
二千圓自進負擔코

【永興】초등교육기관이 불완전함으로말미아마 해마다 입학하지못하는 아동이 수천명을헤이게 그들은가두에서 방황하고잇는데 이들을구하고저 영흥군인흥면 녹상리(永興郡仁興面鹿上里)에서 광업을경영하는 리종만(李鍾萬)씨는 현금으로 이천여원을 드려 동원간에 영평학원(永平學院)을 신축설립한다하며 그리고 인흥면 제이보통학교기성회에도오백여원을 기부하엿다는바 씨의특지를 일반은 매우 칭찬한다고한다

酒稅令違反!
罰金四千餘件

【慶北】왜관(倭館)세무서 통계에의하면 신년도칠곡(漆谷)성주(星州)양군에 주세령위반 (酒稅 [illegible]

元山基靑主催 早起體操講習
八日부터二週日間

【元山】원산기독청년회 체육부 주최와 본사원산지국 후원으로 오월팔일부터 이주일간 조긔체조강습회를 개최하고 매일아침 여섯시부터 두시간동안 정말체조와 라디오체조를 가르친다는데 강사는 류씨고보의 강원조(姜元祚)씨고 장소는 류씨보교 운동장이라고한다

虛川江水電工事
第一期年內完了
本工事는明春부터

【咸興】함남지방에 중대영향을 주고잇는 허천강(虛川江)수전공사는 방금 웅지에수공사가 착착 진행하고잇는중인데 제일기공사인 홍산(洪山)을 중심으로 한록、송전선(送電線)과 겸천、길주(吉州)두변전소와 설치공사는 임이 착수하야 오는십이월까지는 준공될터이며 도근(?)공착공하기로 되여잇는 단풍선(端豐線)의 완성되는 명년이래 공사인 본체의 수전공사에 착수하게될터이라는데 느저도 래년에서부터는 착수될것이라고 한다

鑛夫重傷
不注意의災로

【高原】이일오전열시십오분 고원군 수동면 인흥리 (高原郡水東面仁興里) 주우금산(住友金山)에서 광부 차도식(車道植)(二一)이가 작업중 돌을「다이나마이트」한개가 남어잇는것을 알지못하고 정으로 바위를 두드리다가 폭발되여 차도식은 안면 전신부에 치료십주일을 요할 중상을 입엇스며 다른 로동자두명도 경상을 입엇다고 한다。

屋外勞働奬勵로 婦女移秧競技

【伊川】규중에서 로동을하지안코 실내에서 겨우침선이나하든 부녀자들에게도 절대로 세상에 선외활동으로 옥외로동을 장려하고자 금번 이천군농회에서는 부인이앙경기대회(婦人移秧競技大會)를 실시하야 금번의 논모는 부인외손으로서 하도록 하고자 한다는데 이제그내용을 드르면 이천군내에서 도작지대(稻作地帶)인 용담면을 제외하고 신계면에서 부녀자들이 출동하야 논모를내기하고 참가한 부녀자들에게 전부 추첨권을 배부하야 추첨의결과 다음과가튼 상품을 수여한다는바 부녀자들에게 만흔 흥미를 잇을것이라고한다

一等 一人 壽平一個
二等 二人 晒木半疋
三等 五人 晒木十尺
四等 十二人 晒木五尺

本報支局後援 咸南蹴球大會

【咸興】함남신흥청년회(新興靑年會) 주최와 본보지국후원하에 오는구、십양일간 당지공설운동장에서 함남축구대회를 개최하리라는바 지원은 방금그준비에 맹활동중이며 본보지상소식에 의하야 각지방선수들의 참전이 만키를 고대한다고한다

一、優勝 優勝旗一本 賞金五十圓
一、決勝戰에 敗한團 賞金十圓
一、中 [illegible]

六臺普校基本金
四萬三千圓突破
現圓으로二萬二千餘圓 土地로一萬三千餘坪
漁村有志의이教育熱

【雄基】부내륙대보통학교설립기성회에서는 본교설립기금으로 주민의 열렬한 의연금이 연속답지하여 불과한달이내에 현금으로 삼만이천여원에 달하엿다함은 기보하엿거니와 그후 다시 의연자가 답지하야 현금으로 이만이천여원이 되고 또 토지로 일만삼천여평에 달하엿다는바 의연자의 씨명은 다음과갓다

◇二回分義捐者
徐斗極五千圓 金龍奎四百圓 李舜吉百圓 韓敬允 金禎三 金擇元 金仁鳳 劉寶全 各二十圓 金大潤 金亨禮 各十圓 劉昌俊 金取濟 李成洙 各五圓 南炳萬三圓 李春得 任守業 朴浩甲 金炳連 徐廷翰 李鳳郁 朴炳善 全致東 金雲元 各二圓 李洛瑞 金雲穀 崔致泰 各一圓 六臺漁業組合 三百五十三圓 六臺上石里莊內現金 八十五圓

[illegible]

咸中線經營權掌握?
新鐵에서三百餘萬圓工費로
端豐線工事不遠着手

【咸興】장진 부전 허천의 삼대강수전회사를 한손에너어 바야흐로 그방대한 재력을 여지업시 휘두르고잇는 야구재벌 (野口)에서 경영하고잇는 신흥철도회사(新興鐵道會社)에서는 이번에 종래팔십만원이든 자본금을 일약이백만원으로 증자하는일방 발전설치공운이 농후한 함중선(咸中線)철도도 경영하게되리라고하며 또한 허천강(虛川江)수전공사 착공보다압서 부설하지안흐면아될 단풍선(端豐線)철도공사도 오월하순경부터는 공사를 착수하리라고하는데 공사비는 열"킬로"에 삼만오천원가량으로 전연장구십"킬로"에 삼백십오만원이며 처음에는 수전회사전용선(專用線)으로 사용하다가 공사완료이후에는 영업선으로 일반에게 개방한다고하는데 함남은 이로인하야 함중선 신흥선 단풍선등 삼간선철도가 전통되우로 함남오지대를 꾀뚤하야 거이 무진장이라고 일컷는 보고(寶庫)가 개척될날도멀지안흔양날에당도하게되엿다한다

哈爾賓金融會
四期定期總會

【哈爾賓】할이빈금융회 (哈爾賓金融會)제사기정기총회는 지난이십팔일 하오두시부터 연빈루상(賓宴樓上)에서 회원총수이천칠백팔십구명에서 위임장출석자 일천오백팔십구명과 구실삼명의 직접출석으로 개회되여 제반사무 대차대조 사업보고등으로 대회는 착착 진행되엿는데 금회에 피선된 임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會長金斗鎭(再任) 監事金汝伯(新任) 評議員 徐相洛(新任)

林務係員瀆職事件
荒木에게一年半
四日咸興法院서求刑

【咸興】한때 함남관계에 일대센세이숀을 이르킨 원함주군림무계주임(咸州郡林務係) 황목한수리(荒木勘三)(?)에대한수뢰 (收賄)사건의 제일회공판은 사일오전열시부터 함흥법원에서 미전 (米田)판사주심 장정(長井)검사의간여로개정되여 그가림무계주임으로잇스면서 직원을 리용하야 림야 대부신청인으로부터 현금혹은 상품권등의 뢰물을 전후 십이회에 걸처 바더먹엇다는사실을 일일히 자백하고난다음 동검사로부터 [illegible]

各地어린이날經過

【淸津】신록이 욱어지고꼿치피고 새가노래하는 오월의첫공일은 조선어린이들의 가장즐거운명절날이다 고히자라 기리기리빗나길 조선어린이들을 축복하기위한 이명절을 벌서열다섯번째 돌을 마지 하건만은 북쪽바다가에잇는 청진에서는이제까지 이즐거운 어린이의 명절을 긔념하엿도업고 또는긔념하고자 생각조차 하지못하얏섯다 그러든차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한 청진동해안에잇는 수양청년단(修養靑年團)에서는 金선하야 동해안에잇는 천도교소년회(天道敎少年會)와 련합주최로청진항이생긴후 처음이요 어린이명절이 생긴후 처음으로 이날을 성대하게긔념코자 미리부터 만반준비를 하엿든것이 당국의 명령으로 전청진적으로 긔념치못하고 동해안에 국한하야 긔념키로되엿다 그리하야 상협오전열시에 동해안 동덕학원(同德學院)에 오백여명의 어린동무가 모히서 김세민(金世民)씨의 사회로 긔념 식을 원만히 마친후 동학원 광장에서 행렬을지어 오백여명 어린이들이 어린이날 노래를 노피부르며 동해안시가를 귀행렬로 일주하고정오부터는 동학원 압헤잇는고말산(高抹山)후록에가서 원유회(園遊會)를열어 이날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오후오시경에 산회하얏는데 이것이 청진에서는처음이만큼 청진전체가 거행치는 못하얏스나 청진에잇서서는 초유의성황을 일우엇다하며 명년어린이날은 전청진을 망라하야 의의잇게 긔념할것을 미리굿게 약속하얏다한다

【統營】오월첫공일날은 오늘우리 어린이들의 최대명절날로서 백의민족이 거주하는지방이면 이날을선전하고 이날의 의의잇게 어린이를 중심한 사회사업을 거행하야 성대히긔념식을하고잇다 그러나 통영만은과거적으로 도외시되는모든 사정상으로 개최치못하고 그저지나가게 되든을 유감천만으로 여기여 본보통영지국인 문우양에서는 오월첫일요일은 어린이날이라는것을 선전하는 의의로서 조선어린이날 중앙연합회에서 발행한 "一、어린이날노래" "一、어린이의선서문" "二、행복으어린이헌체서" 띄부형의 심혈로포스타"등 수천매를 이어린이날동시에 산포하야 어린이날의 긔억을 [illegible] 고귀시켯다고한다

【阿間】오월 첫공일 어린이날을 축하키위하여 보통유치원에서는 얼마전부터 그준비에 분망하여오든바 당일오전 십일시부터 오백여명의 어린이와 유지들의 다수참석하에 단상취충 [illegible]씨의 의미심장한긔념식사와 유지들의 축사로서 성대히 식을 마치고 뒤를이어 장엄한 긔행렬이 잇슨다음 오후일시부터는 원유회를열고 각종유희와 경기로서 청신한 오월의 하늘미테 귀여운 우리어린이들이 힘것 마음것 즐겁게 축복받는 이날을 우슴으로서 성황을 일우엇다한다

【發安】지난삼일인 조선어린이날을 긔하야 수원군발안리(水原郡發安里)에서도 오전십시부터 발안시(發安市)광장에서 황윤석(黃潤錫)씨의개회사를 비롯하야 정재덕(鄭在德)군의 소년소녀선서문랑독이 잇슨후 향남면장(鄕南面長) 윤원영(尹元榮)씨의축사가잇자 미리부터 준비하여두엇든 과자(菓子)를 일반어린이에게 분배하고 동오후한시경에 무사히산회하엿는바 당일그행렬에 참집한소년소녀는 오백여명에달하는 대성황을 일우엇다한다

【奉天】어린조선의 [illegible]는 오월첫공일 어린이날을 뜻잇게 지나기위하야 봉천조선청년회주최로 지난삼일오전아홉시에 봉천보통학교마당에 삼천여명에갓가운어린이들이 울긋불긋한 새옷을가러입고 경쾌한보조로 몰려들어 청아한 어린이날노래를 합창하고봉천청년회의원창전병태(田丙宅)씨의 조선의어센주인공이 되여달라는 의미심장한 긔념사가 잇슨뒤에 어린이대표의 선서문랑독과 래빈축사로 김태덕(金泰德)김병갑(金炳甲)지석모(池錫模)씨등의 축사가끗나자 또한번 어린이날노래합창과 어린이날만세삼창으로 식을끗마치엇다 그다음 긔념사진을 촬영하고 악대를선두로 삼천명소년소녀가 식장을 떠나시가행진 [illegible](十間房、西塔)대가로에 장사진을 느리어 긔행렬을 돌고나서 다시식장에 도라와 한자리에서 복떡을난호아먹고 만세삼창으로 폐회하엿다한다

敎會職員改選【舍人】

【順川】순천군사인장 장로교회에서는지난일에 실무직원개선을 하엿다는바 신임직원의 씨명은 아래와갓다고 한다
◇主日學校長 金昌煥
◇管神 金昌華 裴東燮
◇執事 崔鳳俊 曹元入 崔昌瑞 金榮斗 曹仁淳 리덕환 리위성 김순덕 리현에

水電의放水被害
降雨期에는尤甚할것이明白
不安을豫想하는百五十住民
對策을咸南道에陳情

【咸興】장진강수전발전소의 방수(放水)로인하야 흑림강(黑林江)연안의 각촌락전답이 침수되어 그피해가 막대하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작년겨울 제일피해가 심하엿든 상기천면오로리(上岐川面五老里)에 대하야서는 회사측에서 교량(橋梁) 도선(渡船)등으로 교통에 아무지장이 업게하야 위선리착을하엿슨 모양이나 그외 다른지방은 아무 대책도업슴으로 알아이라 더욱이 녀름 강우긔(降雨期)를당하면은 강물이 항상 범람하는동래의경험에 방수(放水)까지 한치면 연안의 전답가옥은 일시에 물속에될수밧게업는 운명에빠질것이 뻔하다는것보담 오히려 명백한것임으로 관계주민 하긔정(京井)상리(上里)서상(西上)리 하기천면(下岐川面)송평리(松坪里) 동주민 일백오십여명이 련서로 지난이월부터 오월상순의 최근까지 련서회에 빠처 흑림강(黑林江)의호안(護岸)공사를 하야달라고 함남도 토목과에 진정하야왓는데 당국에서는 회사측과 절충하야 이상이업도록 대책을 강구하야 주리라고 다고한다

"와서보니後悔!
會寧飛行場工事場을차저온
南道移民눈물겨운情實談

【會寧】남선이민단사백오십여면이 회령비행장공사장으로 살길을 차저 도착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민단이 도착된지 불과 이삼일이 못되여 전하는바에의하면 이민들은 다른대로 가겟다느니등 조치못한 말성이 들임으로 긔자는 이민여러분에게 인사겸 사실여하를 조사하기위하야 지난삼일에 그들잇는공사장에 친히가서 이민대표를 방문한결과 소담은다음과갓다

우리일행이 금번회령으로 오게되것은 세상이 다아다십히 남선지대는 이중삼중으로 비상한재변을 당하게되자 좌이대사(坐而待死)할수업는 처지에 일동이우리들은 불가불 정든고향을 떠나지 아니할수업는 이때에 군당국으로 부터 공문발포도 잇섯고군수가 직접으로 말하기를 북조선 로동 공사장에 일원이십전최하에 가면 일원이상이니 넉넉히 살수잇다고하기때문에 맛고와보니 최상이 팔십전이라하니 매일 일원오십비 사오십전을 주게되면 가족을 둔사람은 엇지하란가 이것이진정유감이 아니고 무엇이겟는가 의외가려면을 버리도 잘아나될줄 아랏스면 죽어도 정든고향에서 그낭지내는것이 낫다하고 눈물석긴말로 왕방긔자를 애원스럽게 처다본다

魔의貯水池!
又復一名溺死

【牙山】소위 명승지라는 온양온천시정관(?)부속 저수지에서는 살도하는 량승단의 운전은 [illegible] 저수지로 모여드러 인해의성황을 이루고잇스든바 이저수지에서는 해마다 인명의 희생이 적지안코잇는데 지난삼일에도 온양면온천리(溫泉里)에 거주하는 [illegible]

身病을悲觀하야 青年縊首自殺

【錦山】전북금산군남일면 [illegible]

거짓말가튼참말
十年前헤여진雙胎兄弟
同一罪名으로同監房에

[illegible]

地方人事

▲李元培氏(咸興警察署長) [illegible]
▲申顯權氏(同上)高川郡廳으로同上
▲安光鶴氏(本報營口支局長)五月四日營口着
▲申在甫氏(伊川支局長)新任人事次本社伊川支局來訪
▲金鳳潤氏(森林主事補)同上
▲李德根氏(伊川農業技手)同上
▲吳永燮氏(江華合一學校校長)
▲崔鳳明氏(江華合一學校敎員主任)新任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金泰榮氏(江華合一學校敎員)同上
▲李憲陽氏(江華郡廳)廣州郡轉任人事次同上
▲朴奎鎭氏(江華郡廳)長湍郡轉任人事次同上

◇營口移民完了
戶數六百戶 人口二千八百餘

【營口】금번영구농촌이민(營口移民)은지난이십팔일에 종료되엿는데 총호수 륙백호총인구수 이천팔백여명이라고한다
◇(上)連絡船으로渡東하는光景 (中)營口農村에到着하여 下車하는光景 (下)移住部落으로 짐을지고가는光景

咸興
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
▲時日 五月二十三、四兩日
▲場所 咸興女子普通學校前廣場
▲主催 咸興自轉車商會組合
▲後援 朝鮮日報咸興支局

尙州
滿洲國產業視察團募集
▲時日 五月十六日出發(十五日間)
▲視察地 平壤、新義州、安東、奉天、撫順、大連、旅順、營口、鞍山、新京、哈爾賓、吉林、雄基、羅津、淸津、京城等地
▲旅費 金九十二圓七十四錢(食費一切)
▲申請 參加金二十圓을添付하야五月十四日까지 主催者又는慶北線各驛에申請할事
◇主催 朝鮮日報社尙州支局
◇後援 朝鮮鐵道株式會社金泉派出所

金買入價引上과諸觀測

通貨信用 向上期待

馬場藏相談

【東京電話通】 産金買上價格의 引上에 關하야 馬場藏相은 五日午後 閣議直後에서 다음과가티 말하얏다

이번의 買入價格引上은 産金奬勵와 金의密輸出防止가 目的으로 金의國有保有政策의强化를 圖한것이다 從來三割의 安全率을 取하얏든것이 이번에 一割로하야 全然同一의 金買入價格을 統一하엿는데 日滿通貨를 [illegible] 今日에 金의買入價格을 同一히 한것은 意義가 [illegible] 것이다 買入價格引上이 [illegible] 影響은 그것이 이미 一割의低位에 두엇슴으로 今後影響이 甚大할것이라고 생각한다 [illegible] 金保有高의 增加가 [illegible] 노흐게될 것이며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는 업다 그러나 어떠한影響이 잇다고 하야 一、買入價格이 노흐면 그만큼 만히 金이 國內로 흘러들어올 것이며 [illegible] 二、[illegible] 잇슬것이다 三、적어도 [illegible] 가 그만큼 [illegible] 다

金保有高 增大効果

▲深井日銀總裁談

이번 産金買入價格의 引上은 [illegible] 하엿는데 이곳에는 [illegible] 할것은 업는 [illegible] 入價格과 同一케하라고 [illegible] 不可分의關係에잇는[illegible] 本이 從來金의買入價格이 [illegible]

滿洲金價 調整目標

▲石田鑛山課長談

産金獎勵、密輸防止의見地上 朝鮮의買入價은 [illegible] 二割의安全率을 [illegible] 一割로 [illegible] 昭和九年에는 [illegible] 十年二百萬圓이다 [illegible] 不少한金이 [illegible] 上으로 實現이 不遠하다고할수가잇다

安全率을 一割로減縮

馬普銀行側觀測

【東京電話通】日銀金買上價引上에 關하야 [illegible] 銀行側에서는 다음과가티 觀測하고잇다 이번의 引上價格에 對하야 政府는 産金의 國內保有量을 强化케하라는것이라고 하나 實際에는 最近 朝鮮産金이 滿洲國에 密輸出되야 그 一部는 上海에 [illegible] 되는 事實을 보고 그防止를 [illegible] 것이다 [illegible] 의 安定한 現在密輸防止以外에는 何等의 意圖가 잇는것이엇다 그래서 日銀當局은 이번의 買上價格에는 論理的、數字的 根據가 업다고 말하나 이半個年 約一○%(?) 七個月 一志에 [illegible] 一志二片으로 [illegible] 安全率을 [illegible] 十三圓十一錢二厘五毛로 되야 [illegible] 二厘에 不過한 [illegible] 아마 右倫敦金塊의 半個年平均市勢가 [illegible] 것으로 [illegible] 上價格과 同價格이므로 [illegible] 에 密輸出은 防止될것이나 上海를 [illegible] 對하야는 [illegible] 價格이 [illegible] 影響에 對하야 現在 [illegible] 가 全然金과의 關係를 [illegible] 金의 自由市場이잇는 [illegible] 野蠻(?) 現出할것은 全然 [illegible] 的效果할것으로 본다

買上價大幅引上 金密輸根絶

市中地金商人도朝銀에納入

市中價、買上價下廻

朝鮮으로滿洲、上海를거처海外로 密出이 年二千五百萬圓以上의金이 密輸出되는때문에 非常時局에際하야 特히그防止가 여러가지點에잇서 緊急視되엿든바 馬場藏相은五日에 日銀金買入價格을 一瓦三圓五十錢으로 一擧四十一錢의急引上을 斷行하얏슴으로 倫敦金塊市勢換算에서 一割의「마-진」(安全率)을 除한것과 大差업고 滿洲中央銀行買入價一瓦三圓五十錢과 全然同價로되엿스며 朝銀도 六日午前十一時半頃 一瓦三圓四十八錢으로 亦四十一錢의 引上을한때문에 京城市中商人은 政府의大幅引上에 착할하야 地金賣買로서는 利益될것이업게되고 六日의 東京과 京城의 市中金價는 一匁買十三圓으로 日銀買入價一匁換算十三圓十二錢五厘보다 七錢五厘 朝銀買入價보다五錢低인 珍現象을 呈하잇는바 京城德力에서는 이가티 買上價가 [illegible] 되때문에 이로부터는 할수업시 朝銀으로가져갈수박게 업게되엿다고 歎하엿서 密輸出은 이에 全滅케되엿다한다

朝銀도追隨 金買入價引上

一瓦三圓四十八錢

朝銀에서는 日銀의 金買入價引上에 追隨하야 六日午前十一時半如左히 金買入價를 改訂引上하고 發表即日實施하엿다

一、一瓦에 三圓四十八錢(舊價三圓〇七錢)

一、一匁十三圓〇五錢(舊價十一圓五十一錢二厘五毛)

市中金價急騰

▲東京=六日의東京市中金價는 德力入電에 依하면 賣十三圓四十錢 買十三圓으로 各九十錢高이엇다

▲京城=日銀及朝銀의金買入價引上發表는 京城市中地金賣買業者에게 大衝動을 與하야 德力商店에서는 今朝來市勢混迷하야 買價를 發表치안코 노미날로 十三圓三十錢賣 十二圓九十錢買唱이다가 朝銀이 決定하야 十三圓三十錢賣 十三圓十錢買로 發表하얏다 前日보다 賣一圓 買九十錢引上이엇다

純金갑보다 白金이싸다

政府의 金買上價引上에 依하야 京城市中純金價와 白金價를 比較하면 賣價에잇서는 純金이 七十錢低이나 買價는 白金이 純金보다 도리어五十錢이 低價로되엇다

◇……金買入價를引上한朝鮮銀行과 京城市中金銀商金買入廣告

日銀金買入法

改正法律案通常議會提出

【東京電話通】日銀의 金買入 [illegible] 銀行도 來通常議會에 [illegible]

滿洲中銀利下

十一日부터實施

【新京電話通】日本의低金利政策에 伴하야 滿洲中央銀行에서도 利下키로되야 財政部에 그認可를申請中이든바 五日認可가 되엿슴으로 十一日부터 引下實施키로되엇다 그利下率은아직 發表치아헛스나 割引日步一厘 定期預金二厘引下가 될모양이다 그리고 이에伴하야 朝銀其他의 銀行도 來週早晩利下할것이라한다

入價格引上에 伴하야 大藏省에서는 日銀金買入法에 依하야 政府가 日銀의金買入에關하야 指示한 買入金限度를現行二億圓에서 다시 一億圓가량增額키로되고 그改正法律案은 來通常議會에 提出키로되리라고한다

産金熱에拍車

金鑛採算好轉

産金買上價格引上으로 産金朝鮮에 一大好影響이 期待되어 買上値引上에 依하야 産金事業의 採算은 一層好轉되고 既存鑛區의 增稼 新規事業着手도 當然 促進되어 産金事業熱은 拍車를 加할것이 豫想되는바 根絶로 朝鮮의 産金密輸 産金額增加保有 量增加가 期待된다하며

産金採算點 ◇……百萬分之四•七로

年産八九千萬圓

日銀의 金買上價引上을 産金國의朝鮮에는 一大好況을 呈할터이다 于先採算點을보면 中止의金山에잇서서 探鑛、製錬、事務費等의生産費를 毎匁十五圓假量으로한다면 從來의買上價로는 百萬分之五•三까지 이든것이 今次의引上으로 百萬分之四•七 까지는 採算이 可能하리라고 鑛産課에서는 計算하고잇다、따라서採算不能으로 休眠狀態에든金山도 蘇生할것이 多數잇슬것으로 鑛山景氣는 어느程度까지더熾烈하리라고 보고잇다 卽鑛區는現在 五千五百九十六區中金鑛이四千六百餘所를 占하고잇스나 그中休眠中에 잇는것이 約二千이나 되리라는데 이 休眠鑛中에서 今般 多數蘇生할터이다 다음에問題는 買上價引上으로 密輸出이 杜絶됨에따라 金은一部家內裝身用其他에需要하는것外에는 大部分 買上需應케되며 産金業者의報告도 正確에갓가울수잇슴으로 産金額도 相當한增加를볼것이다 卽 當局에서는 朝鮮産金額五千萬圓에 密輸가 二三千萬圓이라고 推定하고잇섯슴으로 이를合하여 年産八九千萬圓에 達하리라고보고잇다

産金稅新設?

【東京電話通】産金買上價引上에依한 業者의利益은 年産八千五百貫으로 約千二百萬圓에達할모양임으로 그中 日本鑛業은 四百八十萬圓의利益增加가 될모양이다 그러고이로因하야 十一年度約三割程度의增産이 豫想되는데 一面産金稅를 新設할意向도잇는모양이라고한다

連絡荷物協議會

第九回 日本內地、朝鮮、滿洲連絡荷物事務協議會는 十二日부터 四日間 別府에서 열기로 되엿다 [illegible] 鐵道局에서는 田邊貨物係長以下 十三名이 出席할터이며 提出議題는 卅六件으로 그中主要한것은 다음과갓다고

一、파킹케스使用荷物事故防止

二、連絡船內의盜難事故防止

三、滿洲關係貨物의 [illegible]

〃新舊金價比較〃

政府買上價 急引上發表로 六日의金價는 如左히 一齊改正되엿다

		新	舊	比較
日銀(瓦)		三圓五〇錢	三圓〇九錢	四一錢高
(匁)		十三圓一二五	十一圓五八七五	一圓五三七五高
朝銀(瓦)		三圓四八錢	三圓〇七錢	四一錢高
(匁)		十三圓〇五錢	十一圓五一二五	一圓五三七五高
東京市中(匁)	賣	十三圓四〇錢	十二圓五〇錢	九〇錢高
	買	十三圓	十二圓一〇錢	九〇錢高
京城市中(匁) 純金	賣	十三圓三〇錢	十二圓三〇錢	一圓高
	買	十三圓	十二圓一〇錢	九〇錢高
廿二金	賣	十二圓八〇錢	十一圓九〇錢	九〇錢高
	買	十二圓三〇錢	十一圓七〇錢	六〇錢高
二十金	賣	十一圓七〇錢	十圓九〇錢	八〇錢高
	買	十一圓二〇錢	十圓六〇錢	六〇錢高
十八金	賣	十圓六〇錢	九圓九〇錢	七〇錢高
	買	九圓	八圓五〇錢	五〇錢高
白金	賣	十四圓	十四圓	不變
	買	十二圓五〇錢	十二圓五〇錢	不變
純銀	賣	二十錢	二十錢	不變
	買	十七錢	十七錢	不變

倫敦金塊	六日入電	五日入電	比較
一온스	七磅〇志四片半	七磅〇志四片	半片高
一匁換算	十四圓四十七錢	十四圓四十七錢	不變

今日入電 匁換算은 十四圓四十七錢인데 日銀新買上價는 十三圓十二錢五厘임으로 一圓三十四錢五厘의 低位인즉 倫敦의 一割마-진놓고하면 거의同價이다

朝鮮內肥料統制

價格公定이問題

容易決定키어렵다고

肥料統制法案이 議會通過後는 朝鮮에는 施行키로 決定하고 滯東中의 矢島農林局長、山澤農産課長이 中央部와 折衝을 하는데 同法案의施行에잇서 問題가 되는것은 價格決定으로 朝鮮의實施에關하야도 亦是公定價格이 問題될것으로본다 公定價格은 大體基準價를決定하야 上下一割程度의屈伸制를 取할것으로보는데 硫安의生産費는 石灰窒、窒化法、個定法其他로 各各生産費를 달리하야 現在 商工、農林兩省間에도 生産費의見解가 달느다 朝鮮에서는 日本內地와 달리 朝窒一社에서 그生産費는 周知함과가티 最低에 接近한價格이며 日本內地의 生産費와 相當한差가잇다 朝鮮의 肥料統制에는農林當局이 어듸까지 獨自性을가지게하야 强行方針의 意向인反面에 朝窒은 日窒과의 對比를主張할것으로 이公定價格問題는 注目된다고한다

▲殖銀新起債

殖銀에서는 一千五百萬圓의 新殖産債券을 四分二厘로發行하엿는데 殖銀으로서는 四分債를 엿보고잇섯슴을 不拘하고 結局 滿鐵社債와 가티 四分二厘로 落着한것은 起債市場이 需給市場의强調에牽制되야 豫想外로 硬化한것을 보힌것이라고한다

取引停止

(五月二日) 京城府竹添町二丁目六七番地 酒見忠

經濟寸鐵

○

金密輸出로 수낫사람도 만코 경친사람도 만흐더니 政府買上價의大幅引上으로 密輸出은 全滅

○

株式 保合離脫 上放

商況(六日)

金塊하는사람 억개바람 나게되엿다만 密輸出 너무 부러지는 말라 ○ 작게사서 비싸게 파는재조로 오래동안 작사가 조튼 大小判金商들 世界水準에까지 金을 올려놋코나니 버릴 다해먹엇다고 우는소리

前場急騰

今前場은金買上價引上에 伴하야日産高이오 東新도 新高價로올라場面活況이엇고 오래간만에 實買가만히잇는데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二圓八十錢高인百三十三圓二十錢 日産一圓三十錢高인七十二圓五十錢 大新一圓三十錢高인七十二圓七十錢 鐘新八十錢高인百五十一圓六十錢 拓新二十一圓六十錢에 各大引되고 朝取六十九圓丁 朝新二十七圓二十錢 新二十一圓三十錢 朝石十七圓十錢이엇다

後場續騰

後場도 買氣繼續되어 强調維持로서 結局東新百三十四圓五十錢、日産七十二圓九十錢、大新七十七圓丁、鐘新百五十二圓五十錢、朝新二十二圓十錢의 高價가잇섯다

期米 新高價로 活躍

前場續騰

昨後場後 阪地三十錢에 暴騰 三十圓五十七錢에 引寄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〇五錢인 五丁反高를 撥하고 三十圓六十四錢인 七丁反高로 寄한 後 阪地는 七節十一錢으로 盤하여 强하엿다가 結局十四錢에 止할새 件하야 漸新的高價로 七十八錢의 最高價로 頑强히 場를止하엿다

後場益騰

後場은 三十圓八十四錢에 六丁高로 始騰後三節八十九錢에 까지 續騰되다가 四、五節八十二錢에 弛하고 八十一錢에止場하다

株式好感으로

米界亦受響

昨日百三十圓大暴落 劃破하엿든 東新은 今朝百三十一圓臺로 突高하야 各地共히 十丁內外의 反受하야 各地共히 十丁內外의 反高를示함에至하엿다 그原因의所在를究明하면 政府서金買上價를 引上함에따라 株式界가 먼저直接 影響을바게되고 그餘波가米界에 波及되엿슴인데 實로金價引上은 通貨膨脹에 莫大한 好感을 주어 一般經濟界의 圓滑을可하게됨으로 株와米에만 影響이 잇슬뿐아니라 諸商品界에 까지 活況을 呈할것을 足히 豫測할수잇다 今回議會에서 現內閣의 組閣當時에 [illegible] 問題이엇든 軍部側의條件인 모든政策의 實現與否는 아즉未然前의로 確斷을 나리기어려우나 그러나 金價引上만은 物價昂騰의 唯一한信條임으로 株米共히 此以上의 膽騰은 마치 疑問이나 어느程度까지 低落市勢를 防止할것만은 事實일것이다 今後大勢果如何?

挑下는弱材 殘米는强材?

挑近米界의 注目을 끌어오는 政府所有의 古古米拂下說은 弱材視하는바이나 五月一日 現在日本內地 殘存米는 强材視하는光景이다 果然政府로부터 入札에

產金株一層昇騰

政府는 日銀의 金買入價格을 大幅引上하야 六日부터 實施하얏는데 右引上幅이 豫想外로 컷슴으로 産業界 産金取引業者、株式方面에 大衝動을 與하야 金山會社方面은 從前보다 匁에一圓五十四錢이나 益이 增加될듯 好感하야 朝鮮産金界는 各金山의 鑛業增産을 行키에 至할것이 非常히 活況을 呈하겟는데 一方株式方面은 産金株는 六日一齊히 昂騰되어 日鑛은 百四圓으로 前日九十八、九圓에서 一躍百圓의 大台를 突破하고 日産도 六日의 朝取市場에서는 七十二圓五十錢에 寄附되어 前日의 後場止보다 二圓三十錢의高寄附로서 强調이엇다

金買入價引上

新高價로上放

場面顯著硬化

議會經過가 注視되지안흘이아니오 社會不安도 解消되지 안코 經濟統制-增稅等의 輪廓이 나타나기까지는 창황히 손대일것이 업다하야 東新가튼것은 全然 保合觀에 一致되고 例의低金利市勢도 支柱는 될지언정積極的 買氣勃興의 힘이 되지못하얏더니 金買上價 大幅引上이 動機가되어 市勢는 形勢一變하야 東新은 三月中旬以來의 新高價로 上放되고 日産도 七十圓臺를 完全恢復의 好勢이엇는바 오래동안 貰込되기도 하얏고 또는 底值觀測에 相當하얏덧만큼 먼처럼 上放되리라니 議會에서 諸問題 惡材料가 나오지안는限 더上勢가 될것도 가리보이어 場面은 顯著히 硬化되엿서다

實物前場取引

▲大同産業 一二五〇 ▲ㄷ롯지 鑛業 一五五〇－八〇 ▲朝滿開

市場六感

株 아모까닭업시 昨後場引際 日産이뛰더니 日銀金買上價大幅引上이 發表되엇다 냄새가 새인게지▲오래동안 잠잠갈앗 不振든 株式市場이 金買上價引上되면은 今前場은 日鑛筆頭로 一齊上放▲東新까지도百三十圓臺에서 머리가 무거울테니 前場은 三圓臺 後場寄後四圓臺로好轉▲議會波瀾前에 한번 취하여볼판? ▲金保有高激增으로 通貨膨脹이 豫想되고 紙幣값이 現實로 헐해진것을보고는 株界의 好感이어찌 업슬손가?▲자！그러면 東新이어디까지 올라볼런인가

米 天下堂島의 唯一한 强派 人潮先을 對岸觀하고잇는 馬越、田中貞의對抗力도 鄭顥할 수업지만 天然의大勢가 後援을 하지안는데야 奈何▲三十三圓十三錢까지 昂騰하엿든 市勢가 馬越、田中貞의防戰으로 二十餘丁의反落을 示하엿더니 意外金價引上의 强材가現出하야 다시反撥 ▲此騰勢가 一時的現象일지는 몰으나 金價引上은 諸物價의昂騰을 招致할唯一한 强材인것만은事實 ▲此의間接材料를 떠나서 生의

그自體(?)를말하자면도 二年繼續의凶作後이라 大勢의昂騰을 否定하지는 못할듯 ▲그런데 昨今米界의 注目을 끄는 點은 政府의 古古米拂下與否와 五月一日現在 日本內地 殘存米의 發表이엇다 ▲拂下는 弱材視할수 잇고 殘存米發表는 材視할수잇다 ▲그러나 政府가入札의 拂下를하지 안코 部分部分의拂下로써 米不足의緩和方針을 取할지도 몰으며 又는激減될것으로豫期하는殘存米가 意外增加될지누 가알라? 두고보자구나

各地正米

買方=地場强氣側株式側 賣方=田中貞馬越 朝鮮側櫻井 某

京城上放

産地의强調와期米高로 商談이恢復되어 氣配二十錢高唱인 九仁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硬化

期米의新高價에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政府所有八年産米拂下申請은 四日 一萬石을突破하고 計五四、八五九石六斗에達하얏는데 더욱增加할모양이오 이외關聯하야 五月一日現在殘存米發表後에 整理賣却의 名目으로 大量拂下가實施되지나안흘가하는 觀測으로 高價警戒氣分濃厚이엇다 萬若拂下가잇드래도 數量如何에依하야는强弱材料가어듸로될지未判하야當分强堅保合이리라고

朝取期米取組內容

依하야 어떠한程度까지 拂下할 新行하게될지 又는部分部分的으로 實施하게될지 民間의 [illegible] 不足을 豫測하야 此에 [illegible] 目下의 市勢에 [illegible] 하얏는지 이러나 [illegible] 되엿고 [illegible] 拂下로써 [illegible]

◆買方 ◆賣方

今日財界(六日)

【東京國債市場】株式市況의 不安定에 影響이되어 保合이엇다 二十五錢高이나 其他는 大體로 [illegible]

釜山不動

大邱保合

群山强調

木浦續騰

土金 石金 高價 買入 大邱本町 警察署前 金華堂 長電七一三番

朝米取株 光皿 仁川府海岸町三丁目 康益復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代表電話本局②五一八六番

全白.銀.金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滿洲 送料先方負擔 京城力德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②3939 振替京城234

◆金國大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東京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價 ◆京城市中金價 ◆米國大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新油冲價 ◆肥料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砂糖 ◆海外砂糖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各地正租市勢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東京期米 ◆大阪市中在米高 ◆朝取期米 ◆朝鮮內各地期米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現株 ◆大阪短期 ◆大阪長期 ◆朝取實物 [illegible]